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24.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제 출 문

인천광역시청 귀하

본 보고서를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4. 7.

(주)아띠플랜

문 화 유 산 헌 장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향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2020년 12월 8일



경상남도 문화유산
경사장 내 주차불가

경상남도 문화유산
경사장 내 주차불가



< 목 차 >

제 I 장 과업개요

1. 과업개요

1.1. 과업명	11
1.2. 과업대상	11
1.3. 과업목적	11

2. 과업 관계자

2.1. 발주 및 감독기관	12
2.2. 자문위원	12
2.3. 용역수행	12

3. 과업내용

3.1. 과업범위	13
3.2. 과업내용	13

4. 보고회 및 자문의견

4.1. 착수보고	15
4.2. 중간보고	15
4.3. 자문회의	16
4.4.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17
4.5. 주민설명회	18
4.6. 최종보고	19

2. 선행 조사 및 연구

2.1. 기록화조사보고서	54
2.1.1.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54
2.2. 안전진단 관련 보고서	56
2.2.1. 구조정밀안전진단(2002년)	56
2.2.2. 구조정밀안전진단(2020년)	58
2.2.3. 정기안전점검(2023년)	59

3. 건축 현황 조사

3.1. 진입 및 주변현황	61
3.2. 외벽현황	63
3.2.1. 정면	63
3.2.2. 배면	64
3.2.3. 좌측면	66
3.2.4. 우측면	67
3.3. 내부 및 창호 현황	69
3.3.1. 내부 현황	69
3.3.2. 창호 현황	70

4. (구)인천우체국 원형분석

4.1. 과거 사진 분석	72
4.2. 기존 도면 분석	75
4.3. 원형 복원 기준	79

제II장 (구)인천우체국 현황

1. 일반환경

1.1. 인문사회환경	23
1.2. 역사문화환경	25
1.2.1. 인천광역시 중구 연혁	25
1.2.2. 문화유산 현황	25
1.3. 대상 건축물 연혁	27
1.3.1. 해안매립과 우편 업무	27
1.3.2. 인천 내항 일대 환경	30
1.3.3. 건축물 연혁	35
1.3.4. 건립 이후 변화	41
1.3.5. 건축적 특징	48

제III장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1. 기본구상

1.1. 관련 법규 검토 및 적용	83
1.1.1. 관련 법규 검토	83
1.1.2. 관련 법규 적용	84
1.1.3.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수리원칙	90
1.1.4.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지침	91
1.2. 근대건축물 수리 사례	92
1.2.1. 인천우체국(석공사)	92
1.2.2. 한국은행본관(지붕공사)	95
1.2.3. 구)러시아공사관(미장공사)	102

1.3. 계획의 기본방향	106
1.3.1. 문화유산 기본원칙	106
1.3.2. 유적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10
1.3.3. (구)인천우체국 문화유산정비 세부구상	112
2. 기본개념	
2.1. 정비목적	113
2.2. 원형정의	113
2.2.1. (구)인천우체국 원형 정의	113
2.2.2. 사진 및 도면자료 분석	114
2.2.3. 기존 보고서	116
2.3. 보존기준	117
2.3.1. 보존기준 설정	117
2.3.2. 보존 방식 구분	117
3. 정비계획 상세	
3.1. 건축 요소별 정비 상세	119
3.1.1. 배치	119
3.1.2. 입면	120
3.1.3. 평면, 구조, 내부마감	121
3.1.4. 창호	122
3.2. 연구계획	124
3.2.1. 문화유산 가치 고증 연구	124
3.2.2. 건축 구조, 재료 및 시공연구	124
3.2.3. 유지관리 방안 연구	124
3.3. 건축구조안정화 및 활용을 위한 보존 정비	124
3.3.1. 정밀실측	124
3.3.2. 복원정비 계획설계	124
3.3.3. 활용 콘텐츠 제작	125
3.4. 유지관리	125
3.4.1. 긴급보수 및 복원정비	125
3.4.2. 모니터링	125
3.4.3. 일상정비	125

제IV장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1.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개요

1.1. (구)인천우체국 활용 가치	129
1.2. (구)인천우체국 건축개요	130
1.3.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131

2.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2.1. 1안 : 우정통신박물관	133
2.1.1. (구)인천우체국의 역사성	133
2.1.2. 우정통신박물관 사례 조사	137
2.1.3. 활용 방안	145
2.2. 2안 : 미술관	157
2.2.1. 미술관 사례 및 현황 조사	157
2.2.2. 활용 방안	159
2.3. 3안 : 주민 편의 복합 문화 시설	162
2.3.1. 주민 편의 시설 현황 조사	162
2.3.2. 활용 방안	163
2.4. 4안 : 인천 문화유산 실감 체험 시설	166
2.4.1. 실감 체험 시설 사례 조사	166
2.4.2. 활용 방안	174

3. 보존 활용 방안 검토

3.1. 복원 정비 계획	179
3.2.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180
3.2.1. (구)인천우체국과 제물포 르네상스의 연계	180
3.2.2. 인천광역시 관광지수 분석	182
3.2.3.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185
3.3.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결과	188
3.3.1. 우정통신박물관 활용 계획 및 원형복원	188
3.3.2. (구)인천우체국 현황 및 복원안 조감도	190
3.2.3. 민간협력 방안	192

제 V장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1.1. 기본방향	195
1.1.1.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최우선하는 정비계획	195
1.1.2. 현실적인 사업추진계획 제시	195
1.1.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확보	195
1.2. 사업추진전략	196
1.2.1. 사업구분	196
1.2.2. 연도별 사업 계획표	197
1.3. 사업추진 시 필요 요소	198
1.3.1. 행정체계	198
1.3.2. 소요예산	198

2. 건축공사(리모델링) 추진 방향

2.1. 건축공사(리모델링) 방법 검토	199
2.1.1. 안전진단·점검 진행 경과	199
2.1.2. 안전진단 결과	206
2.1.3. 조적벽체 보수·보강 방법	208
2.2. 건축공사(리모델링) 세부 추진 방법 및 절차	210
2.2.1. 구조 안전점검	210
2.2.2. 건축(리모델링) 공사	210

3. 사업투자계획

3.1. 사업별 투자	211
3.2. 연차별 사업계획	211

4.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4.1. 경제적 타당성	213
4.1.1. 분석기법	213
4.2. 경제적 분석	214
4.2.1. 비용 추정	214
4.2.2. 편익 추정	216
4.2.3. 경제성 평가	217
4.2.4. 분석 결과	220
4.3. 기대효과 분석	221
4.3.1.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221
4.3.2. 사회 및 문화적 파급효과 추정	222

부 록

1. 자문의견서 225

2. 국가유산 지정 관련

2.1. 문화유산보호구역	233
2.2. 현상변경 허용기준	234
2.3. 건축물대장	235

3. 기존 안전진단 요약

3.1. 구조물정밀안전진단(2002년)	239
3.2. 구조정밀안전진단(2020년)	242
3.3. 정기안전점검(2023년)	247

I 과업개요

1. 과업개요
2. 과업 관계자
3. 과업내용
4. 보고회 및 자문의견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2. 과업대상

- 문화유산명 : (구)인천우체국
- 지 정 별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 1982년 3월 2일)
- 분 류 : 유적건조물 / 교통통신 / 근대교통·통신시설 / 우정
- 수 량 : 1동 2층 / 연면적 2,152.4㎡
- 대 지 면 적 : 1,850.7㎡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83 (항동6가, 중동우체국)
- 시 대 : 1923년
- 소유자(소유단체) : 인천광역시청
- 관리자(관리단체) : 인천광역시청 문화유산과

1.3. 과업목적

- 관광자원화
 - (구)인천우체국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수립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도모
- 역사문화관광플랫폼 구축
 - 중구 개항장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총괄하고 각 자원간 상호 활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역사문화관광플랫폼 역할 부여
- 내항 교두보 역할 추진
 - 1-8부두 개발 배후 지역으로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와 1-8부두와의 접점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두 지역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가치 재조명 및 보존 추진
 - (구)인천우체국은 근대 개항기 인천 및 우리나라의 우편제도에 대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취득을 계기로 (구)인천우체국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보존 추진

1. 과업 개요

2. 과업 관계자

2.1. 발주 및 감독기관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유정복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장	최정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유산정책팀장	김진석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유산정책팀 주무관	한규복

2.2.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	손장원 (인천시립박물관장)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일 (중앙대 미대 교수)
	정일섭 (인하대 교수)
	조오상 (인천광역시 홍보기획담당관실 정책홍보팀장)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
	홍인희 (인천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장)

2.3. 용역수행

(주)아띠플랜	
총괄 책임자	양현우
현황 조사	김진범, 박진수, 이영수, 문정심, 양진우, 송진석, 이태호, 신은지, 곽순재, 정건우
연혁 조사	김진범, 이영수, 문정심
사진 촬영	김진범, 박진수, 이영수, 이태호, 박종수
보존 방안	양현우, 김진범, 박진수, 이영수
활용 방안	양현우, 김진범, 박진수, 문정심
사업 계획	양현우, 김진범, 박진수, 문정심
보고서작성	김진범, 이영수, 문정심

3. 과업내용

3.1.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현재 (활용을 위한 미래시점 포함)
 - 기준연도 :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며, 가능한 최근 자료 사용
- 공간적 범위 : (구)인천우체국
 - 위치 : 중구 한동6가 1(제물량로 183) (구)인천우체국
 - 시설규모 : 토지 1,850.7㎡(560평), 건물 연면적 2,152.4㎡(2개동)
- 내용적 범위
 - 유사사례 분석, 시사점 및 적용방안 도출
 - 시민의견 등 수렴,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제시
 - 민관협력 방안 제시
 - (구)인천우체국 건축 공사(리모델링) 방법 제시
 -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 협의 및 타당성 분석

3.2. 과업내용

- 유사사례 분석, 시사점 및 적용방안 도출
 - 국내 및 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및 고려사항 도출
 - 사례에 근거한 인천시 우체국 활용 적용방안(차별화 방안) 제시
- 시민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보존 및 활용 방안 의견 조사 및 토론회 개최
 -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실행방안 제시
 -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수립에 대한 시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 및 설명회 개최
 - 민·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구)인천우체국 보존 및 활용 방안 제시
 - (구)인천우체국의 기본 개념과 역할(기능), 명칭, 방향, 성격 등 제시
 - (구)인천우체국의 구체적 활용 및 실행방안 제시
 - ▶ 주변 자원과 연계한 활용 방안 제시

I. 과업 개요

- ▶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관람객 유치 방안) 제시
- ▶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활용 방안 제시 등
(1-8부두와 개항장문화지구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 등)
- ▶ (구)인천우체국 공간배치계획 제시(운영을 위한 창고, 사무실 등 포함)
- (구)인천우체국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유산센터)의 (구)인천우체국 아카이브 작업과 연계 (T/F 등 운영 방안 제시)
- 민간협력 방안 제시
 - 민간기업 협력 및 참여 사례조사, 착안점 도출
 - CSR, 인천우체국의 가치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 방안 마련
 - 관련 기업, 기관 등과의 직접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실행방안 제시
- (구)인천우체국 건축 공사(리모델링) 방법 제시
 - 보존·보수·보강(목표 : B등급) 및 활용을 위한 건축 공사(리모델링) 방법
 - 건축공사(리모델링)를 위한 세부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 연차별, 항목별 사업비 산출 등
-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 협의
 - 문화유산위원회 사전 협의를 위한 제반 서류 작성
 - 문화유산위원회 사전 협의(심의) 추진
 - 문화유산위원회 사전 협의(심의) 시 제시된 의견 반영 등
- 타당성 분석
 - (구)인천우체국 시설 이용(활용) 수요 추정
 - 사업 타당성 분석(사업 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 분석 및 종합평가) 및 근거제시
 - (구)인천우체국 운영 수지 및 편익 분석
 - 사업비 추정 (초기투자비, 개관 후 시설 유지 및 운영비 추정<인건비 포함>)
 - 기대효과 분석
 - ▶ 문화유산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운영 효과
 - ▶ 기타 (구)인천우체국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구)인천우체국 운영상 문제점 및 대안(향후 과제) 제시

4. 보고회 및 자문의견

4.1. 착수보고

날 짜	2023년 07월 12일	장 소	인천광역시청 별관 회의실
주요내용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수행 계획 보고		
내 용			

1. 과업 개요
2. 과업 추진계획
3. 과업 일정 및 검토계획
4. 주요기술협약내용



그림 1-1. 착수보고 1



그림 1-2. 착수보고 2

4.2. 중간보고

날 짜	2023년 10월 30일	장 소	인천광역시청 별관 문화유산과 회의실
주요내용	(구)인천우체국의 현황, 보존정비계획 및 문화유산 활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 용			

1. 기초자료 조사, 건축물 현황 조사
2. 현황에 따른 정비계획
3. 문화유산 활용 계획 4개 안 (사례 제시, 전시실 구성안, 전시 기획안)
 - 3-1. 1안 우정통신박물관
 - 3-2. 2안 미술관
 - 3-3. 3안 주민편의 복합문화시설
 - 3-4. 4안 인천문화유산 실감체험시설

4.3. 자문회의

날 짜	2024년 2월 6일	장 소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기획전시실
주요내용	(구)인천우체국의 보존정비계획 및 문화유산 활용 계획안 검토		
내 용			
1. 문화유산보존 범위 설정 : 문화유산 정비계획 검토 2. 보존, 정비 유의사항 3. 활용 방향성 : 활용 계획 4개 안 검토 4. 활용 제안에 있어 강화·보완 요소 : 활용 계획안 적용 검토 5. 지적분할에 따른 향후 행정 협의 필요			
자문의견요약			
손장원	1. 대지와 주변 환경 고찰과 활성화 계획과 연계 2.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일대를 축지(築地)라고 통칭했음- 인천 수족관 터 : 경성일보사 안에 주거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인천 수족관을 두어 운영, 45일간 당시 인천부민의 2배가량의 관람객이 다녀감		
	3. 우체국 ↔ 부두길(1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인천 부두는 수도권 거주민이 외국을 오가는 터미널로 사용, 이 길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인근의 세관 공원, 세관 박물관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의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이 길의 역사적 가치를 알려야 함		
	4. 어떤 활용안을 선택하든 카페로 유치하는 방안은 자제해야 함, 인근 상권의 카페들이 지속해서 폐업하고 있음		
윤인석	1. 인천 개항지구 내에 다른 문화유산과 문화시설의 분포와 용도, 기능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토대로 활용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함 2. 앞의 현황 조사된 시설들과 연계한 용도와 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3. 야간에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늘 생동감을 유지하는 시설로 활용 4. 어느 활용안이든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사향을 설명, 전시하는 공간 마련해야 함 5. 보수공사 완료 후 보고서에 사진뿐 아니라 각 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까지 수록되도록 지침서를 꾸릴 필요가 있음 6. 실감 체험시설의 경우 지원 설비 기기의 하중을 고려한 구조보강 계획 추가가 필요함 7. 인근 부두와 세관, 세관 역사, 도로 건너 근대공간과의 연계 계획 수립 필요 8. 국내외 유사사례 수집과 조사 분석하여 본 사업에 참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조사 필요		
이규철	1.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필요 2. 활용 4개 안에 대한 선정 의도와 최적 용도 선정을 위한 타당성에 관한 기술 필요 3. 우체국 관련 시설로 활용한다면 우체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		
정용일	1. 인천우체국의 근대성에 초점 2. 인근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유입을 고려하여 결정,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해야 함 3. 우정통신박물관을 주로 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관 : 근대미술 교류전 위주의 전시 가능한 문학(근대) 행사, 전시- 무대 : 근대의 다양한 음악 가능한 시설, 5인 이내 소연극 가능 무대, 유량 극단- 1층 :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소무대, 야외무대- 2층 : 우정박물관, 미술관- 우정박물관의 자료를 교차 전시하여 지속적인 관람객과 시민들의 관심 유도		
정일섭	1. 제시된 4개의 활용 방안 중 어느 하나의 방안을 중심으로 다른 방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검토 2. 인천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사례를 비중 있게 검토 3. 활용 방안의 결정에 주변 지역 주민회 및 인천 일반 시민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문의견요약	
조오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개의 제안 사항 중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안은 보이지 않음 2. 인천우체국 하나 리모델링한다고 주변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음. 3. 인천우체국 활용으로 무엇을 하든 주차장이 문제가 될 것,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천 우체국 뒤쪽 유니클로 매장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4. 내부 리모델링이 총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5. 생각을 전환, 외국은 대규모 스타벅스로 활용,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킨 사례가 있음
조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 지역의 사회사적, 문화사적 배경과 의의를 고려할 때 ‘한국우정통신사’ 박물관 설립이 타당 2. 기타 활용안은 개항장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시설들과 기능이 중복됨 3. 미술관 활용 방안은 기존 뮤지엄 파크에 수용 가능, 인천 문화재단의 전시실, 아트플랫폼 기능과 중첩 4. 인천만이 할 수 있는 활용안은 우편, 전화, 전보, 무선통신, CDMA 분할 통신 등이 최초인 우정사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봄.
홍인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지역 및 해외 우체국, 근대건축물 우수 활용사례 확인 2. 박물관, 미술관 안의 경우 처음부터 설계하면 전시실과 수장고의 동선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전시 교체와 특별전을 해야 방문객을 유지할 수 있음 3. 인천시 소유의 건물이니 중구 구민 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목표 설정 4. 복합문화공간 ‘소통’을 만들어 활용안의 각 요소를 다 담아 구성하는 것도 검토 5. 스타벅스 및 대형 카페 가능성도 검토 6. 국내 우정·우편 박물관의 전시 상태·내용을 조사하여 인천만의 차별성 검토



그림 1-3. 자문회의의 1



그림 1-4. 자문회의의 2

4.4.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날 짜	2024년 2월 26일	장 소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기획전시실
주요내용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사업 사전 협의		
내 용			
1. 자문의견을 검토하여 적용한 보존정비 방안, 활용 계획안 2. 현상 변경 계획 : 인천우체국 원형 복원 3. 건축물 현황 및 원형 복원에 관한 자료 4. 인천의 관광객 현황 파악 및 추후 복원, 구조안전진단 계획 5. 활용 계획 4개 안 : 사례 및 인천 내 현황 6. 활용 계획안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활용 계획 선정 : 우정통신박물관 활용안 및 건축물 원형 복원			

I. 과업 개요



그림 1-5.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회의 1



그림 1-6.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회의 2

4.5. 주민설명회

날 짜	2024년 4월 23일	장 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주요내용	(구)인천우체국의 현황 및 가치, 보존 및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의견 수렴		
내 용			

1. (구)인천우체국 현황
2. (구)인천우체국의 역사성, 의미, 기능, 가치 설명
3. 보존 방안 및 활용 방안(우정통신박물관) 설명
4. 시민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주요 시민 의견

1. 개인 소장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음.
2. (구)인천우체국의 특별함이 콘텐츠 개발에 반영되면 좋겠음.
3. 우정통신박물관 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안이 고려되면 좋겠음.
4. 박물관으로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로서 좋음.
5.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콘텐츠 제작하면 좋겠음.
6. 사업 진행 과정을 기록하면 좋겠음.



그림 1-7. 주민설명회 장소



그림 1-8. 주민설명회 회의실



그림 1-9. 주민설명회 전경 1



그림 1-10. 주민설명회 전경 2



그림 1-11. 주민설명회 전경 3



그림 1-12. 주민설명회 전경 4

4.6. 최종 보고

날 짜	2024년 7월 4일	장 소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H동 2층 다목적실
주요내용	(구)인천우체국의 보존정비계획 및 활용 방안 결과		
내 용			
1. (구)인천우체국 보존정비계획 결과			
2. (구)인천우체국 활용 계획 결과			
3. (구)인천우체국 향후 사업 계획			

I. 과업 개요



그림 1-13. 최종보고 1



그림 1-14. 최종보고 2



그림 1-15. 최종보고 3



그림 1-16. 최종보고 4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1. 일반환경
2. 선행 조사 및 연구
3. 건축 현황 조사
4. (구)인천우체국 원형분석

1. 일반환경

- (구)인천우체국은 단일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어 중구의 인문사회환경과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중구의 인문사회환경과 역사문화환경을 우선 살펴보고 건축물의 연혁(기록화 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을 확인하였다.



그림 2-1. (구)인천우체국 전경(2023년 촬영)

1.1. 인문사회환경¹⁾

- (구)인천우체국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다.
- 1945년 8·15광복 후 1949년 8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천부가 인천시가 되고, 이후 1962년 5월에는 시 조례에 따라 중부출장소가 생겼다. 그리고 1968년 1월 1일 법률 제1919호에 의해 동구, 남구, 북구와 함께 중구가 탄생하였다. 이때 북부출장소 관할이었던 송월동이 중구에 편입되었으며, 1973년 7월에는 동구에 속해 있던 월미도가 중구로 들어왔다.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고, 1989년에는 경기도 용진군에 있던 영종도와 용유도가 편입되어 영종동과 용유동이 되었다. 2001년 3월에는 영종도에 신공항이 개항되었다. 영종도와 용유도는 본래 인천부 영종면과 용유면이었는데,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부천군에서 용진군으로 편입되었던 지역이다. 중구는 그 뒤 1995년 3월 1일 법률 제

1)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참조 (www.icjg.go.kr)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4789호에 따라 인천시가 광역시로 개칭되면서 인천광역시 중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동 1가 9번지에 있는 구청 청사는 원래 인천시청 청사가 있던 곳이다.



그림 2-2. (구)인천우체국 위치도

- 중구는 1883년 개항 이래 항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인천의 어느 지역 보다 일찍 도시의 면모와 기능을 갖추게 됨에 따라 도시개발의 방향을 낡은 상수도의 정비·확충 및 도로망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중구는 주요기관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상주인구는 12만 명이나, 야간 경제활동 인구는 약 50여만 명에 이른다. 동양 최대의 갑문 시설을 갖춘 인천항은 우리나라 해운항만의 전진기지이며, 서해 7개 도시의 연결지인 동시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요새지이다.

- 중구의 남쪽 지역은 항동, 신흥동 지역으로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과 같은 항만시설이 발달하여 있고 서쪽 지역은 바다 건너 인천 국제공항과 그 배후시설이 발달한 영종도의 운서동, 중산동이 위치한다. 북쪽 방향은 서울지하철 1호선을 경계로 인천시 동구와 면해있는데 송월동, 전동이 자리한다. 동쪽은 도원동과 인하대병원이 자리하며 구계는 인천시 남구와 면해있다.

1.2. 역사문화환경

1.2.1. 인천광역시 중구 연혁²⁾

표 2-1. 인천광역시 중구 연혁

시 기	개 요
고대	백제시대 미추홀이라 칭한 것이 시초임
1018	고려 현종 9년 수주군으로 개칭
1096	고려 숙종 때 인주로 개편
1390	고려 공양왕 때 경원부로 개편
1392	조선 태조 원년 인주로 환원
1413	조선 태종 13년 인천군으로 개편
1460	조선 세조 때 인천도호부로 승격
1910	조선 융희 4년 인천부 설치
1945. 8. 15	미 군정하에서 인천부를 인천시로 개칭
1956. 11. 23	인천 시 조례 제144호에 의거 인천시 중부출장소 설치
1968. 1. 1	인천시 중구 개칭
1973. 7. 1	동구 월미도를 중구로 편입
1977. 5. 10	내경동, 인현동, 신포동 설치 (10개 동)
1983. 11. 26	신흥1동을 신흥동으로, 신흥2동을 신선동으로 명칭 변경
1985. 11. 15	연안동 신설 (11개 동)
1988. 5. 1	자치구로 승격
1989. 1. 1	경기도 영종면, 용유면 중구로 편입하여 영종동, 용유동 설치 (13개 동)
1998. 10. 10	행정동 통폐합 (10개 동)
2012. 1. 1	운서동 신설 (11개 동)
2018. 1. 1	영종 1동 신설 (12개 동)

1.2.2. 문화유산 현황³⁾

- 국가지정문화유산
 - 인천광역시 중구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은 2건이며, 사적으로 지정된 인천 답동성당, 인천 팔미도 등대가 있다.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2)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연혁 참조 (www.icjg.go.kr)

3)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현황 참조 (www.cha.go.kr) / 2024년 4월 현황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 시지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10기와 무형문화유산 3건, 기념물 3건이 있고, 등록문화유산은 2건이 있다.
- 국가등록유산
 - 국가등록유산은 총 6건이 있다.

표 2-2.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현황

종 목	문화유산명	소재지	지정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 적	인천 답동성당	우현로50번길 2 (답동)	1981.09.25
	인천 팔미도 등대	팔미로 28 (무의동)	2020.09.15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유형 문화 유산	구)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신포로23번길 89	1982.03.02
	인천우체국	제물량로 183 (항동6가, 중동우체국)	1982.03.02
	용궁사	운남로 199-1 (운남동, 용궁사)	1990.11.09
	구)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남로 25	1993.07.06
	구)일본제58은행지점	신포로23번길 69-1	1993.07.06
	홍예문	송학동 2가 20	2002.12.23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신포로23번길 77	2002.12.23
	내동 성공회성당	개항로45번길 21-32 (내동)	2002.12.23
	능인교당 신중탱화	우현로62번길 19 (용동, 능인사)	2009.03.02
	용궁사 수월관음도	운남로 199-1 (운남동, 용궁사)	2016.02.24
무형 문화 유산	대금정악(대풍류·대금)	-	1989.12.28
	단청장	-	2004.04.06
	지화장	-	2013.04.30
기념물	용궁사 느티나무	운남로 199-1 (운남동)	1990.11.09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전동 24번지 외	2002.12.23
	삼목도 선사주거지	운서동 1830-1	2006.09.11
민속	용동 큰우물	인현동 90-13	1996.06.12
등록 문화 유산	송학동 옛 시장관사	-	2021.08.09
	구 미쓰이(三井)물산 인천지점	신포로15번길 64	2022.09.05
문화 유산 자료	남북동 조병수가옥	-	1997.07.14
	능인교당 현왕탱화	-	2009.03.02
	양주성 금속비	구읍로 63 (중산동, 영종역사관) 2층	2019.07.29
	용궁사 신중도	운남로 199-1	2022.12.19
	용궁사 지장시왕도	-	2022.12.19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일
국가 등록 유산	인천 선린동 공화촌	차이나타운로 56-14	2006.04.14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제물량로218번길 3 (해안동1가)	2006.04.14
	구 인천부 청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2006.04.14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자유공원로 58-9 (전동)	2008.10.27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신포로27번길 96-2 (관동1가)	2013.08.29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항동7가 1-47	2013.10.29

1.3. 대상 건축물 연혁

1.3.1. 해안매립과 우편 업무⁴⁾

1) 조계지의 조성

-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개항장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일은 개항장에 자국의 조계를 확보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할 대지를 마련하고, 그들이 교역하는데 필수적인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일이었다. 개항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하기 위한 장소다. 바다를 통해 소통하던 시절에 개항장에서 상품교역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일이었으며, 정보를 주고받는 우체 업무는 필수적인 기능 중 하나였다. 그리고 우체 업무를 위해서 배가 접안 할 수 있는 부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었다.
- 개항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1884년에 조선 정부가 조계지를 원하는 각국과 체결한 인천 제물포의 ‘각국조계장정(各國租界章程)’이 있다.
- 각국 조계장정의 첫 항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인천 제물포의 각국 조계에 경계 표지를 세우며 집터와 길을 닦는 것은 모두 첨부된 지도의 붉은 색 표지에 근거한다. 장정을 정한 뒤 조선 정부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 두 달 안에 현재 각국의 조계 내에 있는 조선 건물을 다 철거하며, 이후에도 조선 인민이 이 조계 내에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

- 이는 조계지를 조성하는 책임이 조선 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계지는 외국인만을 위한 거주와 활동지역이었던 까닭에 조계지 내에 거주하던 조선인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으며, 조계지 안팎으로 이동은 통제되고, 조선인의 조계지 내 건축은 물론 외국인의 조계지 바깥 지역 거주와 건축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 조계지 조선 정부에는 제방을 쌓고 부두를 건설하는 일이 포함되었고, 제방과 부두 설치 공사는 조선 정부의 몫이었다.
- 연해의 제방 및 부두는 모두 조선 정부에서 인부를 파견하여 건설하고 수리한다. 조계 내 각처의 길도 모두 조선 정부에서 정리하며, 조계 내 각 구역의 터는 경매 전에 조선 정부에서 부지를 명확히 구획하여 경계석을 세워놓아야 한다.
- 조계지는 배산임수의 형상으로 조성되었는데 동쪽에 야트막한 구릉이 있고, 전체 대지는 서쪽을 향한 완만한 경사지로 구성되었다. 북서측에는 해망대(海望臺)라 불리는 언덕이 바다를 향해 돌출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조계지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 한편, 조성된 토지의 가치를 4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건축에 사용할 건축재

4)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천우체국 총론』, 안창모, 인천문화재단, p7~8, 15~16, 18.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료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토지의 등급에 따라 벽돌에서 기와, 돌 그리고 철근벽까지 사용이 제한되었는데, 초가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는 도시화를 전제로 고밀도로 경영되는 조계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화재로 인한 피해였기 때문이다.



그림 2-3. 제물포 조계지 평면도(출처 : 조선토목사업지(1937))

2) 해안매립과 축항

- 조계지가 정비되면서 인천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인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은 조선말에서 대한제국기에 조성된 개항장 중 유일하게 서울의 관문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육상교통망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수간만 차이가 10미터에 달하는 인천항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큰 배는 물론 작은 배도 자유롭게 접안할 수 없었다.
- 이로 인해 인천을 통해 접안했던 배는 수속을 마친 후 다시 물길을 이용해 한강변에 조성된 용산개시장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천의 상장에 장애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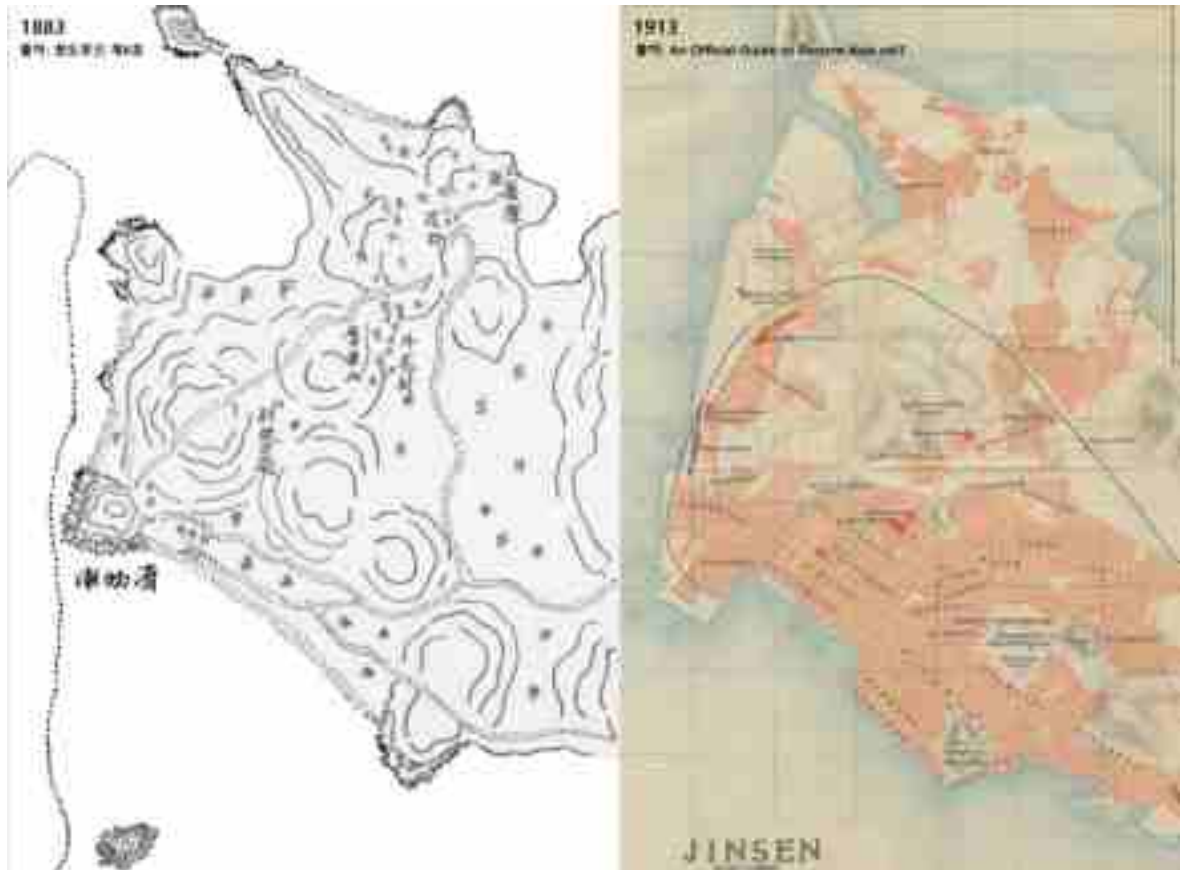


그림 2-4. 개항 당시 제물포 포구의 원지형(좌)과 세관 일대 매립 직후 인천항 모습(우)

- 1900년에 개통된 경인철도도 인천의 도시구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행히 경인 철도의 종착역인 인천역은 해망대의 북측에 위치한 까닭에 해망대 주변에 조성된 부두와 세계의 기존 틀을 흔들지 않았기에 도시공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 인천항이 개항 후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두와 잔교로는 물류를 소화해내는 것이 힘들었다. 특히 1900년에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급증하는 화물 처리를 위해 부두의 확장이 필요했고, 확장된 부두로 화물열차를 연결하기 위해 해망대의 남서측을 매립하여 인천역에서 멈춘 철도를 부두까지 연장했다.
-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 해 경부철도가 건설되었으며, 1910년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피탈되면서 일본과 가까운 부산의 성장이 더욱 빨라졌다. 부산은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관문의 성격이었고, 대형화물선의 접안이 가능한 부산항과 경부철도를 이용한 물류체계는 인천항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켰다.
- 인천부에서는 약화되는 자신들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축항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인천은 지형적으로 큰 약점이 있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10미터에 달했기에 큰 배는 물론 작은 배도 썰물 때는 부두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는 공사가 실시되었다.
- 인천의 축항은 이중갑문식 도크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외갑문과 내갑문 사이에서 수

위를 조절하기 위함이었다. 갑문공사는 1911년 6월 11일에 시작하여 191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경인철도가 새로 준공된 축항 영역까지 연장되었고, 1937년에는 수인선의 건설과 함께 인천항 역이 건설되었다.

3) 인천과 우체 업무 그리고 우체국

- 개항 초 조계지 내에서 청국과 일본은 자율적으로 우체 업무가 이루어졌다. 조선 정부의 우체 업무는 갑신정변으로 인해 뒤늦게 우체 업무 체제를 구축했으며, 대한제국이 출범한 후 한인지계에 독립적인 우체사를 설치했으나, 1910년 일제강점으로 대한제국의 우체 업무는 해체되고 인천의 우체 업무는 조선총독부 체신국 산하로 개편되었다.
- 1918년 갑문식 도크 건설 이후 재편된 도시의 중심인 현 위치에 인천우체국이 새로 지어졌다. 1922년 12월 1일에 착공한 우체국 신청사는 1923년 12월 10일에 준공되었으며, 공식 개청 행사는 1924년 2월 9일 행해졌다.
- 인천우체국은 매립과 축항이 완료된 후 개설된 현 신포로와 제물량로의 교차점에 있었고, 인천우체국의 입지는 건물의 배치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조적조 건축임에도 석조건축의 외관을 갖춘 디자인으로 지어진 것은 일제강점 초에 조선총독부가 선호했던 서양식 역사주의 건축양식을 따른 것이다.
- 일반적으로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물에서는 건물의 모서리에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주의 건축양식을 가진 인천우체국이 모서리에 출입구를 설치한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ㄷ’자 형태의 평면구성을 갖고 있는 우체국에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동선을 최대한 줄여서 기능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매립지에 형성된 업무 중심지구의 2개의 주 간선도로가 만나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모서리를 둥글고 높게 처리하여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우체국의 존재감을 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모서리의 처리는 제물량 길에서 중심가로를 향해 비스듬하게 진입하며 느껴지는 인천우체국의 존재감을 크게 하고 있다.

1.3.2. 인천 내항 일대 환경⁵⁾

1) 경술국치 이전 인천 해안 매립

- 현재 인천우체국이 있는 항동 일대는 원래는 바다였던 곳을 매립한 매립지이다. 인천 해안의 매립사업은 개항 이후 얼마 되지 않은 1889년부터 일본인들이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매립사업계획은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한국근대문학관 등의 창고 군이 늘어서 있는 해안정 일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조계의 확장을 위한 것

5)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과 개항장의 도시환경』, 이연경, 인천문화재단, p82~91.

이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와의 의견 대립, 각국 공사의 반대, 청일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해안 매립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1898년 8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매립지역은 1893년 작성된 《인천항일본거류지창탄전등지도》에서 의창탄(擬填漲灘)이라 쓰여 있는 가로 258m × 세로 57m의 갯벌 일대였다. 계획은 해안정보다 늦게 되었지만 실제로 먼저 매립이 진행된 곳은 인천역 일대였다. 인천역 일대의 매립은 1897년 3월 이후 경인철도 부설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림 2-5. 인천항일본거류지창탄전등지도(출처 : 규25320, 1893)

- 해안정 매립 이후에는 한국전축회사와 대한매축회사에 의한 탁포 일대 및 화개동 매립 공사가 계획되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대한매축회사와 일본인들이 설립한 한국전축회사는 이 일대의 매립을 두고 대립하였는데, 을사조약 이후 결국 일본인들에 의해 매립되었다. ‘탁포 일대 매립계획도(출처 : 인천항매축공사관계문서, 규장각 규26082)’는 당시 진행된 매립계획도로, 해관에서 공원까지 이어지는 해안의 매립지구획 및 면적, 매립 결정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계획도에 따르면 인천항 매립공사를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상의 제1기 공사지역은 지도가 작성되기 전 이미 매립공사에 착수한 지역으로 현재의 답동 소공원 남서측 사동 일대이며, 1908년 제작된 《인천항평면도》에서는 사동 및 신생동 일대의 매립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그림 2-6. 인천항평면도(출처 : 조선총독부 철도국, 1908)



그림 2-7. 인천항시가도(출처 : 最新朝鮮分道地圖, 1911)

- 1906년에는 세관 앞바다의 매립 공사가 계획되었다. 영국영사관 및 세관이 위치한 언덕 아래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러일전쟁 이후 일반상선이 증가하자 수립된 1906년 6개년 계획 중 인천항 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인천세관구역확장계획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관 앞바다 약 18,000평을 매립한 이후, 세관을 확장하였고, 인천역에서 경인선 철로를 연장하였으며, 6개의 잔교를 설치하였다. 1908년 6월부터 1909년 10월까지의 해안정 3, 4정목(현재의 해안동 3, 4가)의 매립이 시행되었다. 《인천항시가도》에서는 세관 앞 항구 매립과 해안정 3, 4정목의 매립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축항과 항동 일대 매립

- 개항장 설정 이후 인천 해관에서는 배가 닿을 수 있는 부두 축조를 서둘렀다. 1883년 상하이에서 초빙되어 온 러시아인 토목기사 베코프스키(V.S.Bekofsky)와 승감원이었던 사바틴(A.S.Sabatin) 등이 축조한 부두는 현재 인천중부경찰서 부근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토사가 많이 침전되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간조 시에는 작은 증기선이 오가는 것조차 어려워 무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부선(1905)과 경의선(1906) 개통 및 1·2차 부산항 매축공사(1905, 1909)로 인해 부산이 인천을 제치고 물동량과 무역액에서 조선 제일의 항구로 부상하자 일본 거류민을 중심으로 대형선박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축항공사를 요청하는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 일본인 거류민들은 1906년 축항 기성회를 조직하고 1909년 축항기성대회를 여는 등 축항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식민지 개발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1911년 6월 11일 기공식과 함께 10미터가 넘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중갑문 구조의 인천항 축항 공사를 개시하였다. 인천 축항은 조수 간만 차를 없애기 위해 외갑문과 내갑문 사이 중간 도크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인 이중갑문식 도크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동양 최초이자 유일의 이중식 갑문 도크였다. 1911년 6월 11일 인천신사에서 축항 기공식이 화려하게 열리며 시작된 공사는 1918년 10월 동서 길이 454m, 남북 길이 218m의 직사각형 형태의 선거를 완공하며 8년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인천항계획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1906년 이후 축항을 시작한 세관 앞 항구 일대이고, 분홍색 영역은 1911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 현재의 제 1부두 일대이다. 분홍색 및 초록색 영역은 모두 매립지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1899년 이후 1918년까지 차례로 매립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1918년 제작된 《인천시가도》에서는 축항이 마무리된 인천 개항장 일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인천항 계획도(출처 : 仁川稅關 編, 仁川港案内, 1921)

- 축항 이전에는 큰 증기선이 해안까지 접근할 수 없었기에, 인부들이 인천항 외곽에 정박한 배에서 짐을 내려 작은 배로 실어 와야만 했다. 이같은 사업을 조운업이라 하였는데, 1880년대 설립된 조운업 회사인 야마토구미(대화조(大和組)) 및 고오리(군회조점(郡廻漕店)) 건물이 여전히 개항장 일대에는 남아 있어 당시 번성했던 조운업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축항 이후에는 이중갑문을 통해 조수간만의 차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선박들이 항구로 입항 가능하였다.
- 축항 이후인 1926년에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관장하는 인천 세관이 기존의 부두가 있던 현재의 올림포스 호텔 주변에서 축항 이후인 1926년 만들어진 해안통 거리로 옮겨 왔다. 현재 세관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된 일대에는 1919년 인천세관의 선거계 사무실과 화물계 사무실이 신축되었으며, 1911년 원래의 항구에 신축되었던 창고는 1926년 세관 청사의 신축 이전과 함께 이전하였다. 창고의 원위치는 현재의 수인선 지하출입구 부근이었으나, 2012년 현재의 위치로 이축하였다.
- 새롭게 만들어진 매립지인 향동 일대에는 인천우편국(1923년), 오사카상선 인천지점(1924년), 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1920년), 인천곡물협회(1922년) 등이 이전해왔다. 1909년경 매립된 해안동 3, 4가 일대에는 1910년 건립된 미두취인소를 비롯하여 조

선식산은행 인천지점(1925년), 일선해운주식회사(1932년) 등이 위치하여 내항 일대에 운송 및 금융 관련 회사들이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인천우편국, 세관 창고 및 사무실, 일선해운주식회사 건물은 현재도 남아 192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내항 일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림 2-9 항공사진에서는 인천우편국 및 오사카상선 인천지점, 인천세관의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2-9. 하늘에서 본 인천시가(출처 : 조선매일신보(朝鮮毎日新聞) 1930년 5월 8일 기사)

1.3.3. 건축물 연혁6)

1) 인천우체국 역사의 전개 과정

(1) 인천우체국 역사의 전개 과정

- 『인천부사』에 따르면 매우 단편적으로 인천우체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정부에 우편총사 및 전보총사가 있어, 1895년 6월, 인천에 1등우편사 및 전보사가 개설되고, 1905년 5월까지 계속되었는데, 같은 해에 양국 통신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 정부의 소관이 되어버려 합병 통일되었다. 현재 내리 113번지에 있었다. 검은 벽돌 2층 건물이었는데 건물은 인천우편국 소유로서 현재도 같은 곳에 남아 있다.”
- 『인천부사』에서는 인천우체국의 역사를 기술할 때 일본국 인천우편국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 인천우편국이 대한제국 인천우체사와 병합되어 인천

6)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근대전환기 우체국의 역사와 인천우체국의 변화 과정』, 박범, 인천문화재단, p33~51.

우체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인천우체사에 대해서도 소략하기는 하지만 설명하고 있다.

- 『인천부사』에는 중요 정보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초기 인천우체사의 위치이다. “1895년 6월, 조선 정부는 우편국을 개설했다. 이를 우체사라 칭했는데, 그 건물은 현재 외리 226번지에 소재한 이동준 씨 댁이 그곳이다. 1898년 현재 인천우편국 소유로 되어있는 내리 113번지는 큰 도로에 면접해 있는 시가지의 분위기와 다른 오래된 면모를 갖춘 집으로 이곳에 우체사와 전보사가 옮겨졌다.”는 내용이 있다. 처음에는 외리 226번지에 있었다가 이후 내리 113번지로 이전한 것이다.
- 『인천부사』에는 인천우체사에 대한 평가도 있다. “그때의 국장은 김창한 씨 외에 주사 2명과 몇 사람의 체송집배인이 있었다. 매일 취급되는 우편물은 근근이 50~60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주된 원인으로 우편 이용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00년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도 아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체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조선 내 다른 일본인 거류지로의 우편 수송에 대해서는 사립 단체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

(2) 일본국 인천우편국의 건립과 운영

- 인천에 있는 일본국 인천우편국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인천부사』에 다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천우편국의 시작은 1882년 11월 영사의 우편 사무 취급에서 시작되었다. 즉, 거류민이 거의 없는 당시에는 우편물 같은 것도 단지 여러 통의 공용문서가 있을 뿐으로 특별히 우편국 설치의 필요가 없었다. 1882년 11월, 재인천 일본영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는 “인천항 주재의 총영사 또는 영사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그 의도와 취지를 인지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내린 조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부산, 원산 및 인천항 주재의 총영사 또는 영사는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그 의도와 취지를 인지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일본영사관이 우편 사무를 대신 취급하고 있었다.
- 1882년은 인천 개항의 전년도에 해당하는데 인천에서는 이미 개항에 앞서서 영사관을 설치할 준비를 위해 경성의 공사관에서 관원이 파견되어 영사가 임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개항에 앞서서 일본인의 조선 입항자와 거주자가 수명에 불과했고, 영사관원을 합쳐도 극소수였기 때문에 공문서 외에 보통의 우편물의 숫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히 우편국을 설치하여 사무원을 고용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다음 해 1883년에 이르러 개항이 되면서 서서히 거류민이 증가

하고 그 숫자가 300명이나 되었으며 조일무역 역시 점차 빈번해지면서 우편물의 수량도 증폭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 12월에 영사관 내에 우편 사무를 개시하도록 공포하고 다음 해 1884년 처음으로 우편국을 설치했다. 당시 우편국 건물로서는 영사관 내의 관사 제9호가 충당되었고, 구수삼랑(久水三郎)이 그 직을 담당했다.

- 그 후 우편 사무의 급증과 함께 우편국 건물이 협소하게 되어 다시 확장되었다. 그와 함께 1887년 5월에는 전임국장을 임명했다. 국장은 당시 인천 영사관에 서기로 근무하던 구수삼랑(久水三郎)이었다. 우편국은 영사관 구내의 관사 제9호 동을 사용하였는데, 협소해서 인근 제10호를 합쳐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청사는 1896년에 신축되었고, 1924년 현재의 속사로 옮겨지기까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 위치는 부청사 구내 차고였다.



그림 2-10. 영사관 구내에서 우편 사무를 보던 당시의 약도(출처 : 『인천부사』 1933, 232쪽.)

- 그 후 1896년 12월 3일, 비교적 넓은 우편국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현재 부청사 구내 동남쪽 원금(原金) 여관(현재 사츠마야여관)에 인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사무가 현저하게 바빠져 우체국 건물 또한 너무 비좁게 느껴졌기 때문에 1923년 신축 이전했다. 현재 우편국 건물이 그것인데, 근세 부흥식 2층 건물로 인천 유수의 건물이다. (구 우편국 건물 본관은 현재 우편국 건물 구내 한구석으로 이전 축조되어 현존하고 있다.)

- 『인천부사』에는 이 시기 인천 지역과 연결된 전신선 개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일본이 주도하여 만든 전신이 인천을 경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국이 개설한 전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1885년 11월, 경성과 인천 간, 경성과 의주 간에 전신선이 가설되었다. 이것은 청국 정부의 출자 경영에 의한 것으로 통신설비가 거의 없었던 당시로서는 재류 일본인이라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해당 전신은 인천을 출발하여 경성, 의주, 천진, 상해를 경유하여 나가사키에 도달, 일본의 전신선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비교적 장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전보료도 비싸 거류상민 등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듯하다.
-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전신을 이용하여 경인 간 전신을 개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인 주도의 전신선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인천에 통신이 개통된 것은 청국 전신을 이용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 인천의 일본인 거류지에 전화가 개설되었다. 당시 전화 가설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간행한 『조선통신사업연혁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전화 개설은 1902년 6월이 처음이었다. 경성 및 인천 각 우편 전신국에 전보교환 사업을 개시한 것과 동시에 경성과 인천 간 전화 통신 사무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항 일본 거류지에는 6월부터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각국 거류지의 전화 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천부사』에 실린 ‘인천항 각국 거류지에 전화 가설에 대한 거류지회와 교섭의 건’에 내용이 있다.
- 인천우편국으로 편성된 이후 업무가 다양하였다. 우편물의 발착은 해상의 선편을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미쓰비시 회사가 조선의 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기선에 탑재할 수 있었다. 그 기선 등은 1893년 11월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 우편선의 1항로를 개설하여 우편물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편의를 돕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 때까지는 정해진 선박이 없었는데 이것조차 12월 이후 3월까지 해방기 동안에는 항해를 중지해야 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공문서만은 군함에 실을 수 있었다. 일본 군함뿐만 아니라 화급을 다투는 일인 경우 외국 군함을 이용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경성에 사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인천의 우편 사무 개시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1888년에 이르러 경성에 인천우편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인천의 우편국은 창립 이래 경성 우편국의 우편 통신물을 취급해 왔으며, 그 수속은 영사 업무와 더불어 우편물이 도착할 때마다 당국에 보고되어 구분되었다. 시외 배달물은 유실될 우려가 있어 호송자가 편승하여 경성 공관에 송부하고 다시 그 해당 지역에 배부하거나 하였다. 한편 경성에 거주하는 내외관민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은 종래 경인 간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불편이 심화되었다. 예를 들면 견본이나 신문지 서류 등의 구별이 혼동되거나 사고 우편물이 발견되는 등 수취인의 잘못으로 배편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구미의 우편으로 오인되어 우편물이 상실되어 그 예방 차원에서 출장소를 경성에 설치하게 되었다.

- 우편배달에 대해서는 육로는 인천과 경성 간 1일 2회이고, 집배는 3회, 드물게 기선이 출입할 때에는 특히 임시로 집배하였는데 정박 중인 함선에 배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 인천과 경성 간의 우편물 운송 방법은 배달 전담원으로 하여금 사무원과 함께 육로로 경성의 공사관에 가서 그곳의 계양대에 우편기를 올리면 거주민은 각자 공사관에 출두하여 각자 자신의 우편물을 수취하게 된다. 경인 간의 수송은 도중에 위험 요소가 많은데 오류동 부근은 더욱 심한 위험 지역이었다. 수차례나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배달 전담원은 장총이나 혹은 일본도를 휴대하고 다녔다. 이는 1899년 경인철도가 계통되기까지 계속되었다. 배달 전담원은 일본인으로 인천에 거주하였다.
- 이처럼 경성에 출장소가 설치되고 한편으로 일본인 이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환전 및 저금 사무를 개시했다. 사무가 복잡해지고 아울러 영문도 능통한 사무원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수삼랑(久水三郎) 인천우편국장은 외무성 통신국 앞으로 우편물 발착 사용료를 미리 정해서 거주민에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매월 금 30원을 체신국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888년 7월에는 전신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다음해인 1889년에는 청사를 신축하고 우편전신국이 되어 1899년에는 외국 환전, 1900년에는 우표와 저금, 소포 업무도 개시했다. 1902년에는 군용통신소와 합병하여 인천우편전신국이라 개칭했다.

2) 인천 우체국의 건립과 이후의 변화⁷⁾

(1) 최초의 인천우체국

- 인천우체국은 1884년 11월 우정총국 인천분국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영사관 내 관사 한 동(제9호)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1896년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였는데, 이 청사가 바로 중정(현재의 관동) 1번지에 있었던 우편국 청사이다. 중정에 위치하였던 우편국 청사는 당시 일본이 건축한 대부분의 관공서 건물이 그러하듯이 의양풍 2층 건물로 건축되었다. 외부는 목재 비늘판으로 마감되었고, 중앙입구는 아치를 사용하였으며, 입구 윗부분에 페디먼트를 올려 중심을 강조하였으나, 화려한 장식없이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 이후에는 통감부 통신관리국 관할에 속하였으며, 우편 업무뿐 아니라 금융 업무까지 처리하였다.

7)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과 개항장 도시 환경』, 이연경, 인천문화재단, p92~97.

(2) 1923년 인천우체국의 신축

- 토지대장의 정보에 따르면, 항동6가 1번지가 매립준공 이후 신규 등록된 것은 1920년 5월 13일이었다. 이후 체신국의 소유가 된 이 땅에는 1922년 12월 1일 인천우편국 청사의 건립이 시작되어 1923년 12월 10일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 연와조 2층 건물인 본관과 단층 건물인 부속사 두 동이 함께 지어졌으며, 두 건물 합쳐 총 건축면적은 410.04평, 총 연면적 598.86평이었다. 매일신보 1923년 12월 9일 기사에는 신축되는 인천우편국이 지하실 포함 연와조 3층 건물이라 전하고 있으나 실제 본관 건물은 연와조 2층 건물로 지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본관의 1층 규모는 268.27평, 2층은 176.32평, 옥탑은 12.5평이었으며 부속사는 141.77평의 규모였다. 난방설비는 저압중력식 열기난방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총공사비는 67,008원 72전이였다. 청사의 설계는 체신국 기사인 오다카 준조(小高淳三)가 담당하였으며, 담임은 기수인 나가노 반(長野萬)이 담당하였다.
- 건물의 설계자인 오다카 준조는 도쿄부 사족 출신으로 1895년 우편전신서기보시험에 합격한 후 1910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체신국 계리과 청사계 기수로 일하였으며, 1922년 1월 7일부터는 토목과 기사를 겸임하였다. 그는 같은 해에 완공된 신의주우편국 역시 설계하였으며 이후에도 총독부 체신과 기사로 근무하다가 1930년 9월 27일 사망하였다. 기수로 참여한 나가노 반은 사치기현 출신의 평민으로 1911년에 도쿄고등공업학교 부설공업교원양성소 건축과에 입학하여 1914년 졸업한 이후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 체신국 계리과 청사계에서 기수로 근무한 사람으로 그 역시 1923년부터는 토목국 기사를 겸임하였다.
- 새 청사 건물은 12월 10일 준공되었으며, 우편국 업무는 1923년 12월 16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낙성식은 2달 후인 1924년 2월 9일 오후 1시에 인천공회당에서 열렸다. 신축 당시 우편국의 건축 관련 내용은 조선체신협회의 기관지인 『조선체신협회잡지(朝鮮遞信協會雜誌)』 1924년 1월호와 조선건축협회의 기관지인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 1924년 4월호에 실려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두 잡지 모두 전경 사진 1장과 함께 공사개요를 싣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위치 및 공사 기간, 면적과 보온설비, 공사비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체신협회지의 경우 설계자와 공사담당자인 체신국 소속 체신기사 오다카 준조(小高淳三)와 체신기수 나가노 반(長野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에서는 건물의 높이와 구조, 재료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축 당시 도면 등의 정보는 두 잡지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당시의 정확한 내부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조선체신협회잡지』와 『조선과건축』 잡지와는 달리, 매일신보 등의 일간지에서는 인천우편국의 준공 소식을 전하면서 인천우편국이 구비한 설비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단선교환기에서 복선교환기로 설비

를 개선하는 것과 정확한 시간을 위해 전기 시계를 설치하였으며, 급설전화도 설치할 예정임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관이 준공됨에 따라 구청사는 그 처분을 두고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국원의 집회소 겸 창고로 신청사 후면으로 이축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3.4. 건립 이후 변화⁸⁾

1) 건립 이후의 변화

- 신축 당시의 도면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변화 과정은 확인이 불가하나, 1923년 당시의 공사개요, 1932년 인천향토지에 실린 인천우체국 관련 통계자료, 그리고 1954년 대수선 이후 작성된 전기설비도면, 1961년 미군 문서에 첨부된 배치도, 그리고 1984년과 2003년 보수공사 당시에 작성된 도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변화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

(1) 1923년 신축~해방 이전까지의 변화

- 먼저 신축 9년 이후인 1932년 발행된 인천향토지 내 인천우체국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면 1923년 공사개요에서 명시되었던 본관 및 부속사 외에도 창고 및 기타 건물을 확인해볼 수 있다. 창고 및 기타라 언급하고 있는 건물은 1924년 4월 신청사 부근에 이축하여 1층은 창고로, 2층은 집회소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1924년 2월 5일 동아일보 기사로 미루어보아 우편국 구청사를 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향토지 내 통계에 따르면, 인천우편국 부지 면적은 1,356.30평, 건물 면적 708.86평으로 본관 면적 444.59평, 부속사 면적 157.52평, 창고 기타 면적은 122.50평이다. 이 내용을 1923년 신축 당시와 비교해보면 전체 건축 면적은 110평 차이가 나는데, 본관 면적은 같으며 부속사 면적도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32년 당시에는 1923년 12월 신축된 본관 및 부속사에 더해 1924년 기존의 구청사를 이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 및 기타가 추가되어 총 건축면적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1961년 4월에 작성된 인천우체국 부지 이전 관련 체신부 장관과 논의를 위한 서신에 첨부된 배치도를 보면 해방 이전 인천우편국 내에는 본관 및 부속사(난방실), 창고를 비롯하여 별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창고 건물이 기존의 구청사인 것으로 가정할 때 ㄱ자형태의 2층 별관 건물이 본관 후면 제물량로에 면하여 건립되어 있음을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과 1961년 4월 작성된 배치도를 통해 해방 이전 인천우편국 부지인 황동 6사 1번지 내에는 1923년 신축된 본관과 부속사, 보일러실, 1924년 이축된 창고, 그리고 1932년~

8)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과 개항장 도시 환경』, 이연경, 인천문화재단, p97~110.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1945년 사이 건축된 별관 건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일제강점기 인천우편국 외관
(주 출입구가 있는 동측과 북측)



그림 2-12. 일제강점기 인천우편국 외관
(동측과 남측 입면)

(2) 해방 이후~1982년까지의 변화

- 해방 이후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1948년 1월 21일의 휘발유 발화로 인한 미군전용우체국 및 서무과 기술과 창고 전소, 1948년 5월 9일 노동당원의 소이탄 투척으로 인한 교환실 교환대 및 시험대 화재, 1949년 4월 24일의 중계실 전기과부하로 인한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수 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화재로 인하여 우편국 내 설비가 전소 피해를 보고 통신 등에 일정 기간 문제가 생기긴 하였으나 건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인천우편국 역시 전쟁의 포화로 인한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945년 9월 8일 촬영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1층 후면부, 즉 ㄷ자형 본관 건물의 중정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아닌 목조지붕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1954년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대수선 공사에서 이 부분이 2층으로 증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수선 공사는 (주)삼부토건이 수행하였으며, 화장실 및 중정부의 2층 증축 및 본동 창문틀 교체, 1층 원형 기둥의 철근콘크리트로의 재료 변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정부의 1층 외벽의 경우 1954년 대수선 공사 당시 신축된 것인지 기존의 벽체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우나 1945년의 사진과 창호 및 후문의 위치는 일치하여 기존의 벽체일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보수·복원 공사 시행 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본관 외 대부분의 건물들은 파괴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관 외 부속동들이 파괴된 자리에는 미군이 사용하면서 쉼터 건물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인천우체국은 본관 건물만 사용하게 되었다. 1961년에는 미군이 사용 중인 부지의 일부를 인천우체국이 반환받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보일러실이 있는 일대를 반환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1972년 작성된 경기도 지방경찰

청 중요시설물 카드에 첨부된 도면에는 미군에서 반환받은 부지 내에 연료창고, 무기고를 비롯하여 물품창고 및 식당, 수위실로 사용되는 건물까지 총 3동이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관 후면의 세 동 중 연료창고 및 무기고는 1961년 배치도에서 표시된 건물들로 부지 반환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 물품창고 및 식당, 숙직실로 사용 중인 ㄱ자형 건물은 1961년 반환 이후 건축된 것으로, 1967년 항공사진에도 촬영되어 있어 1961년~1967년 사이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2003년까지도 사용되었으나 2003년 본관 대수선 공사 시 철거되고 현재의 수위실이 건축되었다. 1972년의 평면도에 나타난 정보로 미루어보아 1972년 이전 1층 후면으로 세면실이 증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3. 해방 직후의 인천우체국 모습

(출처 : 임첩신날점겐(1945.09.08. 촬영),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그림 2-14. 1954년 대수선공사 이후의 인천우체국 모습(출처: 인천 중구청)

- 한편 1962년 인천도시계획의 수립 이후 인천우체국의 북측 도로인 제물량로가 확장되고 인천우체국의 정문 앞으로 신평사거리가 형성되면서 인천우체국의 모서리에 있는 정문의 정면성이 강조되는 결과가 되었다. 1967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신설된 신평사거리와 제물량로와 신평로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여러 번의 화재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이후의 대수선공사 등의 변화를 겪었으나 인천우편국 본관은 외관상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주 출입구 상단에 새겨진 글씨가 인천우편국(仁川郵便局)에서 한글인 인천우체국으로, 하부의 Jinsen Post Office를 대신하여 Incheon Post Office로 변경되었으며, 옥탑 돌출부에 있던 수직 구조물이 철거되었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남측면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후면부의 화장실 증축부가 발견된다.



그림 2-15. 1945년 인천우체국 모습



그림 2-16. 1960년대 인천우체국 모습



그림 2-17. 1952년 인천우체국 모습



그림 2-18. 1972년 당시 인천우체국 남측면



그림 2-19. 1972년 당시 인천우체국

(3) 1982년 국가유산 지정 이후의 변화

- 큰 변화 없이 사용되던 인천우편국은 1982년 3월 2일 문화유산위원회의 권고로 인천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81년 6월 5일 문공부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서울역, 한국은행 등 르네상스 양식 건물 17동을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인천우체국을 비롯한 6동은 지방문화유산 지정을 권유하였는데, 이 권유에 따라 인천우체국은 1982년 3월 2일 인천시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유산 지정 이후 증·개축 등 현상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후 인천우체국은 큰 변형 없이 보존될 수 있었다. 국가유산 지정 이후 있었던 1984년의 보수공사는 국가유산 전문 설계사무실인 삼성건축이 수행하였으며, 지붕 보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1955년의 도면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었으나 1954년~1983년 사이 후면에 세면실이 증축되었고, 내부 칸막이벽의 철거와 신설로 공간 구획이 다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부 공간이나 구조적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 1984년에는 현재의 KT 건물이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에 건축되었으며, 1987년에는 현재의 식당동인 별관이 건축되었다.
- 이후의 변화는 대부분 옥상 공사 및 내부 공사, 전기 및 소방 설비 공사 등으로 내부 공간의 활용에 따른 변화는 다소 있었으나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1983년 도면에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엘리베이터가 2002년 구조안전진단 당시 도면에는 1954년에 증축된 중정부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1983년에서 2002년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우편구분계 바닥에 철제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실의 구획 및 기능 변화 등 주로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1층 후면에 설치되었던 세면실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2003년 대수선 공사

- 국가유산 지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인천우편국에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3년 대수선공사로 인한 것이었다. 2002년 시행한 구조안전정밀진단 이후 외부 벽체 마감 재료의 내구연한 초과 및 내부 구조체의 안정성 저하로 인해 “D”등급을 받음으로 2003년 구조체 보강 및 노후화된 마감재료 등의 교체를 위한 전체적인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 2003년 (주)유성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한 대수선 공사는 구조안전정밀진단에서 제시한 구조보강(보의 강판 보강) 및 외벽 손상부의 보수뿐 아니라 전체 목조 천장틀 철거, 왕대공 지붕틀 및 슬레이트 철거, 지붕 바닥(무근콘크리트) 철거를 비롯하여 전체 창호, 문의 교체, 전체 내부 칸막이벽의 철거 및 신설, 실내마감재료의 교체

등 외형 및 구조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 아치형의 내부 내력벽 개구부들도 이 시기 상당 부분 조적벽체로 메워졌으며, 기존의 내부 마감재료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마감재료를 덮음으로 인하여 전체 내부 공간의 분위기가 변형되었다. 전체적으로 내부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신설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내부 공간 구성 역시 상당히 변화되었다. 내부의 엘리베이터 역시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후문 부근으로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2003년 대수선 공사 당시 후면의 기존 수위실 건물이 철거되고 현재 남아 있는 수위실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별동과의 사이 연결복도도 철거되었다. 별관 역시 전체 창호, 문을 교체하였으며, 천장틀을 철거하고 새로운 천장 마감을 신설하였다. 현재는 철거되고 없는 이론차 주차장 역시 2003년 일부 변경되었다.

표 2-3. 인천우체국 수리 이력

일자	공사내용	세부내용
1923.12.10.	인천우편국 준공	본관 및 부속사
1948.01.21.	미군우편국 및 창고 화재	미군전용우체국 전소 및 서무과 기술과 창고 반소
1948.05.09.	교환실 화재	소이탄 투척으로 인하여 교환실 교환대, 시험대 등을 전소
1949.04.24.	화재	중계실 전기 과부하로 시내 중계석, 착신석 1,2,3,4석까지 발화하여 전소
한국전쟁기	지붕 파손 및 화재	지붕 및 1층 일부 화재
1954	대수선공사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대수선 공사 (삼부토건) 화장실 및 중정부 증축 본동 창문틀 교체, 1층 원형기둥의 철근콘크리트로의 재료 변화
1961	부지 및 시설 반환	미군이 사용 중인 부지 일부 반환
1961~1967	부속동 신축	식당 및 창고, 수위실로 사용 중인 ㄱ자형 부속동 신축
1982.03.02.	국가유산 지정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8호
1983.11.22.	보수공사	지붕 보수공사 (삼성건축)
1984	현 KT빌딩 신축	
1987	별동 신축	식당·강당
1992.08.20.	옥상공사	옥상지붕 개·보수공사
1993.11.08.	내부공사	집배계 바닥 공사
1993.12.18.	옥상공사	옥상 방수공사
1995.07.13.	내부공사	발착실 천장 텍스 설치
1996.07.13.	옥상공사	개·보수공사
1997.08.08.	구조안전진단	(주)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1997.11.18.	내부공사	2공사 및 도색 층 화장실 및 회의실
1997.12.16.	내부공사	현업실 도색공사
1998.08.05.	옥상공사	집중호우시 누수로 인해 옥상 균열 부위 실리콘 도포 작업
1998.08.11.	내부공사	천장 석고 탈락 부위 및 추가탈락 가능 부위 텍스 교체
1998.09.07.	내부공사	노후 및 하중으로 균열 생긴 집배실 복도바닥 목조 보 부위 철제빔 보강공사
1998.09.28.	전기공사	전기누전 예방을 위한 청사 내외부 전선정비
1999.09.01.	소방시설	감지기, 화재발신기 등 소방시설 증설
1999.10.21.	전기공사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에 따라 공중실 전기배선 정리
1999.11.01.	내부공사	국장실 세면대 및 부속실 싱크대설치(배수 포함)
1999.12.01.	내부공사	1,2층 화장실 전면보수
1999.12.28.	내부공사	여직원 휴게실 보수, 집배실 복도장판 교체
2000.09.01.	전기공사	변압기 증설 및 에어컨 전기공사
2001.06.27.	전기공사	영업과 전선 정리
2001.12.23.	옥상공사	옥상 부식된 선홀통 교체
2002.08.~10.	안전진단	구조 정밀안전진단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2003.05.	대수선 공사	(주) 유성 종합건축사사무소

1.3.5. 건축적 특징⁹⁾

1) 입지적 특징

- 인천우체국이 자리 잡은 항동6가는 1911년~1918년 이루어진 축항의 완공으로 만들어진 매립지로, 북쪽으로는 제물량로와 남쪽으로는 인항로, 동쪽으로는 신포로에 접하고 있다. 제물량로와 인항로는 모두 매립 당시 계획된 도로로 1962년 인천도시계획 당시 30m 폭의 대로로 계획되었다. 인천우체국의 동편에 있는 신포로는 내항, 즉 제 1부두에서부터 성공회 내동성당까지 이어지는 길이며, 인천우체국 북측으로는 조선 시대부터 인천과 서울을 잇던 경인가도의 끝에 맞닿아 있다. 1924년 인천우편국이 신축되었을 당시 인천우편국의 주 출입구는 동북 측으로 나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제물량로와 신포로가 만나는 모서리에 있는 입지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 출입구의 정면성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1962년 인천도시계획에서 제물량로가 이 모서리에서 꺾이면서 확장되며 신포사거리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 인천우체국 아래로는 수인분당선이 지나고 있으며, 이 일대는 현재 개항장문화지구에 속한다. 인천우체국은 개항장문화지구의 남동측 끝에 있으며 주변에는 다수의 국가유산을 비롯한 근대문화유산이 있다. 인천우체국의 남동측으로는 1918년 축조된 인천 내항(제1부두)과 세관 사무실 및 창고 등이 위치한 인천세관역사공원이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항구-세관-우체국으로 이어지는 1920년대의 역사 경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2) 배치의 특징

- 인천우체국의 배치는 1924년 신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관의 위치만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부속동은 신축과 철거를 반복하며 계속 변화하였다.
- 먼저 신축 당시의 배치를 살펴보면 당시 인천우편국이 위치한 항동6가는 새로 매립된 신시가지였기 때문에, 본관은 기존의 시가지와 연계되는 북측의 해안동 및 동측의 사동 방향을 향해 배치된 특징이 있다. 본관의 주 출입구는 현재의 제물량로와 신포로(축항도로)가 만나는 모서리인 신포사거리를 향해 나 있으며, 부출입구는 축항도로를 향해 나 있다. 후면의 출입구는 인천우편국 부지 내부를 향해 난 것으로 화물의 수송 등에 사용하는 출입구라 할 수 있다. 부속사는 부지의 남서측에 위치하며 보일러실은 부속사와 본관 사이에 있다. 시가에서 접근은 주로 신포사거리에 맞닿은 주 출입구나 신포로에 맞닿은 부출입구로 이루어지며, 후면 출입구는 제물량로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 등을 위한 서비스 동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지의 북서측으로는 창고 및 별관 등이 신축되어 우편국의 부속 기능을 수행하였다.
- 해방 이후 일부 건물은 미군 우편국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전

9)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과 개항장 도시 환경』, 이연경, 인천문화재단, p115~110.

쟁 이후에는 본관을 제외한 대부분 공간을 미군이 점유했다. 1961년 이후 본관 후면 공간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후면에 식당 및 창고 등 우체국의 부속 기능 및 서비스공간들이 마련되었다. 현재 배치를 살펴보면 본관과 별관으로 둘러싸인 외부공간은 제물량로로 난 정문을 통해 우편 차량이 우편물을 집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인천우체국 본관 건물 후면에 있는 부속동의 배치는 인천우체국의 신축 이후 계속하여 변경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제물량로를 통한 차량의 진입(서비스 동선)과 신포로 및 신포사거리를 통한 직원과 고객 동선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공간이 배치됨을 알 수 있다.

- 인천우편국 본관 동측과 북측, 남측 주변으로는 화단이 만들어지고 화단과 도로의 경계에는 경계석이 놓였는데 현재도 비슷한 형태와 크기의 경계석이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촬영된 사진에서는 경계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경계석 역시 1954년 대수선 공사 시에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경계석은 석재로 만들어진 것이나 시멘트를 바른 후 페인트칠을 한 형태이다. 주 출입구 좌측으로는 우체통과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도 약간 위치가 변경되긴 하였으나 인접한 곳에 우체통과 게시판, 개국 110주년 기념비가 놓여 있다.
- 본관 후면으로는 서비스 동선을 위한 출입구 및 우편물 상하차를 위한 지붕이 있는 외부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별관과 수위실 사이 공간에는 원래 이륜차 주차장 구조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3) 평면적 특징

- 인천우체국의 신축 당시 평면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1954년 대수선 공사 이후의 전기설비도면 및 1972년의 약도, 1983년의 평면도를 통해 최대한 원형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신축 당시 인천우체국의 평면은 1층과 2층이 다른 형태로, 2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로 이루어진 ㄷ자 형태이나 1층은 중정부까지 내부공간화된 직사각형의 형태이다. 출입구는 동북측 모서리에 주 출입구 1개소와 동측 신포로 방향에 부출입구 1개소가 있으며, 서측 주차장 방향으로는 후면 중앙 집배실의 중간에 있는 출입구 1개소, 남측 내부 복도와 연결되는 부분의 출입구 1개소, 그리고 북측과 남측에 있는 계단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1개소씩 총 6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도로에 면해있으나 4개소는 부지 내 빈 공간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 1층 평면은 그 성격상 전체적으로 접객공간, 집배 공간, 서비스공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첫 번째는 주 출입구와 연결되는 접객공간으로 직사각형의 전체적인 형태에서 45도 방향으로 돌출된 주 출입구를 통해 방풍실로 들어오게 되는데, 방풍실과 내부의 공중실 사이에는 단 차이가 있다. 공중실은 접객공간으로 주 출입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구의 원형을 따라 만들어진 낮은 높이의 가구(카운터)로 뒤편의 현업실과 구분된다. 공중실과 현업실은 우체국 공간의 가장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두 공간 사이에는 업무 처리를 위한 카운터와 구조재인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있다. 공중실과 현업실의 공간 구성은 2003년까지 유사한 형태로 지속되었으나, 2003년 대수선 당시 공중실을 크게 확장하고, 집배실 일부를 인터넷 프라자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전 각 실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신포로에 면한 부출입구와 연결되는 부분은 내부 복도로만 열려 있는 공간의 특성상 주 출입구와 연결되는 부분과는 공간의 성격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1972년 이후 공간을 국제계로 사용하며 카운터를 설치하여 이 공간 역시 접객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인천우체국이 2019년 이곳에서의 업무를 종료하기 직전까지는 CD실로 사용하였다. 한편 ㄷ자 형태의 남서측은 칸막이벽으로 여러 칸으로 나누어지는데, 1972년 이후 금고, 숙직실, 무기고,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어 직원용 서비스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공간은 서측으로 난 복도를 통해 바로 외부로 출입할 수 있었다. 1층 후면부, 즉 ㄷ자형 형태의 중정부는 우편물의 집배실로 사용하였다.

- 2층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성격상 크게 사무공간, 집배공간, 기타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무공간은 1층의 접객공간 위치의 공간으로, 동북측 모서리에는 국장실이 위치하였으며, 그 주변으로 회의실과 서무과 등이 위치하였다. 남측 형태에는 우정연구소 분실, 전파관리국분실 등이 위치하였으나 2003년을 전후하여서는 이 공간 역시 사무공간으로 전용되었다. 1954년 증축된 2층 중정부는 1층과 마찬가지로 집배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1, 2층 사이에는 엘리베이터가 놓여 있었다. 1972년 이전의 공간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48년 소이탄으로 인한 화재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공간이 교환실이라 하는데, 2002년 나온 안전진단보고서에서는 이 교환실이 2002년 당시의 구분실이라 하고 있어 2층의 일부가 전신전화국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1958년 이용준 체신부장관 인천우체국 자동식 전화 개통식 참석 시찰 당시 촬영된 사진 1, 2는 창호의 형태상 1983년 도면에서 우정연구실로 사용된 공간으로 추정되는바, 2층 공간의 상당 부분이 전신전화 관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58년 인천우체국은 본관 신축 당시부터 전신전화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1958년에는 인천우체국에서 분리되었는데, 당시 개국식 역시 인천우체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내부 사진들 역시 인천우체국 본관 건물로 파악된다. 인천전신전화국은 이후 1961년 송의동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이후 청사를 신축하였다.
- 1층의 경우 ㄷ자형 형태와 중정부가 연결되는 부분의 벽체는 모두 내력 조적 벽체로 내력 조적벽체의 개구부들은 아치로 처리되어 있다. 현재는 아치 개구부 중 상당수가 벽으로 막혀 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아치로 된 개구부가 연속되며 아케이드와 같

은 공간을 구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층의 경우 기존의 외벽이었던 벽체에 난 개구부가 2층 집배실의 내부 벽체로 사용되면서 내부 벽체에 창호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도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현재 2층 집배실 문으로 사용 중이나 대부분의 창호는 벽체로 막혀 있다. 원래 외벽에 난 창호가 남아 있는 벽체의 모습은 1958년 이응준 체신부장관 인천우체국 자동식 전화 개통식 참석 표창 당시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인천우체국의 신축 당시 우편국 건축의 표준설계가 존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우체국 건축의 특성상 평면은 우체국의 기능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평면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즉, 접객공간과 집배 공간 그리고 사무공간이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전신전화기능이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전화교환실 등의 비중도 크게 차지하였다. 이 중 접객공간과 집배 공간은 반드시 출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두 공간의 동선은 섞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접객공간 내 현업실과 공중실 역시 낮은 카운터로 구분되어 있어 시야는 통하지만, 동선은 분리되어야 한다. 인천우편국보다 이른 시기에 건축되었으며, 그 규모도 작은 일본 이세시의 야마다 우편국(1909)이나 진해우체국(1915)에서도 이런 평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4) 입면적 특징

- 근세부흥식, 즉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된 인천우체국 본관은 외부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이 건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양식은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건축양식으로, 로마 등 고전건축의 건축적 어휘를 도입하여 합리적이면서도 고전적인 형태를 구현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양식은 19세기 말 이후 서양 고전주의 건축이 서구 열강 및 일본을 통해 한국에 도입될 당시 한국에서도 유행한 양식으로 관공서와 은행, 병원, 학교 등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관동대지진 이후, 192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에서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모더니즘 양식 건물이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인천우체국은 1922년 기공하여 1923년 준공한 건물로 모더니즘 양식의 유행 전에 건축된 서양 고전주의 양식 중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라 할 수 있다.
- 인천우체국의 입면은 신축 이후 창호와 문 등의 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보존됐다. 건물의 입면은 크게 하단의 기단부와 창호와 벽체로 이루어진 축부,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평지붕을 이루고 있는 상단부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단부는 석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건립 초기 1층 바닥이 목재 바닥이었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창호가 없는 부분의 기단부는 거칠게 가다듬은(혹두기, 러스티케이션)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마치 기둥의 주초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축부는 장방형의 창호가 규칙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데, 1, 2층의 창호를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마감 처리하였으며, 창호 사이의 벽체를 마치 기둥처럼 보이도록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한 건물에 수직적인 느낌을 더하고 있다. 상단은 평지붕의 파라펫을 비롯하여 슬라브 아래 수평 코니스를 인조석 마감(현재는 시멘트 몰탈마감이 덧입혀져 있음)으로 연속적으로 처리함으로 전체적으로 건물의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단실 및 동북측 모서리의 옥탑층 창고 공간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하여 동북측 모서리에 있는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다.

- 인천우체국 입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동글게 처리된 동북측 모서리와 돌출된 주 출입구로, 주 출입구는 석조를 사용하여 위용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석조로 돌출된 1층 출입구 양측에는 원형기둥이 서 있으며, 출입구 상부는 부조로 수평적인 패턴을 새겨 장식성을 더하고 있다. 2층 동북측 모서리에는 총 5개의 원형기둥을 둘러 건물의 정면성과 함께 장식성을 더하고 있다. 동북측 모서리에서의 원형기둥의 사용과 창호 사이 벽체의 수직성 강조는 열주랑을 세운 듯한 신고전주의 건축의 어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주 출입구 상단 옥탑층 역시 조각 및 석재의 들고남으로 인해 장식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인천우체국은 전체적으로 우체국의 상징색인 붉은 색이 선적인 요소로 건물 전체에 칠해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신포로 방향으로 난 부출입구의 경우 주 출입구에 비해서는 장식성이 덜하나, 출입구 위 요철이 있는 수평 띠와 경사가 낮은 페디먼트 구성, 옥탑층의 반원형 돌출부와 그 아래 원형 조각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 원형이 잘 남아 있는 동측, 남측, 북측 입면과 달리 1955년 증축된 배면인 서측 입면은 거의 장식이 없이 창호만 설치된 기능적인 입면이라 할 수 있다. 배면의 1층 부분은 신축 당시와 창호의 위치와 형태 등이 거의 유사하나 기단부를 화강석으로 흑두기처리한 것은 발견할 수 없어 다른 입면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배면에 난 출입구들은 모두 간소한 형태이며, 2층 역시 거의 장식 없이 창호만 나 있는 기능적인 형태로 마감되었다.

5) 구조 및 재료의 특징

- 인천우체국은 신축 당시부터 벽체는 연와조로, 슬라브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주 출입구는 석재로 만들어진 혼합 구조로, 테두리보 없이 바닥 슬래브와 보를 걸쳐 놓고 일부 접합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바닥 하중을 조적벽체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1층 공중실 부분은 장스팬의 보가 지나므로 2개의 원형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구조체로 역할한다. 벽체구조는 2B 쌓기를 기본으로 붉은 벽돌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교대로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2002년 구조물안전진단 당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옥상 바닥보는 원형철근이 배열된 철근콘

크리트인데 반해, 2층 바닥보는 철골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2층 바닥 철골보는 약 2400mm~2800mm 간격, 옥상 바닥 철근콘크리트보는 약 1,700~1,850mm 간격으로 배열되었으며, 2층 바닥보의 보 단면은 300×550mm, 300×650mm, 500×700mm의 세 종류이고, 옥상층 바닥보는 300×700mm, 350×700mm, 400×700mm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대수선 공사 당시 2층 바닥보와 옥상 바닥보는 모두 에폭시 주입 강판보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24년 4월 『조선과건축(朝鮮と建築)』에 실린 건축개요에는 슬라브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철골보를 사용하였음에 대한 언급은 없어 2층 바닥 철골보가 신축 당시부터 설치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인천우체국의 ㄷ자형 형태의 경우 1, 2층 모두 신축 당시의 구조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2층 철골보는 1923년 당시부터 사용된 것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천우체국은 철골, 철근콘크리트와 연와조 조적벽체, 석조가 모두 사용된 혼합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증축부는 전체적으로 조적벽체에 목구조를 사용하였는데, 2층 바닥은 격자형 짜맞춰진 나무보로 떠받쳐 졌으며, 보 하부에는 강판 기둥을 받친 상황이었다. 조적벽체와의 접합부를 무리하게 뚫어 나무보와 연결하였으며 지붕트러스는 왕대공트러스로 조적벽체 위에 올려 지지한 상태였다. 조적벽체는 1층의 경우 2.0B이나 2층은 1.5B로 벽두께가 변하였다. 증축부의 목구조는 2003년 대수선 공사 당시 모두 철거되고 경량철골구조로 대체되었다.
- 현재 인천우체국 내부 마감재료는 2003년 대수선 공사 당시 전부 변경된 상황이다. 그러나 1983년과 2003년 작성된 도면의 정보를 통해 원재료를 추정해볼 수 있다. 1층 공중실 바닥은 2003년 대수선 이전까지 자기질 타일로, 국제계는 비닐계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간들은 대부분 인조석 물갈기 바닥 마감이었다. 2층의 경우 대부분 실이 비닐 시트로 마감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된 상황이다. 원래의 타일을 붙였던 흔적은 1층 주 출입구 방풍실 바닥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다. 타일로 마감되었던 부분들은 모두 철거되어 앞으로도 확인이 불가할 것이나, 계단실 및 금고 그리고 그 외 인조석 물갈기를 사용하였던 실들의 경우 기존 마감 위에 새로운 바닥 마감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인조석물갈기 등 기존 바닥재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 마감, 천장 마감, 창호 등도 모두 변경된 상태로 원래의 모습을 찾기 어려우나 계단실의 목재 난간은 원형으로 추정된다.
- 2023년 9월 인천우체국 원형 파악을 위한 일부 해체를 통해 원래의 구조 및 재료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3년 대수선 공사 당시 변형된 방풍실의 원 구조와 내력벽체의 개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풍실 천장에서 주 출입구 부분의 석재와 조적벽체가 접합하는 부위 및 강판보강을 하지 않은 2층 바닥의 철근콘크리트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측 계단실의 원 마감재료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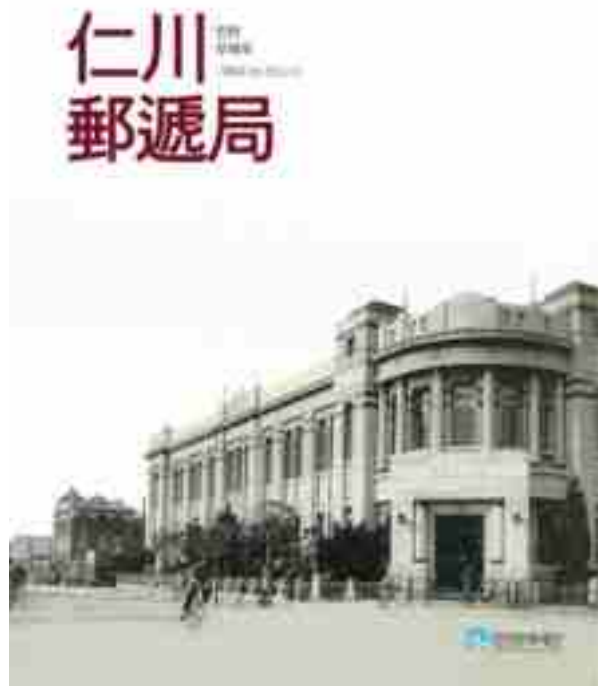
2. 선행 조사 및 연구

2.1. 기록화 조사보고서

2.1.1.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 분 류 : 기록화 조사보고서
- 발행처 : 인천문화재단
- 발행일 : 2023.12.31.
- 보고서 : 안창모(경기대학교)
박 범(공주대학교)
이연경(인천대학교)
김윤식(시인)
- 자 문 : 손장원(인천광역시립박물관 관장)
윤인석(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규철(건축공간위원회 연구위원)



1) 수록내용

-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는 인천우체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총론, 우체국 역사, 건축적 특징, 관련 사료 등) 전문가의 연구논문과 사료를 모은 기록이다.
- 일반적인 근대건축물 기록화 조사보고서와 다르게 연구자료를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별도의 실측자료는 수록하고 있지 않다.

2) 목차

-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총론 (안창모, 경기대학교)
 - 개항과 우편 업무의 시작
 - 조계지의 조성
 - 만국우편연합 가입과 우체 업무

- 조계지의 우체기능과 시설
- 해안매립과 축항
- 인천항 갑문식 도크의 건설과 인천항 역의 건설 그리고 수인선의 건설
- 인천과 우체 업무 그리고 우체국
- 맺음말

- 근대 전환기 우체국의 역사와 인천우체국의 변화 과정 (박범, 공주대학교)
 - 근대 전환기 한국우체국의 전개 과정
 - 인천우체국 역사의 전개 과정

-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과 개항장 도시 환경 (이연경, 인천대학교)
 - 인천 내항 일대의 도시환경
 - 인천우체국의 건립과 이후의 변화
 -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
 - 소결

- 기억 속의 인천우체국 (김윤식, 시인)
 - 인천우체국의 첫인상
 - 엽서 한 장, 그리고 ‘3시의 다이얼’
 - 인천우체국과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
 - 나이 어린 발명가, 인천우체국 전보 배달원
 - 세월의 변화
 - 크리스마스 카드
 - 집배원이 하루에 걷는 거리
 - 못된 편지
 - 우체국 6제(六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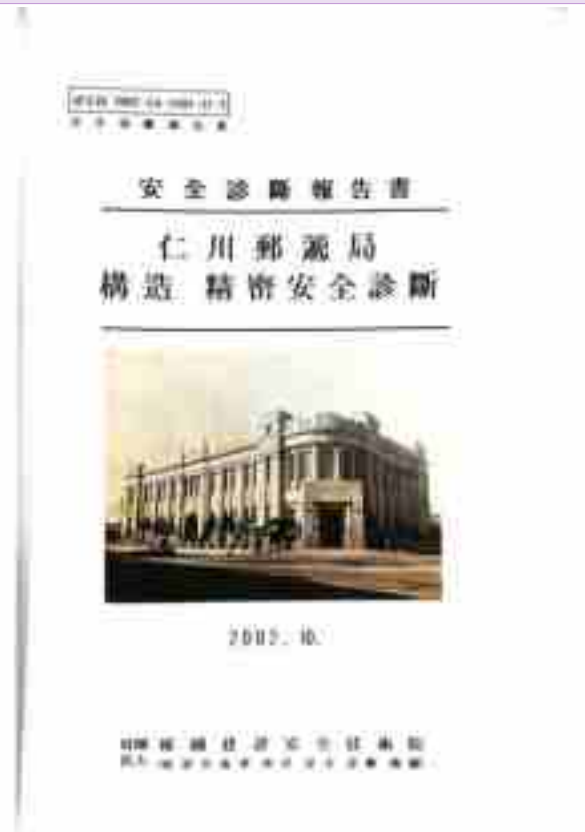
- 인천우체국 관련 자료
 - 엽서 등 사진 자료
 - 도면 자료
 - 인천우체국 관련 신문기사, 잡지 자료
 - 인천우체국 관련 문서
 - (구)인천우체국 가치 발굴 및 기록화 사업 자문위원 의견(2023.10.19. 진행)

2.2. 안전진단 관련 보고서

2.2.1. 인천우체국 구조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002년)

- 인천우체국 구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분 류 : 구조정밀안전진단보고서
- 발행처 :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발행일 : 2002.10.
- 기 간 : 2002년 8월 26일~2002년 10월 14일



1) 수록내용

- 2002년 실시한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이다.
- 보고서 항목은 상태조사, 비파괴조사, 변위조사, 구조해석 및 안전성 검토, 보수·보강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내용 요약

- 내구성 평가
 - 상시 외기에 노출된 외부 벽체의 마감재료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상태로 미장면 균열과 마감재의 들뜸 및 박리·박락, 오염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재료분리와 콘크리트 피복의 박락, 철근 노출 및 부식이 구조체 전체에 걸쳐 발생하여 있는 현상으로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대책안에 따라 단면 복구 및 철근 피복 확보 보수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 안전성 평가
 - 외부 수평·수직 변위는 시공오차범위 내에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부등침하 등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구조체에서는 응력이 초과하는 부재의 경우도 하중 경감들의 조치로 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내측 벽체 길이 방향에 연결된 장스팬보 주변 구조부재의 경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 평가
 - 인천우체국 본동은 노후화와 안전성 평가로부터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불량한 상태로 분석되어 “D등급”으로 평가된다.
- 구조보강 방안
 - 휨모멘트를 초과하는 N열 장스팬보의 하부에 강관기둥 보강을 하고, B열 장스팬보는 철판 보강 등의 구조보강으로 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천우체국은 1923년에 준공되어 약 80년 정도 경과한 조적벽체 위 콘크리트 슬래브조의 2층 구조물로 한국전쟁 중에 폭격으로 인한 일부 지붕의 파손, 화재의 발생과 이후 대수선과 증축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일부 구조체의 변경 및 손상으로 내력벽에 구조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1982년 인천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방안의 수립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재료 품질의 저하와 열화의 진행이 가속화되어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 상시 외기에 노출된 외부 벽체의 마감재료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상태로 미장면 균열과 마감재의 들뜸 및 박리·박락, 오염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 구조체는 시공결함으로 인한 재료분리와 일부 구간의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 오랜 경과년수에 따른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의 기준 초과와 중성화가 철근 피복에 근접 또는 초과함에 따라 철근의 부식으로 콘크리트 피복이 박락되거나 철근이 노출된 상태로 철근의 부식은 진행형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빠져 있는 원형철근의 특성상 콘크리트 면의 박락 또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같은 경향은 층별 구조체 전체에 걸쳐 발생하여 있는 현상으로 내구성 측면에서 구조물의 수명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장스팬보 주변 구조체에서는 구조 내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따라서 중요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유산보존 원칙에 따라 구조체의 수명을 연장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대책안에 따라 구조체 전체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살의 하중을 경감시킬 수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있는 사용에 대한 용도제한과 같은 부차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2. 인천우체국 구조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020년)

• 인천우체국 구조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분 류 : 구조정밀안전진단보고서
- 발행처 : (주)합 건설방재기술단
- 발행일 : 2020.11.
- 기 간 : 2020년 7월 28일~2020년 11월 24일



1) 수록내용

- 2020년 실시한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이다.
- 진단 배경은 인천우체국 건축물이 2018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정밀안전진단은 건물의 용도를 전시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 구조 안전성 및 사용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및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조사·추적하여 내구성 및 내하력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구조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용 요약

- 중대결함
 - 현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 진단 주요결과

- 비파괴 시험결과, 콘크리트 추정압축강도는 23.20MPa로 확인되었으며, 탄산화시험 및 건물의 기울기 측정결과 구조물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2층, 지붕층 철근콘크리트 바닥보에 철판 보강이 되어있음.
→ 이는 건물 대수선과정에서 보강한 것으로 확인됨.
- 1층 천장에 누수 흔적이 발생함.
- 1층 대수선공사 기초부분과 기존 구조물의 이격이 발생함.
- 2층 계단실 천장에 누수 흔적 및 마감 들뜸이 발생함.
- 2층 바닥슬래브에 마감균열이 발생함.
- 지붕층 계단실 조적벽체에 균열 및 마감탈락이 발생함.
- 지붕층 파라펫에 다수의 균열 및 도장파손이 발생함.
- 외부 조적벽체 마감에 균열 및 도장파손이 발생함.
- 철골기둥에 도장 들뜸이 발생함.
- 안전성 종합 평가 등급은 상태 평가 “C등급”, 안전성 평가 “B등급”, 종합평가 “C등급”으로 평가된다.

2.2.3.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2023년)

- 제3종 시설물 D등급 국사 (인천 중동) 정기안전점검 [해빙기] 보고서

- 분 류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발행처 : (주)금호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 발행일 : 2023.3.
- 기 간 : 2023년 1월 16일~2023년 3월 30일



1) 수록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시설물별 적정 점검 방법과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

2) 내용 요약

- 중대결함
 - 중대한 결함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점검 주요결과
 - 점검 대상 건축물은 1923년 12월에 준공되어 99년 3개월이 경과된 상태이며 공공 업무시설로 사용 중인 상태이다.
 - 2022년 동절기에 조사되었던 지붕층 파라펫 조적 파손 및 박락, 망상균열 / 지하1층~지상2층 사무실, 복도, 휴게실의 천장 마감재 누수 흔적 및 박락 / 지상1층~지상2층 외부 벽체 균열은 진전 및 확대가 없는 상태로 조사되었으나 본 건축물은 “D등급”으로 평가되어 조사된 손상의 변동 유무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 주요 보수·보강
 - 조적벽체 균열, 접합부 이격 : 충전식 보수공법
 - 천장 텍스 누수 흔적 : 텍스 교체

3. 건축 현황 조사

3.1. 진입 및 주변 현황

- 진입 동선
 -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동측에 있는 주 출입문과 정면 출입문이 있으며 이용객이 사용하던 출입문이다. 현재는 건물 폐쇄로 인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배면에는 우체국 직원들이 사용하던 출입문이 있으며 우편물 등 수화물을 이동할 수 있는 출입문으로 되어있다. 현재는 건물 폐쇄로 인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배면에 면하여 주차장이 있어 본관과 수위실 사이로 주차장 출입구가 있으며 철제로 된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주변 현황
 - 우체국이 위치하고 정면과 측면으로 대로가 있으며 우체국 주차장을 면하여 KT지사가 있다.
 - 남측으로는 인천중부소방서와 의류매장(유니클로)가 있으며 의류매장 주차장과 담장이 접하여 있다.
 - 북측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남측으로 항에 면하여 있어 세관 검사장과 주차장이 있다.
 - 남동측 도보 152m 지점으로는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수월하다.



그림 2-20. 인천우체국 주변 현황도(좌), 출입문 위치도(우)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그림 2-21. 주변 현황 1 (북동측 주 출입부)



그림 2-22. 주변 현황 2 (남쪽 대로)



그림 2-23. 주변 현황 3 (남동쪽 도로변))



그림 2-24. 주변 현황 4 (남동쪽 도로 건너편)



그림 2-25. 주 출입부



그림 2-26. 정면(동남측) 부출입문



그림 2-27. 배면 출입문



그림 2-28. 주차장(북측) 출입구

3.2. 외벽 현황

3.2.1. 정면

- 외벽은 전체 면에서 훼손이 다수 확인되며 지붕과 맞닿는 부분에 미장이 떨어진 부분이 두드러진다.
- 육안조사에서는 탈락한 부분 외에도 미장 및 외부 페인트의 다수 크랙이 확인된다.



그림 2-29. 정면 외벽 입면



그림 2-30. 입면(정면) 훼손현황도



그림 2-31. 정면 훼손 현황 '1번'



그림 2-32. 정면 훼손 현황 '2번'



그림 2-33. 정면 훼손 현황 '3번'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그림 2-34. 정면 훼손 현황 '4번'



그림 2-35. 정면 훼손 현황 '5번'



그림 2-36. 정면 훼손 현황 '6번'



그림 2-37. 정면 훼손 현황 '7번'



그림 2-38. 정면 훼손 현황 '8번'

3.2.2. 배면

- 외벽은 전체 면에서 손상이 다수 확인되며 지붕과 맞닿는 부분에 미장이 떨어진 부분이 두드러진다.
- 육안조사에서는 탈락한 부분 외에도 미장 및 외부 페인트의 다수 크랙이 확인된다.



그림 2-39. 배면 외벽 입면



그림 2-40. 입면(배면) 훼손현황도



그림 2-41. 배면 훼손 현황 '1번'



그림 2-42. 배면 훼손 현황 '2번'



그림 2-43. 배면 훼손 현황 '3번'



그림 2-44. 배면 훼손 현황 '4번'



그림 2-45. 배면 훼손 현황 '5번'



그림 2-46. 배면 훼손 현황 '6번'



그림 2-47. 배면 훼손 현황 '7번'



그림 2-48. 배면 훼손 현황 '8번'

3.2.3. 좌측면

- 외벽은 전체 면에서 손상이 다수 확인되며 지붕과 맞닿는 부분에 미장이 떨어진 부분이 두드러진다.
- 육안조사에서는 탈락한 부분 외에도 미장 및 외부 페인트의 다수 크랙이 확인된다.



그림 2-49. 좌측면 외벽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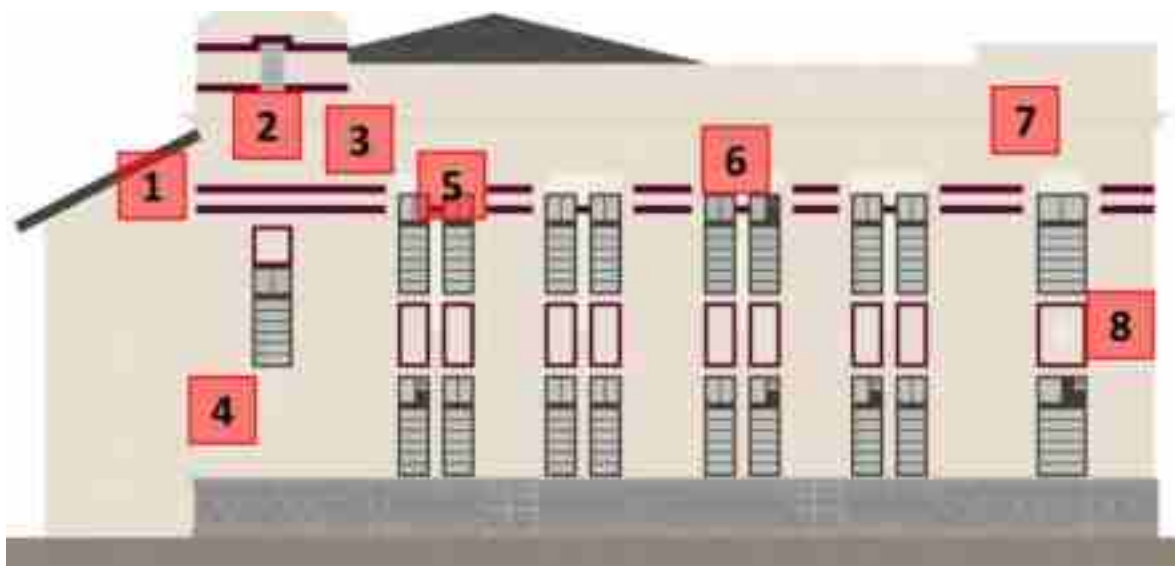


그림 2-50. 입면(좌측면) 훼손현황도



그림 2-51. 좌측면 훼손 현황 '1번'



그림 2-52. 좌측면 훼손 현황 '2번'



그림 2-53. 좌측면 훼손 현황 '3번'



그림 2-54. 좌측면 훼손 현황 '4번'



그림 2-55. 좌측면 훼손 현황 '5번'



그림 2-56. 좌측면 훼손 현황 '6번'



그림 2-57. 좌측면 훼손 현황 '7번'



그림 2-58. 좌측면 훼손 현황 '8번'

3.2.4. 우측면

- 외벽은 전체 면에서 손상이 다수 확인되며 지붕과 맞닿는 부분에 미장이 떨어진 부분이 두드진다.
- 육안조사에서는 탈락한 부분 외에도 미장 및 외부 페인트의 다수 크랙이 확인된다.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그림 2-59. 우측면 외벽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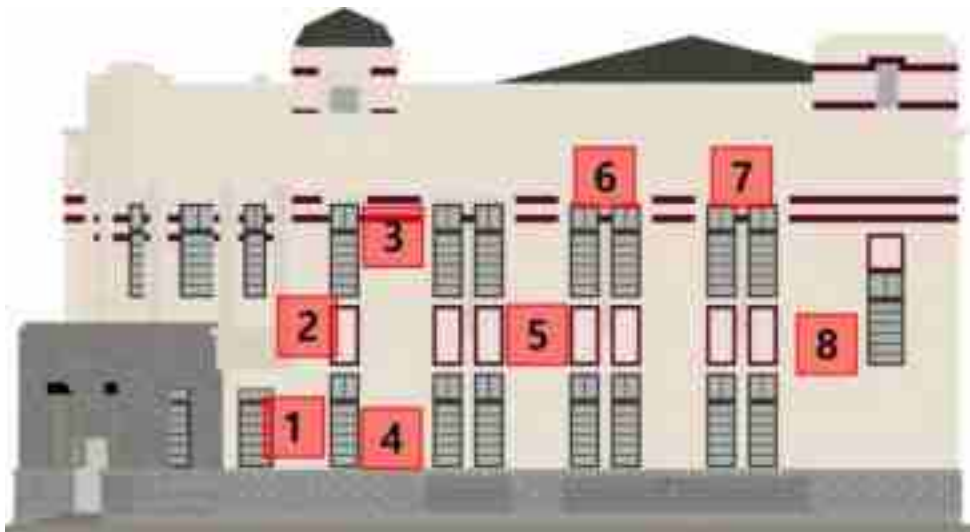


그림 2-60. 입면(우측면) 훼손현황도



그림 2-61. 우측면 훼손 현황 '1번'



그림 2-62. 우측면 훼손 현황 '2번'



그림 2-63. 우측면 훼손 현황 '3번'



그림 2-64. 우측면 훼손 현황 '4번'



그림 2-65. 우측면 훼손 현황 '5번'



그림 2-66. 우측면 훼손 현황 '6번'



그림 2-67. 우측면 훼손 현황 '7번'



그림 2-68. 우측면 훼손 현황 '8번'

3.3. 내부 및 창호 현황

3.3.1. 내부 현황

- 인천우체국 평면은 초기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형태는 2003년 대수선 공사 이후에 변화된 것으로 보이며 우체국이 퇴거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 1층은 우체국의 영업장으로서 내부마감이 잔존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지속함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장이나 내벽은 탈락과 변색 등이 진행되고 있다.
- 2층은 1층과는 다르게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던 평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기자재가 빠진 상태이다. 바닥과 천장, 내벽 등에 훼손이 있으며, 2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의 경우 하부 부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3.3.2. 창호 현황

- 인천우체국은 4면 모두에 설치된 창호는 외형상으로는 건립 초기와 유사하나 2003년 정비공사 당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창호는 외부에서는 외견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개폐 작동이 불량한 창호들이 다수 확인된다.



그림 2-69. 1층 로비(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0. 1층 조적벽 현황(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1. 1층 금고(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2. 1층 증축부(2023년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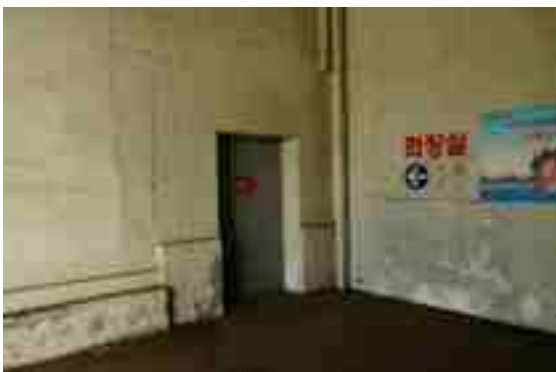


그림 2-73. 1층 증축부 연결통로(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4. 2층 현황1(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5. 2층 현황2(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6. 보 보강철물 현황(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7. 창호 내부 상세1(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8. 창호 내부 상세2(2023년 현황 조사)



그림 2-79. 창호 상세(2023년 현황 조사)

4. (구)인천우체국 원형분석

4.1. 과거 사진 분석¹⁰⁾

표 2-4. 항공사진 속 인천우체국 배치 변화

연도	항공사진	주요 변화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 이후의 모습으로 1945년 9월 8일 촬영된 사진과 거의 유사한 상황임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의 동북측으로 현재의 제물량로가 확장·신설되면서 신평사거리가 형성됨 • 한국전쟁으로 인해 기존 부속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우체국 본관 후면에는 미군 퀵셋들이 설치되었음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KT빌딩(1984년 신축)이 건축되었음 • 기존의 보일러실 굴뚝 확인됨

10)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과 개항장 도시 환경」, 이연경, 인천문화재단, p110~111. 참조.

연도	항공사진	주요 변화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후면에 있는 현재의 식당 건물 (1987년)이 신축되었음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대수선 공사의 결과로 지붕 전체 교체가 이루어졌음. • 후면부에 기존의 수위실 건물이 철거되고 현재의 수위실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본관과 별동 사이의 연결복도도 철거되었음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모습과 변화 없는 현재 모습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그림 2-80. 시기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입면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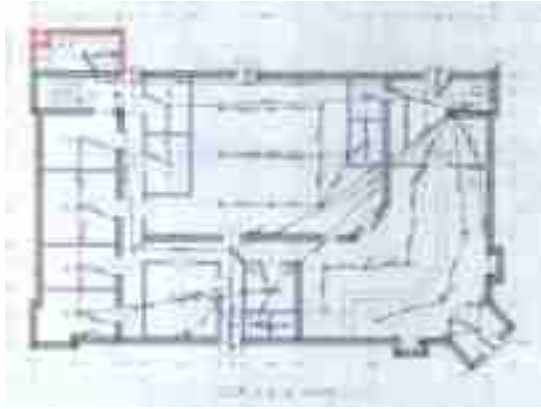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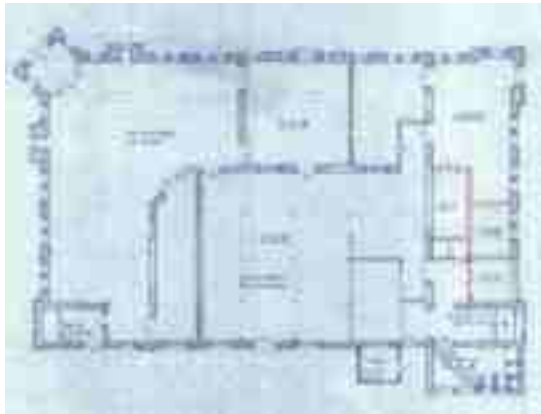
그림 2-81. 시기별 사진에서 확인되는 창호 형태 변화

- 1947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우체국을 포함한 주변의 항공사진은 시가지의 구조 및 우체국의 배치현황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항공사진이 직하방으로 찍은 사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나 입면의 형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와 일대의 변화에 관한 확인이 주요한 부분이다.
-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우체국 배치에서는 증축부에 대한 부분과 주변 건축물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 일제강점기 엽서와 신문 등에서 초기 형태에 근접한 인천우체국 건축물 입면이 확인되며 대부분 형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창호와 홈통 등이 변화된 부분으로 추정된다.

4.2. 기존 도면 분석¹¹⁾

- 기존 도면에 대한 분석은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에서 분석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표 2-5. 1층 평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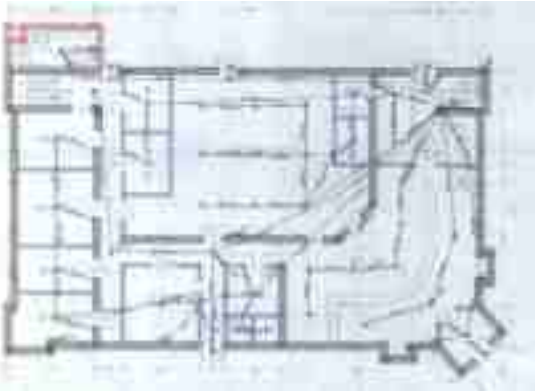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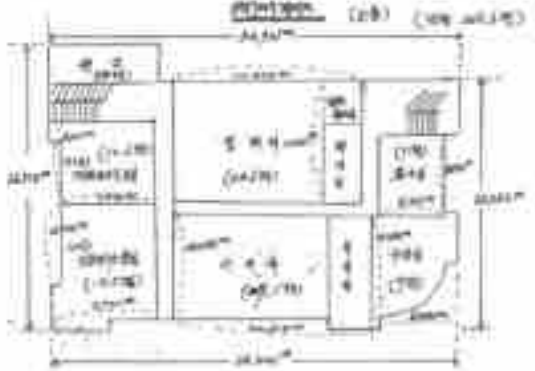

연도	도면	주요 변화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 이후 복구공사를 마친 상태로, 원형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1층 우편계 부분은 신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목조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1955년 복구공사 당시 1층 우편계의 보수와 후면 화장실 증축 전면 출입구 부분의 곡선 벽체는 도면상 벽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공중실-현업실 사이의 낮은 가구일 것으로 추정됨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면에 세면장이 증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수계로 사용되는 공간은 기존의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두 개의 실을 통합한 것으로 판단됨 국제계와 국제계 창고 사이의 복도 공간이 사라졌음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면부 세면실 증축 및 내부 칸막이벽의 철거와 신설로 내부 공간의 변화 생김 공중실과 현업실 사이 책상이 국제계까지 확장되었으며, 국제계와 경계를 이루는 내력벽에 개구부가 생겨 연속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

11)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 『인천우체국의 건축적 특징과 개항장 도시 환경』, 이연경, 인천문화재단, p110~111. 참조.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연도	도면	주요 변화
2003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우편계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며, 내부 칸막이벽의 철거와 신설로 내부 공간의 변화 있었음 • 우편구분계 내 바닥레벨이 높은 철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음 • 후면부의 세면실은 철거되었음
2003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목조칸막이벽, 철제구조물 등을 철거하였으며, 내력벽체의 개구부 일부에 조적벽을 쌓아 막았음 • 공용실을 대폭 확장하며 기존의 공용실-현업실을 나누던 기존의 카운터를 철거하였음 • 우편계의 배면 출입구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며, 배면에 우편집배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었음
2023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대수선 이후와 큰 차이는 없으나 내부 칸막이벽의 철거 및 신설이 일부 이루어졌음

표 2-6. 2층 평면 변화

연도	도면	주요 변화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이후 복구공사를 마친 상태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ㄷ자형 구조체 뒷부분은 1955년 복구공사 당시 증축된 부분임 • 후면 화장실 및 후면 벽체 증축 • 원형 부분과 증축부 사이 벽체에는 원형 벽체의 개구부가 남아 있음 • 그 외 내벽은 대부분 칸막이벽으로 구조체와 무관함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배계 내부 및 서무과 공간의 내부 실 구획 생겼음 • 우정연구소 분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기존의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두 개의 실을 통합한 것으로 판단됨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복도를 이루는 칸막이벽의 위치가 내력벽의 서측에서 동측으로 변경되며, 내력벽의 중앙 창호가 개구부로 변경되었음 • 국장실 출입구 부분의 변화 및 내부 칸막이벽의 일부 철거 및 신설 외 큰 변화 없음

II. (구)인천우체국 현황

연도	도면	주요 변화
2003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장실 앞 전실 및 남측 서무과 및 북측 운송계 내부 칸막이 설치로 실의 분화가 일어났음 • 내력벽체의 개구부 및 맞은편 칸막이벽 개구부의 위치가 변경되었음 • 집배계와 계단 사이 개구부가 막혀서 벽체가 되었음
2003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목조칸막이벽, 철제구조물, 지붕 트러스 구조 등을 철거하였음 • 기존의 내력벽체에 있는 일부 개구부에 조적벽을 쌓아 개구부를 막았으며, 북측 내력벽엔 추가로 개구부를 설치하였음 • 국장실 출입구 부분 및 칸막이벽을 철거하여, 전체적으로 국장실 부분이 확장되었음 • 집배계 공간을 구획하여 회의실, 문서고, 휴게실 등으로 사용 • 이후 배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음
2023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대수선 공사 이후 큰 변화는 없으나, 일부 칸막이벽의 철거 및 추가 설치가 있었음

4.3. 원형 복원 기준

- 인천우체국의 원형은 기준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 일제강점기에는 인천우편국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이후 용도는 동일하게 미군우편국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였던 우편국의 기능이 시대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공간과 그 활용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인천우체국은 1923년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능을 지속해왔음을 특징으로 삼으면 기준시점은 준공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2-82. 조감도 1 (현황)



그림 2-83. 조감도 1 (복원)



그림 2-84. 조감도 2 (현황)



그림 2-85. 조감도 2 (복원)



그림 2-86. 조감도 3 (현황)



그림 2-87. 조감도 3 (복원)

III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1. 기본구상
2. 기본개념
3. 정비계획 상세

1. 기본구상

1.1. 관련 법규 검토 및 적용

1.1.1. 관련 법규 검토

표 3-1. 관련 법규 목록

관련법규	구 분	내 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목 적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제5장 국가등록문화유산,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9장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 적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목 적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목 적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7장 비용, 제8장 감독,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목 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제3장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 제4장 보존·관리 및 활용, 제5장 시등록문화유산, 제6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7장 보칙

1.1.2. 관련 법규 적용

표 3-2. 관련 법규 적용

법명	법조항	세부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정의	<p>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p>
	제1장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p>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p>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찰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제2장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p>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p>
	제3장 제14조의3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명	법조항	세부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장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제31조 지정의 해제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장 제35조 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장 제43조 기록의 작성·보존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4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법명	법조항	세부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	<p>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p>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제26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p>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p> <p>③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p>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시·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p>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이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유산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법명	법조항	세부내용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제1장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p>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장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p>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6장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p>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법명	법조항	세부내용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제6장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p>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p> <p>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p> <p>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p> <p>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p>
	제7장 제92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p>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p> <p>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 <p>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p> <p>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p>
시 행 령	제1장 제2조 기반시설의 종류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p> <p>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p> <p>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p> <p>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p> <p>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p> <p>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p> <p>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p>

법명	법조항	세부내용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1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p>①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이 그 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p>
	제3장 제15조(건설공사 시 문화유산보호)	<p>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유산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p> <p>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p> <p>②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유산·시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1.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해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p> <p>2.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p> <p>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p> <p>2.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및 조망의 훼손 여부</p> <p>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p> <p>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p> <p>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p> <p>6. 매장문화유산의 포장 여부</p>

1.1.3.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수리원칙¹²⁾

1) 기본원칙

- 근대건축물 문화유산(이하 근대건축물) 수리는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수리는 훼손 상태에 따른 외형적인 수리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이 해결되도록 한다.
-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2) 수리방법

(1) 외형

-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및 현대적 설비인 전기, 냉난방, 방범 및 소화 설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 해체 재료 중 손상된 것은 가급적 수리하거나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 재료의 교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재료는 별도 보관한다.

(3) 기법

- 기존의 마감기법을 따른다.
- 기존의 이음, 맞춤 등 결구기법을 따른다.
- 기존의 기법을 따르되, 현대적인 기계장비는 건축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구조보강 등의 현대적인 기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환원될 수 있는 기법을 채택한다.
- 해체수리보다 구조보강이 건축물 보존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를 보강한다.

(4) 구성원

- 설계자, 시공자, 담당원과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수리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한다.

12)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수리 표준시방서』, 2010, 국가유산청.

3) 조사 및 기록

- 수리 전 기존 재료, 양식, 기법을 상세하게 조사한다.
- 수리 시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최대한 기록·보존한다.
- 수리 후 사용재료, 수리 부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조사 및 수리 내용은 도면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 작성하고 건축물 역사의 일부로 보존한다.

1.1.4.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지침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보수설계-정비설계-복원설계’로 구분
 - 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작성
 - 설계도면 구성 및 내용, 표기방법, 제출, 현황사진첩
 - 설계도서 제출 및 해석의 우선순위, 작성자의 서명날인
 - 재검토기한 등 명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상세도면(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부재상세도 등)
-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
 - 국가유산수리 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 지역 특색, 양식, 재료, 기법 등 문화유산 특성에 맞는 공사시방서 작성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설계과정과 공사과정 모두를 수록하는 수리보고서 작성

1.2. 근대건축물 수리 사례

- 근대건축물 수리사례는 문화유산청에서 발행한 2010년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 2018년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참고하였고 주로 훼손이 진행되어 보수가 필요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수리공사를 확인하였다. 과거 인천 우체국에서 진행된 수리사례도 조사하였다.
- 현재 인천우체국의 주요 수리부위는 지붕, 미장, 창호, 구조보강 등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인천우체국은 기존 내부 평면이나 마감재 등은 2003년 대수선공사 시에 변화되었고, 이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으나 2003년 이전 내부형태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미비하여 원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복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외부의 입면 형태와 재료는 초기(일제강점기)의 사진 등이 남아있고 현재와 비교 검토 결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1.2.1. 인천우체국(석공사)¹³⁾

1) 개요

- 종 목 :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 지정일 : 1982년 3월 2일
- 소재지 : 인천 중구 항동6가 1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 건립연도 : 1924년
- 수리연도 : 2004년

2) 재료

- 에폭시수지
- 충전제(탈크, 석분 등)

3) 조사

- 재료조사 : 석재 종류 및 재질
- 훼손현황조사 : 석재 파손범위 등 현황

13)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 국가유산청, 2010, p92~96 참조

4) 시공

(1) 수리범위

- 건물 균열 부위 및 파손 부위 에폭시수지 접합 복원처리
- 외부 벽체면 공극 부위 제거 및 원형 복원처리
- 흑두기 기단석 결손 부위를 동종의 재질(화강암)로 교체

(2) 수리 전 현황

- 1924년 일제강점기에 지은 건물로 당시 유행하던 절충주의 양식을 단순화한 것으로 입구 양쪽에 큰 기둥을 세우고 그사이에 주두가 없는 작은 기둥을 여러 개 받쳐 구성했다. 한국전쟁으로 일부 훼손되어 지붕을 보수했다.
- 기단석과 정문 입구 석조물 재질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단석은 건물 4면 하단부위와 창문틀 턱 전체에 둘러져 있다. 또한, 정사각형의 화강암을 쌓아 축조하였으며 그 위에 장방형의 직사각형 창문틀 턱을 올려놓았다. 정문 입구 석조물은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사이에 주두가 없는 작은 기둥 여러 개를 받치고 있다.
- 기단석 표면은 원석의 흑두기 형태로 매우 거칠게 조각되었고 건물 가장 아랫부분과 창틀 턱부위는 직사각형으로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상태이다. 또한, 기단석 화강암 표면에는 수성페인트가 3회 이상으로 두껍게 칠해져 있고 자연풍화에 의하여 부식이 있다.
- 기단석 일부 화강암과 계단 부위는 자연 풍화현상 및 인위적 작용 때문에 덮개 형태로 군데군데 부식된 곳이 있다.
- 창틀 턱부위는 시멘트와 모르타르 등이 덮여 있고 유해가스, 빗물 등 자연 풍화에 의해 여러 군데 화강암이 부식되고 황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 기단석 윗부분 건물 벽체는 시멘트 벽체로 그 위에 수성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군데 군데 균열 및 공극 현상이 있다.

(3) 수리지침

- 통합지침
 - 인천우체국 건물보수 및 대수선공사에 따른 석조기단과 정문 석조물의 원형을 회복하고, 건물 외부 벽체의 결손 및 균열부위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보수·보존처리를 시행한다.
- 기단석 및 정문 입구 석조물
 - 접합 및 복원
 - : 결손 및 균열 부위에 대하여 에폭시수지와 충전제(탈크, 석분 등)를 사용하여 접합 및 복원처리 한다.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 결손되어 없어진 흑두기 석조물은 원형과 같은 동일 재질(화강암)로 교체하고 에폭시수지와 충전제를 사용하여 원형대로 접합한다.

- 기단석 줄눈 및 벽체 공극부위
 - 흑두기 기단석 및 석조물 연결부위의 기존 모르타르를 모터툴(Motortool), 바이브레툴(Vibratool), 메스(Mes) 등으로 제거하고 세척 및 건조 후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충전처리한다.
 - 기존 모르타르 부위와 탈락면은 전체를 제거한 후 1차적으로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보강 부위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후 건조시키고 합성수지인 에폭시수지 및 충전제(석분, 탈크 등)를 사용하여 원형대로 복원처리한다.
 - 벽체면의 공극부위를 처리하고 2차로 표면부위를 원형과 같이 복원한다.
- 벽체면 탈락 및 균열 부위 복원처리
 - 기존 벽체의 균열 부위 및 들떠있는 부위에 대하여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접합하고 가능한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접합하도록 한다.
 - 벽체 균열부위에 대한 V커트는 필요한 부위에 한하여 최소화시키고, 메스 등을 이용하여 미세하게 커트 한 후 에폭시수지 접합 및 충전제로 복원하도록 한다.

(4) 수리기법

① 기단석 및 정문 입구 석조물

- 접합 및 복원처리
 - 기단석, 정문 입구 석조물, 출입구 계단 결손 및 균열부위에 대하여 에폭시수지와 충전제(탈크, 석분 등)를 사용하여 접합 및 복원 처리한다.



그림 3-1. 계단석 결손부 수리 전



그림 3-2. 계단석 결손부 수리 후

- 흑두기 기단석 연결부위는 시멘트분말과 물을 혼합하여 원상태와 같이 줄눈처리를 한다.
- 건물 후면에 결손되어 없어진 흑두기 기단석은 원형과 같은 동일 재질(포천화강암)

로 교체하고 에폭시수지와 충전제를 사용하여 접합 처리한다.



그림 3-3. 흑두기 기반석 수리 전



그림 3-4. 흑두기 기반석 수리 후

- 고색처리
- 접합 및 복원처리 부위에 대하여 에폭시수지와 같은 재질의 석분가루, 탈크 등을 혼합하여 기존 석재면의 색상과 같이 처리한다.

② 기반석 줄눈 및 벽체 공극부위

- 흑두기 기반석 및 석조물 연결부위의 기존 모터툴(Motortool), 바이브레틀(Vibratool), 메스(Mes) 등 보존처리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 흑두기 기반석 연결부위는 시멘트분말과 물을 혼합하여 원상태와 같이 줄눈 처리한다.
- 기반석 연결부위중 파손부위에 대한 세척 및 건조처리 후 에폭시수지와 충전제(석분, 탈크 등)를 사용하여 보강 처리한다.

1.2.2. 한국은행본관(지붕공사)¹⁴⁾

1) 개요

- 종 목 : 사적
- 지정일 : 1981년 9월 25일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 건립연도 : 1912년
- 수리연도 : 1987~1989년

14)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 국가유산청, 2010, p233~244 참조..

2) 재료

- 동판(銅板)
 - 지붕재
 - 인탈산 경질동판 두께 0.6mm
 - 기타 금물
 - 거멀쪽 : 동판 두께 0.5mm, 폭 50mm 이상
 - 못 : 머리가 납작한 것. 지름 2.5mm, 길이 25mm 이상의 경질동이나 황동못
 - 나사못 : 머리는 반원형
- 단열재 : 경량단열 P.C
- 방수재
 - 아스팔트펠트
- 흙통재료
 - 아연도철판 두께 1.2mm
 - 동판 두께 0.6mm

3) 조사

- 원형 및 기법 조사
 - 현장조사 결과와 신축 당시의 원도를 대비 조사한다.
 - 기둥 보 내력보의 배치형태
 - 건물의 노후도(考朽圖)
 - 전기 설비기기 배선 배관 계통
 - 해체 부재의 치수, 구조, 강도
 - 재사용을 요하는 부재에 대한 조사

4) 시공

(1) 수리범위

- 지붕 및 돔 해체 후 원형복원
- 흙통 복원

(2) 수리지침

- 잇기방법
 - 본관은 박공지붕으로 깨끗하고 평탄한 지붕면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평이음매 지붕 방식을 택한다.
- 고정방법
 - 대부분 거멀쪽을 사용하고 일부분에는 못 고정 및 나사 고정을 병용한다.

- 바탕구조
 - 동판의 열팽창에 따른 신축에 안전하도록 요철이 없는 평평하고 건조된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 거멀쪽 고정이가 단단히 박힐 수 있는 바탕구조여야 하고 단열성도 요구되므로 이에 알맞은 경량단열 P.C재로 한다.

(3) 수리기법

- 해체
 - 해체 범위
 - : 옥상층 건물, 지붕, 부속건물 3층, 북 서측 회랑, 창호 및 금고, 기존 내부마감, 기존 설비전기, 기타 복원상 필요한 부분
 - 해체 시 고려사항
 - : 해체 공·도구 및 기계의 설치장소
 - : 해체 순서
 - : 해체 발생재의 반출경로
 - : 투입인원
 - : 보강방법
 - : 안전대책 및 공해방지대책
- 경량단열 P.C면 고르기
 - 경량단열 P.C면은 지붕의 최종형상을 결정한다.
 -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동판에서는 요철을 잡을 수 없고 시공완료 후 빛이 난반사 되거나 음영이 생겨 한층 더 요철이 심하게 보인다.
 - P.C판의 제작 및 설치에 세심한 고려를 요한다.
 - 설치 후에도 가능한 완벽하게 면 고르기를 해야 한다.
 - 바탕면이 고르지 못하면 동판시공 시 동판 손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완벽한 방수를 기대할 수 없다.
- 아스팔트펠트 깔기
 - 아스팔트펠트는 동판지붕자체로 방수처리되나 시공결함에 따른 누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거멀쪽 고정용 동못과 밀착되어 이 부분으로의 우수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시공 시에는 경량단열 P.C의 표면처리가 끝난 후 브러시, 롤러,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1~2시간 경과 후 아스팔트펠트를 깔기 시작한다.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 연결부분(Over Lap)은 최소 100mm 폭으로 겹쳐서 시공하였으며 겹친 면은 롤러 등을 사용하여 강하게 눌러준다.
- 동판제작
 - 국산동판은 폭 600mm의 롤로 제작 판매되고 있다.
 - 가능한 한 낭비를 줄이고 제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600×320mm 크기로 절단하여 560×280mm로 동판을 제작한다.
 - 실제 설치 후 보이는 면의 크기는 540×260mm이다.
- 내부 홈통
 - 내부 홈통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 시중에 판매되는 동판은 폭이 600mm 밖에 안되므로 내부에 조인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땜으로 완벽하게 처리한다.
- 동판깔기
 - 내부 홈통을 설치완료한 후 내부 홈통과 최하단부 지붕동판을 납땜으로 연결한 뒤 아래에서 위로 거머쪽을 이용하여 깔아나감.
 - 연결부위의 수직수평을 정연히 맞추어 시공하였으며 접혀진 부분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더라도 납땜하여 보완한다.
 - 동의 선팽창계수는 1.7mm/100m °C로서 열팽창에 의한 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 신축이음은 미리 각재(45×45mm)를 설치한 후 각재의 양단부에서 접합 이음한다.
- 용마루
 - 설치 부위에 따라 형상 및 크기를 달리하는 다음 세 가지 형식으로 시공한다.
 - : Type-1 : 본 건물 및 부속건물의 주요 지붕
 - : Type-2 : 본 건물 및 부속건물의 기타 지붕
 - : Type-3 : 천창 및 지붕출입구의 지붕
 - 용마루와 지붕면의 접합 : Type-1에 있어서는 지붕동판을 용마루 구조틀 위까지 접어 올리고 용마루 동판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시공이 간편하고 우수 처리에서도 유리하다. Type-2 및 Type-3에 있어서는 그림과 같이 최하단 지붕동판과 접어서 연결한다.
- 돔공사
 - 돔은 본관의 외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투구형의 원형계단 2개소, 구형에 가까운 각 탑 지붕 돔 1개소 및 부속건물 첨탑 1개소로 건물 네모서리의 지붕에 자리 잡고 있다.

- 합판 붙이기

: 먼저 각재(45×45mm)를 구체 철골에 볼트로 고정시켜 중도리를 만든 다음 합판을 붙여나가는데 처음 12mm 2겹을 붙이기로 했으나 복잡한 곡면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6mm 4겹을 사용해서 붙여간다.

: 복잡한 요철면은 합판으로 붙이거나 오려내어서 형상을 만들었으며 돔의 머리 부분 등 합판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아연도철판을 공장에서 가공 제작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 아스팔트펠트 붙이기

: 프라이머의 접착력만으로는 곡면에 아스팔트펠트를 붙이기는 힘들었으므로 아스팔트를 끓여 합판면에 도포하면서 펠트를 붙인다.

- 동판 붙이기

: 지붕면과 같은 규격의 동판을 평이음식 지붕형태로 하단부 홈통에서 시작하여 상부로 붙여나갔는데 곡면 반경의 차이로 세로줄눈은 완벽하게 맞출 수 없었고 대체로 가로줄눈만 유지한다.

: 특히 원형계단 돔의 홈통 부근 시작부분은 물매가 완만하여 평이음식 지붕 형태로 완전한 방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붕판의 매 이음부분에 납땜하여 보완한다.

: 납땜 시 사용되는 황산이 동판에 묻으면 쉽게 변색되어 완공 후 자연 발색되고 후에도 색이 남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림 3-5. 돔부 합판 붙이기



그림 3-6. 돔부 홈통

• 천창 및 지붕 출입구

- 복원은 원형대로 하되 방법은 동(銅)주물 및 동판가공을 병용하였음. 일반마감까지는 모두 일반지붕과 동일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나 본 건물 천창의 지붕면만은 일반지붕면보다 구배가 약하여 평이음식으로 하지 않고 돌출이음매식으로 한다.

- 창호와 동판과의 이음이 많아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창호의 주위의 동판에 15×15mm의 홈을 만들고 그 홈에 코킹을 쏘아 방수처리했으며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은 내림마루를 설치하여 물처리한다.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 지붕장식 공사

- 단순한 장식만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이 있고 여기에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형식이 대부분이다. 원도에 충실하여 세심하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 전에 모형 등을 제작하여 접합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사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한다.
- 각종 장식물의 제작은 동(銅)주물로 제작하는 방법과 동판을 접어서 가공 제작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같은 형상의 수량이 많거나 구형일 때는 주로 첫 번째 방법을, 모양이 복잡하거나 같은 형상의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작한다.
- 용머리 등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한다.
- 첫 번째 방법에서 동주물의 최종 두께는 5mm가 적당한데 차후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 본형을 떼서 주물로 뽑아낼 때 8~10mm 두께가 되게 한다.
- 두 번째 방법에서 내부 보강판은 장식물의 형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전부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는 설치만 한다. 최종 마감인 동판을 내부 보강판 위에 대고 부분적으로 두드려서 설치하므로 내부 보강판이 정연해야 지붕장식을 깨끗하게 살릴 수 있음. 부착은 주로 볼트를 이용하거나 용접한다.
- 동(銅)이 철, 알루미늄 등의 타 금속과 접촉하면 접촉면에 습기 등으로 인해 동과 접촉된 금속은 이온화되어 수중에 용출(湧出)되어 심하게 부식됨. 따라서 이와 같은 금속과는 용접되지 않게 보강철판을 모두 아연도철판으로 사용하였으며 보강철물의 용접부위는 합성수지계통의 도료로 도장하여 절연시킨다.

- 상자흙통

- 당초에는 그냥 사각으로 되어 있었으나 보기에도 좋고 실용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사한 후 그림 자료와 같이 제작 설치한다.

- 동판 선흙통

- 크게 2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내부 흙통에서 요철형 선흙통에 이르는 부분과 요철형 선흙통에서 상자흙통에 이르는 부분은 원형(지름 50mm)으로, 상자흙통에서 지면에 이르는 부분은 각형(120×150mm)으로 제작 설치한다.
- 기존 석재 부분과 사각선 흙통이 교차하는 부분의 처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한다.
 - : 선흙통을 상자흙통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교차하는 띠석이나 장식물당을 커트해 내는 방법(석재면과 선흙통의 이격거리 90mm)
 - : 띠석이나 장식물당을 그대로 두고 선흙통을 상자흙통 끝선에 맞추어 수직으로 내리는 방법(석재면과 선흙통과의 이격거리 160mm)

- : 첫 번째 방법은 선홈통 및 상자홈통의 지지에서 다소 유리하고 보기에도 좋았으나 석재원형을 일부 훼손시켜야 한다.
- :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장·단점을 달리한다.
- : 여러 가지 검사결과 원형유지의 원칙을 강조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결정하였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도 가장 많이 튀어 나온 하단부 띠석은 약간씩 컷팅해야 한다.
- : 하단부 띠석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상자홈통 및 선홈통의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요철형 처마홈통

- 지붕면의 제일 가장자리에 외벽보다 돌출하여 설치된 홈통으로서 지붕과 외벽을 구획 짓는 중요한 부분이자, 외부장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평요소이다.
- 홈통 둘레로 동판을 복잡하게 접어서 다소 화려한 장식을 하였다.
- 형태는 본 건물형과 부속건물형의 두 가지가 있다.
- 본 건물형은 호리병 형식의 난간동자 안쪽으로 별도의 내부 홈통이 있어 홈통의 역할보다는 처마장식의 의미가 크므로 폭이 좁다.
- 부속건물형은 그 자체로 실제 홈통 역할을 하므로 폭이 넓다.
- 시공에 앞서 먼저 샘플을 제작하여 제작 및 접합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사를 한다.
- 시판되는 동판의 폭이 600mm 밖에 되지 않으므로 단면상 필연적으로 접합이 필요하였는데 시공의 편의성 누수예방 등을 고려하여 접합한다.
- 길이방향으로의 접합은 맞댄이음과 접이음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검사하였는데 맞댄이음은 시공이 간편하고 이음부분이 깨끗하나 시공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수의 우려가 있고, 접이음은 완전한 방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시공이 복잡하고 이음부분의 흔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 최종적으로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접이음으로 시공하기로 한다.
- 시공
 - : L형강으로 틀을 짠 후 내부 보강철판(1.2mm 아연도철판)을 설치한 다음 동판 붙이기를 한다.
 - : 내부 보강판은 요철형 처마홈통의 형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전부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설치한다.
 - : 최종 마감인 동판을 내부 보강판 위에 대고 부분적으로 두드려서 설치하므로 내부 보강판이 정연하고 깨끗해야 요철형 선홈통의 날카로운 선을 살릴 수 있음.
 - : 홈통 부분에 동판의 열팽창에 따른 신축을 흡수할 신축이음은 전체 홈통의 우수순환과 배치되어 이의 해결은 상당히 어려움. 여러 가지 방법을 검사한 후 전체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홈통을 매 12m마다 구획하여 구획된 각각의 홈통마다 별도의 선홈통을 설치하여, 자체 우수처리하면서 홈통의 구획부분이자 이음부분에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림 3-7. 요철형 처마홈통 (보수 후)



그림 3-8. 요철형 처마홈통과 부재의 조화

- 돔 홈통 설치
 - 돔 부분의 홈통은 길이 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어 실제 가공제작은 어렵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30m나 되어 신축이음을 4개소 설치하였는데 홈통 내부의 지름 50mm 부분에 설치한다.

1.2.3. 구)러시아공사관(미장공사)¹⁵⁾

1) 개요

- 종 목 : 사적
- 지정일 : 1977년 11월 22일
- 소재지 : 서울 중구 정동 15-1
- 구 조 : 벽돌조
- 건립연도 : 1890년
- 수리연도 : 2009년

2) 재료

- 회모르타르 : 공장에 주문하여 배합되어 나온 제품
- 모르타르 접착증강제 : 액상 혼화제
- 그물망 : 섬유재질의 방사형 그물

15)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 국가유산청, 2010, p291~301 참조..

3) 조사

(1) 설계도서 : 건물의 훼손 부위 및 현황과 원형 파악

(2) 구조안전진단

- 현황조사
 - 외부 바닥
 - 외부 벽체
 - 내부 벽체
- 구조체 내구성 조사
- 재료특성 분석
 - 점토벽돌의 물리적 성능
 - 모르타르의 화학적 분석

4) 시공

(1) 수리범위

- 건물 외벽 및 내벽 미장마감
 - 외부 벽체
 - 창호 및 기단부 돌출면
 - 페디먼트 및 장식물
 - 내부 벽체

(2) 수리 전 현황

- 전체 현황
 - 건물은 전반적으로 외벽 미장면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고 모서리부분의 균열은 벌어짐 정도가 크며 탈락 위험이 있다.
 - 적벽돌은 두꺼운 시멘트모르타르 마감과 페인트칠로 인해 수분의 배출이 차단되어 풍화의 정도가 심하다.
 - 적벽돌에 맞물려 설치된 목재 창틀은 수분 침투에 의해 대부분 부식된 상태이다.
 - 2층 창문은 아치형태에서 사각형창으로 변형된 흔적이 발견된다.
 - 건물의 최상부는 평지붕이나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우천 시 물이 고인다. 따라서 적벽돌 사이로 누수가 발생하여 적벽돌의 풍화를 가속시키고 외벽미장면의 박리를 일으킨다..
- 외벽마감
 - 대체적으로 외벽마감은 적벽돌+회반죽+시멘트모르타르+페인트칠(흰색) 순서로 되어 있다.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 부분적으로는 회반죽 바름이 생략되고 시멘트모르타르만 마감한 곳도 있다.(모서리 부분 등 마감처리가 어려운 부분)
- 부분적으로 시멘트모르타르 마감부분이 2겹인 곳도 확인할 수 있다.
- 시멘트모르타르 마감이 두꺼운 부분에는 썰기를 박아 모르타르의 부착력을 높이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썰기의 재료는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플라스틱류의 일종으로 보인다)
- 외벽 미장면과 적벽돌의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으로 보강한 부분도 있다.
- 기존 보수현황
 - 보수된 곳은 탄소섬유로 균열부분을 감싸고 에폭시수지를 덧바르거나 주입하는 식으로 처리 되어 있다.
 - 현재는 보수되었던 부분의 균열이 더 심해져 보수된 부분이 박리, 탈락된 상태이다.



그림 3-9. 미장과 벽돌을 잡아주는 썰기 흔적



그림 3-10. 철근 보강 현황



그림 3-11. 2층 사각창문 위 아치 흔적



그림 3-12. 탄소섬유와 에폭시수지로 보강한 흔적

(3) 수리절차

- 회반죽 초벌바름
 - 주문 배합된 회모르타르를 오염물질을 제거한 벽돌면에 바른 후 그물망을 부착하여 초벌바름을 한다.
- 회반죽 정벌바름
 - 초벌바름이 완전하게 양생된 후 회모르타르를 얇게 펴 바름..브러시에 물을 묻혀 회반죽에 물침을 하고 흠손으로 면을 잡는다.

(4) 수리기법 (회반죽 바르기)

- 바탕면 처리
 - 바탕면을 브러시, 흠손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재료준비
 - 회반죽
 - : 회모르타르, 물, 증강제의 양은 시공면적에 따라 달리한다.
 - : 비빔통에 회모르타르(25kg)와 물을 넣는다.
 - : 전동 믹서기로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한다.
 - : 모르타르가 일정하게 혼합되었을 때 모르타르 접착증강제를 넣는다.
 - : 전동 믹서기로 증강제와 모르타르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혼합한다.
 - 시멘트 페이스트
 - : 백시멘트모르타르와 물을 넣어 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든다.
 - : 이때 백시멘트모르타르와 물의 비율은 점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한다.
- 초벌바름
 - 벽체 상부부터 회모르타르를 흠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바른다.
 - 바름 시 벽돌 사이 줄눈에 회반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힘을 가해서 바른다.
 - 회반죽을 바른 후 그물망을 부착하여 회반죽의 접착력을 증강시킨다.
 - 그물망을 부착한 후 회반죽을 그물망 위에 얇게 펴 바른다.
 - 흠손을 사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준다.
 - 쇠브러시나 빗자루를 사용하여 면을 거칠게 만든다.
 - 원을 그린 후 원안의 회반죽을 제거하여 장식물 자리를 만든다.
- 장식물 붙이기
 - 초벌바름이 양생된 후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장식물을 부착한다.
- 정벌바름
 - 페디먼트 부분
 - : 상부 스자 전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흠손으로 바른다.

- : 시멘트 페이스트 위에 회반죽을 바른다.
- : 미리 준비한 규준대를 회반죽 위로 붙인다.
- : 스자 윗면을 흙손으로 회반죽을 바른다.
- : 모서리 부분은 ㄱ자 흙손을 사용하여 각을 잡는다.
- : 규준대를 이용하여 면의 높이를 맞춘다.
- 창호 및 기단부
 - : 벽면 아래에서부터 흙손을 사용하여 위쪽 방향으로 회반죽을 바른다.
 - : 이때 부위에 따라 흙손을 달리 사용하고 바름두께는 5~40mm로 바른다.
 - : 창호부 턱받이 부위는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바른다.
 - : 모서리 부분은 ㄱ자 흙손을 사용하여 각을 잡는다.
 - : 돌출부는 주변의 면을 먼저 바름하여 양생한 후 시공한다.
 - : 돌출부 바름 시에는 기초 모양을 잡고 1~2시간 건조시킨다.
 - : 돌출부 평면과 양쪽 모서리 부분을 흙손을 이용하여 만든다.
 - : 돌출부 양쪽 끝에서 기준점을 잡고 먹줄 등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긋는다.
 - : 기준선에 맞춰 흙손과 평행대를 사용하여 돌출면의 모양을 평행하게 잡아준다.
- 양생
 - 동절기 7일, 하절기 3일 동안 강우, 강설, 충격 등에 노출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계획의 기본방향

1.3.1. 문화유산 기본원칙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기본원칙¹⁶⁾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시행계획¹⁷⁾

-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 문화유산은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유산은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문화유산은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문화유산은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17)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국가유산청, 2002.

- 문화유산 활용의 기본방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에 따라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유산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② 주요 보존원칙¹⁸⁾

- 원형유지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으로, 원형으로의 회복은 명확한 고증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만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진정성 및 가치의 유지
 - 가치는 어떠한 대상이 문화유산으로서 인식되기 위한 요건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들은 보존을 통해 잘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신뢰성, 진실성으로서의 진정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내·외부 환경과의 조화
 - 문화유산은 외부의 주변 환경, 경관 간, 그리고 내부 구성 요소들 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원위치 보존
 - 문화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외에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문화유산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최소개입
 -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가치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조치(특히 복원)는 가능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가역성
 - 문화유산에 대해 행해지는 보존처리 등 여러 개입행위 혹은 현대의 과학적 기술을 적용한 개입행위의 경우, 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가역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역사적 층위의 존중
 - 모든 문화유산은 내·외부 환경 변화, 수리 행위,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생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시대적 층위와 각 시대에 형성된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수리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시대의 흔

18) 『문화재 보존원칙 경립 연구』, 국가유산청, 2021.

적 및 층위는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 전통기술, 구조, 양식, 재료
 - 보존조치를 하는데 있어 전통기술(기법) 및 재료의 사용과 전통 구조 및 양식의 보존은 해당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기법)과 재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법과 재료 사용, 기존의 구조 및 양식의 보존이 권장된다.

3) 국가유산 수리원칙¹⁹⁾

- 국가유산 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문화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문화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4)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수리원칙²⁰⁾

① 기본원칙

19)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청, 2023.

20)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청, 2011.

- 근대건축물 문화유산(이하 근대건축물) 수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수리는 훼손상태에 따른 외형적인 수리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이 해결되도록 한다.
-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② 수리방법

• 외형

-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및 현대적 설비인 전기, 냉난방, 방법 및 소화 설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재료

- 해체 재료 중 손상된 것은 가급적 수리하거나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 재료의 교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재료는 별도 보관한다.

• 기법

- 기존의 마감기법을 따른다.
- 기존의 이음, 맞춤 등 결구기법을 따른다.
- 기존의 기법을 따르되, 현대적인 기계장비는 건축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구조보강 등의 현대적인 기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환원 될 수 있는 기법을 채택한다.
- 해체수리보다 구조보강이 건축물 보존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를 보강한다.

• 구성원

- 설계자, 시공자, 담당원과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수리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한다.

• 조사 및 기록

- 수리 전 기존 재료, 양식,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한다.
- 수리 시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최대한 기록·보존한다.
- 수리 후 사용재료, 수리 부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조사 및 수리 내용은 도면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 작성하고 건축물 역사의 일부로 보존한다.

1.3.2. 유적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²¹⁾

1)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
 - 유적 정비계획은 유적이 지니는 가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향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체계적인 유적 정비는 단위유적 별로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토대로 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 유적 정비계획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우선하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과 더불어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되어 우리 전통문화의 독창성 확립과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정비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
 - 유적 정비의 목표는 유적이 지니는 가치(원형) 보존이 최우선한다
 - 유적의 특성에 따라 정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 명확한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을 제시한다.
- 유적복원(건물, 성곽 등)을 수반하는 경우 원형 고증을 전제로 하며, 고증이 되어도 복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중한 검토과정을 이행한다.

2)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① 유적의 가치(원형) 보존에 중점

-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정비
 - 현 단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향후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정비나 복원은 유보하고, 현상을 보존·유지한다.
 - 유적에 대한 문헌자료, 고증자료(학술조사 등)가 확보된 이후 관계전문가의 정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비 지양
 -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초석의 위치 및 건물의 배치상태 등을 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건물복원 등은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
 - 건물지 복원 시 기존 유구의 훼손이 일정부분 불가피하고, 건물 구조에 대한 확실한 고증 없이 추정 복원 시 유적의 일부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1) 『유적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 국가유산청, 2003.

-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유적의 가치와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현재 남아 있는 유구를 현 상태에서 보존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명확한 정비목표를 가지고 계획 수립

- 유적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비목표 설정
 - 유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헌자료, 발굴·고증자료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목표를 수립한다
 - 유적전시관, 자료관 등 보조시설 건립은 필요한 경우 검토하며, 계획 수립 시 위치, 규모, 내용 등은 적정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당해 문화유산 정비에 국한하지 말고, 유적과 조화로운 경관보호와 주변의 문화자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여 모두가 바라는 최적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유적의 복원·정비가 미래의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를 전제로 계획 수립

-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여 후대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다.
- 1단계로 유적의 현상보존을 위한 문화유산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는 유적 원형보존 차원의 보수·정비와 함께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유구를 정비한다.

• 보존, 복원·정비되어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

- 유적 중에서 원형을 보존해야 할 대상을 우선적으로 정한 후, 보존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며, 복원은 그 효과가 높은 부분에 한하여 계획한다.

③ 현실성 있는 실천수단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유적 정비 시 필요한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농지법, 산림법 등
 - 주변 경관보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 관계와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 검토
 -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 수립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유적의 원형보존을 위한 자원(토지매입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확충 등을 위한 자원투자계획은 후순위로 한다.
-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 기반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3. (구)인천우체국 문화유산정비 세부구상

1) 정비방향 설정

- 문화유산 연구, 실측
 - 복원 시점 연구
 - 정밀실측조사, 도면 작성
- 구조분석 및 설계
 - 공공건축기획용역
 - 건축구조 특성 연구
 - 건축재료 특성 조사
 - 기본, 실시설계
 - 활용리모델링
- 보수, 복원
 - 외관 고증 복원
 - 내부 시설물 복원
 - 배수 및 누수 점검 보수

2) 유지관리 및 향후 과제

- 주변 환경 정비
- 원형 추정(내부 공간 및 의장)

2. 기본개념

2.1. 정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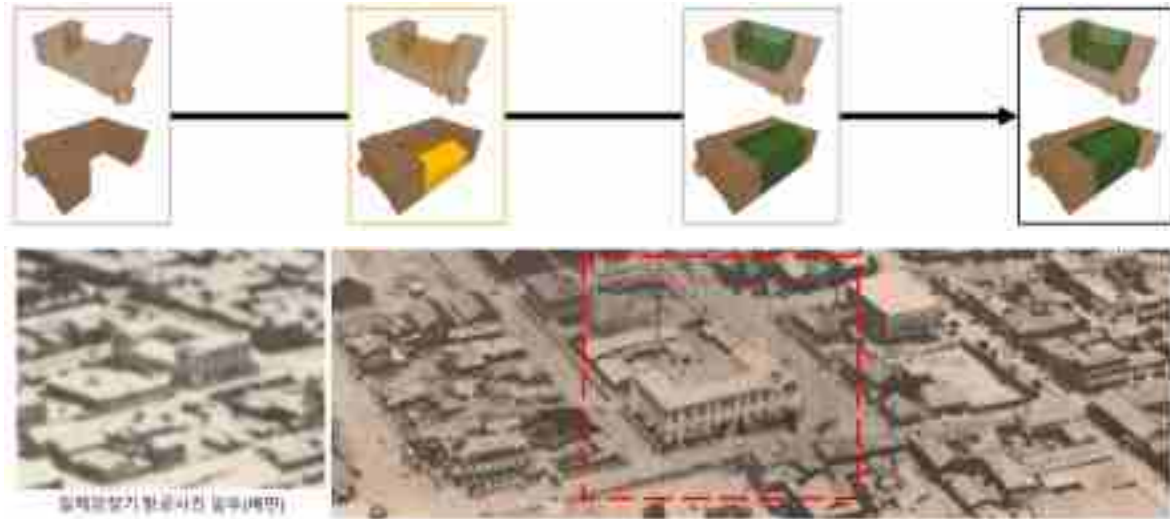
- 역사성 정립
 - 1923년 지어진 인천우체국 청사는 지난 100년간 우체국으로 활용되었다.
 - 건축물 외형이 잘 유지되고 있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 원형고증
 - 원형이 상대적으로 동시대의 문화유산에 비해 잘 남아있지만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변형·훼손되어 원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보수정비
 - 현재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는 정비 방법이 필요하고 향후 활용을 위한 구조 개선,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
- 활용 및 지속보존
 - 과거 활요하던 우체국으로서의 기능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한 활용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훼손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2.2. 원형정의

2.2.1. (구)인천우체국 원형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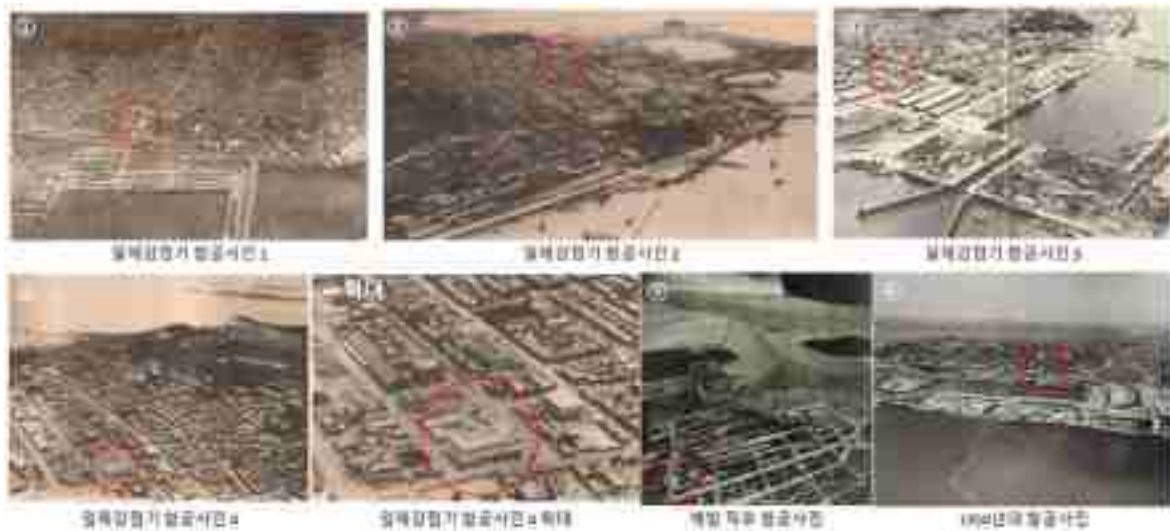
- 건립 당시(1923년 건립 직후)를 원형으로 정의한다.
- 인천우체국의 건립 이후 개보수를 통하여 덧대어지고 추가된 건축물이 있어 형태상으로 초기와 현재는 변화가 있지만 단순하게 원형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우체업무 용도로 건립되어 근래까지 우체국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증축/개축 과정이 있었지만 사용시간과 쓰임의 변화에 따른 역사의 한부분으로 보고, 원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향후 원형연구(문화유산 가치고증연구)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 확인된 초기 건축물은 ‘ㄷ’자형으로 구성된 외벽과 지붕, 출입문 등이며, 배면 중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2층의 공간과 화장실은 건립 이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 별관동과 수위실 역시 해방 이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2.2.2. 사진 및 도면자료 분석

- 일제강점기 항공사진 및 이후 항공사진
 - 일제강점기 항공사진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주변 현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하다.(1930년대로 추정).
 - 해방 이후는 해방 직후와 1950년대 이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확인 가능하다.



• 인천광역시 항공사진

- 1947년, 1967년, 1986년 이후 매년 항공사진이 존재한다.(현황 비교 가능)



•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사진자료

- 일제강점기 사진자료는 대부분 엽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1923년 이후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해방 직후 사진자료는 보고서(미군, 경찰 등)에 수록된 사진자료이다.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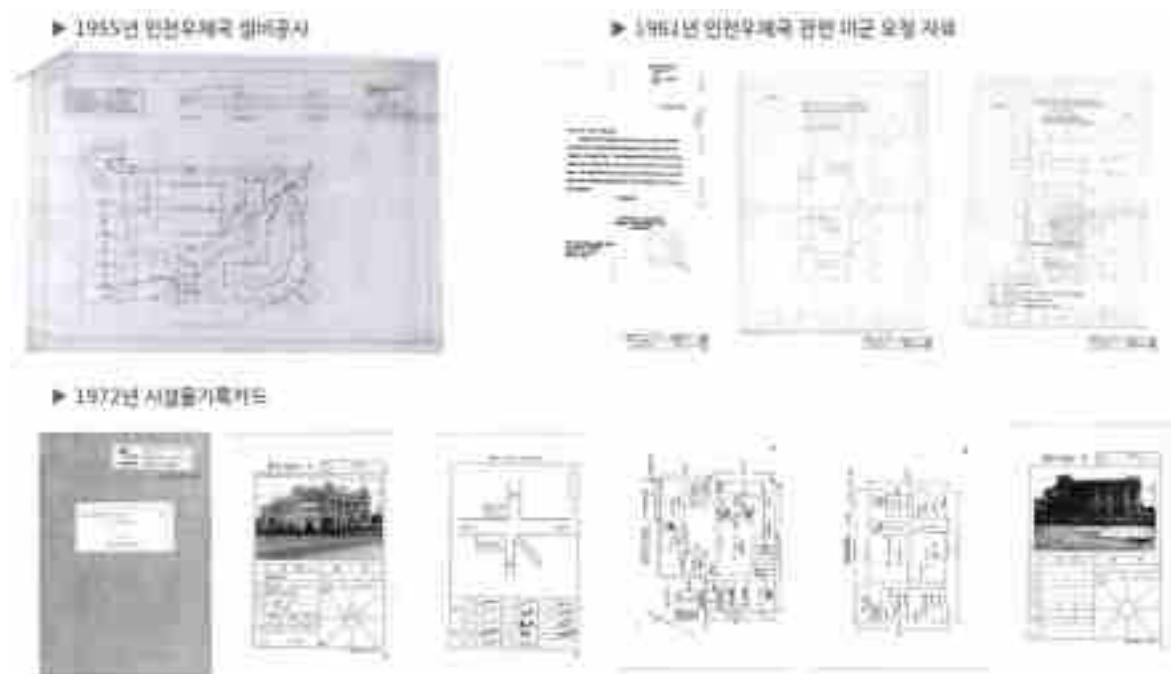
- 도면자료
 - 인천우체국 보수공사 설계도서 (1984년)



- 인천우체국청사 대수선공사 (2003년)



2.2.3. 기존 보고서



2.3. 보존기준

2.3.1. 보존기준 설정

1) 유적의 역사적 의의

- 인천우체국은 일제강점기 지어진 인천 최초의 상업우체국이며 최근까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해온 근대건축물이다.
- 대단위 필지(간척지)에 지어진 건축물로 일제강점기 당시 건축양식(절충양)을 확인할 수 있는 근대건축물이다.
- 시대의 변화·우체국의 용도 변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2) 보존기준

- 외벽은 지속적인 보수공사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원형에서의 변화가 가장 적게 일어나 과거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현상유지 및 일부 원형복원한다.
- 내부 공간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자료 확보(옛 사진 등)가 우선시 진행되고 이후 보존·활용한다.
 - 내부 공간은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과거 형태에 대한 자료 추가 확보 필요
- 창호는 2003년 대수선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며 일제강점기 사진 자료 등 창호자료를 참조하여 원형복원한다.
 - 현재 창호의 다수가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원형(형태, 재료, 제작기법 등)이 아닌 것으로 추정
- 본관동을 제외한 별관, 수위실 등은 현황을 유지정비하여 활용하되 원형복원 시 철거 고려

2.3.2. 보존 방식 구분

1) 보존 방식별 정비개념 정의

- 현상유지
 - 향후 연구를 통한 변화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상태로 유지가능한 부위
- 원형복원
 -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 고찰 이후 공법, 재료 등 복원이 가능한 부위
- 활용개선
 - 이미 훼손이 상당히 진행되고, 원형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대상으로 활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위

2) 건축 요소별 방식 구분

- 배치(현상유지)
 - 현재 배치 유지 보존 활용
- 입면(원형복원)
 - 보수 및 선홈통등 변경부분 복원
- 평면(활용개선)
 - 정밀실측 이후 변경 부분과 과거 형태에 대한 연구 후 정비
- 구조(활용개선)
 - 현재 구조체는 조적조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다. 정밀실측 이후 정밀구조점검 후 정비
- 벽체(원형복원)
 - 조적벽 재료 및 시공법 연구 후 정비
- 창호(원형복원)
 - 사진자료(일제강점기 엽서)를 활용하여 원형 복원
- 마감(활용개선)
 - 1923년~현재 변화상 확인자료 확보 후 활용계획에 따른 정비 (천장마감, 내부 벽체 마감, 바닥재)

3. 정비계획 상세

3.1. 건축 요소별 정비 상세

3.1.1. 배치

1) 정비 계획 상세

- 인천우체국 내 현재 3동의 건축물 위치.
- 본관동은 인천우체국으로 건립 이후 현재까지 위치.
- 별관동은 건축물대장상 1988년도 사용승인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 수위실은 형태와 크기가 2003년 대수선 공사 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 현재 배치 유지 보존 활용(현상유지). 단, 원형 복원시 별관동과 수위실 철거



그림 3-13. 1986년 항공사진 : 별관동 건축전



그림 3-14. 1994년 항공사진 : 별관동 건축후



그림 3-15. 좌 - 1984년 배치도 : 수위실 건축후, 별관동 건축전



그림 3-16. 중 - 2003년 배치도 : 수위실, 별관동 건축후



그림 3-17. 우 - 2023년 항공사진 (현재) : 수위실, 별관동 유지

3.1.2. 입면

1) 정비 계획 상세

- 출입구가 있는 정면, 우측면과 좌측면은 초기 원형에 대한 자료(엽서, 항공사진 등)가 있음.
- 초기에는 옥탑부에 장식기둥이 있었으나 해방 이후(45년 이후) 사라짐.
- 좌측면에 선홍통과 빗물받이의 형태와 위치가 변경됨.
-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고, 원형고증할 초기 자료가 있어 원형 복원정비.



그림 3-18. 인천우체국 정면 (1920~1930년대)



그림 3-19. 인천우체국 정면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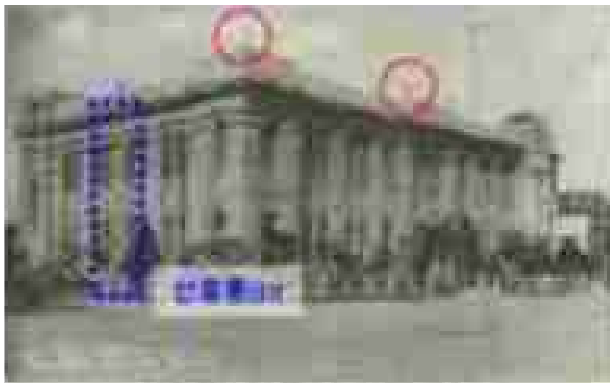


그림 3-20. 인천우체국 측면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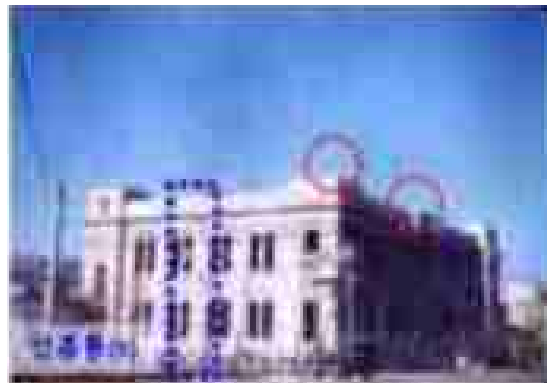


그림 3-21. 인천우체국 측면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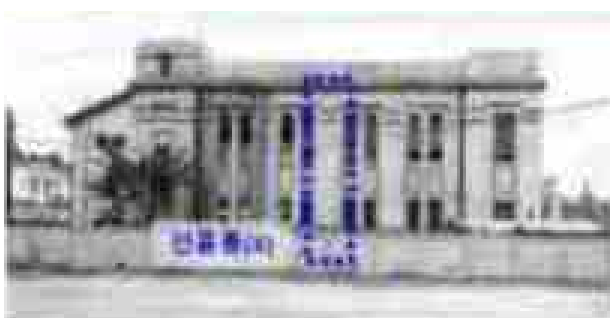


그림 3-22. 인천우체국 측면 (1972년)



그림 3-23. 인천우체국 측면 (2023년)

3.1.3. 평면, 구조, 내부마감

1) 정비 계획 상세

- 건축물의 평면원형 및 내부형태는 초기 자료(도면, 사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1984년 공사도면이 첫 번째 자료이다.
- 평면형태와 내부마감에 대한 정비는 건축물 정밀실측 이후 활용과 과거 형태에 대한 연구진행 이후 정비계획 수립 필요.
- 구조에 대한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배면에 위치한 증축부 상부 지붕구조 변경(2003년)이 확인된다.
- 현재 구조체는 조적조로 보강이 필요하다. 정밀실측 이후 설계 시 정밀구조점검 및 정비검토



그림 3-24. 인천우체국 1, 2층 평면도 (1984년)



그림 3-25. 인천우체국 1, 2층 평면도 (2003년)

Ⅲ. (구)인천우체국 보존 방안



그림 3-26. 2023년 현장조사 (좌 : 로비 / 우 : 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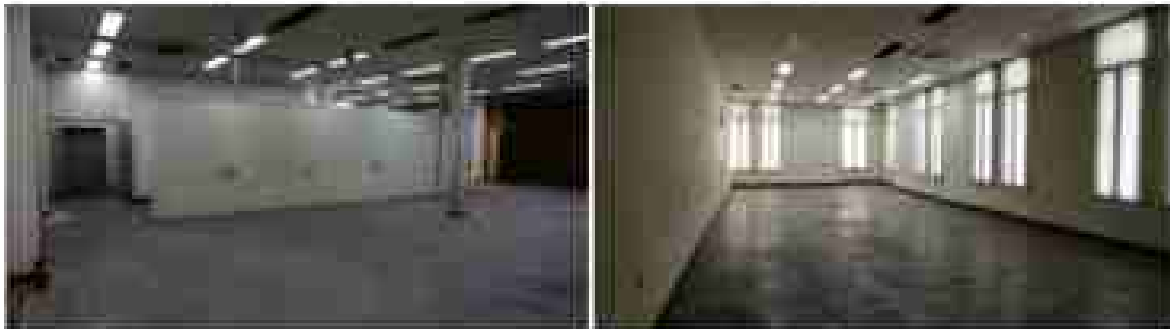


그림 3-27. 2023년 현장조사 (좌 : 1층 증축부 / 우 : 2층 실 내부)



그림 3-28. 2023년 현장조사 (좌 : 보 보강철물 / 우 : 1층 조적벽)

3.1.4. 창호

1) 정비 계획 상세

- 창호는 2003년 정비공사시에 교체한 것이 확인되며 과거 초기 형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 건립 초기에서 해방 이전까지 바깥에는 덧창호가 양여달이 창호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에는 들어열개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 현재 덧창호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창호는 들어열개창으로 방식은 동일하지만 재료와 형태의 차이가 확인된다.
- 초기 창호의 사진자료(일제강점기 엽서)를 활용하여 원형 복원한다.



그림 3-29. 창호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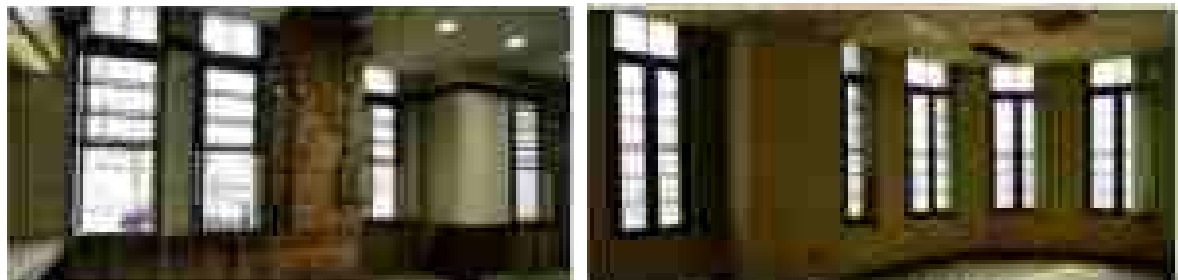


그림 3-30. 2023년 현장조사 (창호 내부 1)



그림 3-31. 2023년 현장조사 (창호 외부)



그림 3-32. 2023년 현장조사 (창호 내부 2)

3.2. 연구계획

3.2.1. 문화유산 가치 고증 연구

- 인천우체국 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고증 연구
- 기존 자료에 대한 분석(자료의 역사적, 건축학적 의미)을 통하여 원형 고증 및 문화유산 가치 재정립
- 추가적인 사진, 도면 자료 확보를 위한 세미나, 학술대회, 전시회 등 전문가와 시민 참여 유도

3.2.2. 건축 구조, 재료 및 시공연구

- 현재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인천우체국 건축물에 대한 건축 구조적 거동 특성 연구
- 조적조(적벽돌+모르타르)인 우체국 건축물에 관한 건축 재료적 특성 연구
-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공 연구
- 기존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검토와 실측조사 이후 정밀구조안전성평가를 통하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

3.2.3. 유지관리 방안 연구

- 조적조 건축물의 외벽에 회벽과 도장이 탈락되는 고질적인 현상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연구
- 기존 배수 시스템에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량의 우수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연구

3.3. 건축구조안정화 및 활용을 위한 보존 정비

3.3.1. 정밀실측

- 인천우체국은 수리공사 시(1984년, 2003년) 작성된 도면이 있으나 만들어진 시기가 이미 20년이 지나 현황에 대한 실측이 필요하다.
- 3D스캔을 활용하여 정밀실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도면을 작성한다.
- 정밀실측시 내부 벽체와 바닥, 천장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여 현황을 확인한다.

3.3.2. 복원정비 계획설계

- 원형복원연구와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반영한 기본 설계를 진행하여 향후 정비 방향을 계획한다.

- 활용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 활용계획에서 사용될 활용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3.3.3. 활용 콘텐츠 제작

- 시범 운영을 진행한 활용 콘텐츠를 보완·보강하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갱신을 진행한다.

3.4. 유지관리

3.4.1. 긴급보수 및 복원정비

1) 긴급보수

- 외벽은 훼손이 보이는 상태이며, 옥상층의 방수층이 훼손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배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배수관로, 선홈통 등에 긴급한 훼손이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될 때 검토 후 진행한다.
- 외관 및 내부시설(계단, 천장 등)에 대해 점검 후 진행한다.
- 긴급한 보수 건에 대해서는 보수, 복원공사 시 반영하여 우선 보수하도록 한다.

2) 보수 및 복원 정비

- 복원연구를 진행한 이후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복원정비설계를 기준으로 정비를 진행한다.
- 훼손된 구조체 및 부재를 보수하고, 창호 및 내부시설을 개선한다.
- 활용콘텐츠를 실행해본 뒤 점검하여 내부시설을 개선한다.

3.4.2. 모니터링

- 벽체, 지붕, 내부 시설물 등 주요 부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1회씩 매년 진행한다.

3.4.3. 일상정비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훼손부분을 보수정비한다.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1.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개요
2.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3. 보존 활용 방안 검토

1.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개요

1.1. (구)인천우체국의 활용 가치

- (구)인천우체국은 건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개항기 근대문화유산이자 최근(2019년)까지 실제 사용한 문화유산이다.
- 건립 당시부터 우체업무 용도로 건축되었고, 인천우편국으로 시작하여 인천우체국으로 끝날 때까지 용도와 외관의 큰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으나 제물포 개항기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 개항기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구)인천우체국은 높은 활용 가치가 있다.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으로서 개항기 지역의 주요 근대문화유산
 - 원도심과 제물포르네상스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입지
 - 개항장박물관, 짜장면박물관, 근대문학관, 인천세관 역사공원 등 개항기 유산 벨트 형성 가치
 -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중요 문화유산으로서 역할



그림 4-1.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1.2. (구)인천우체국 건축개요

표 4-1. (구)인천우체국 건축개요 (2003년 5월 대수선공사 기준)

구분			내용			비고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 6가 1-1번지			대지분할
대지면적			1,850.7㎡			분할면적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 과밀억제권역, 문화지구, 특별관리해역			
구분			우체국(본관동)	우체국(별관동)	계	
총 별 면 적	본 청 사	1층	905.40	171.60	1,077.00	
		2층	881.30	171.60	1,052.90	
		소 계	1,786.70	343.20	2,129.90	
	수 위 실	1층	22.50		22.50	
		합계	1,809.20	343.2	2,152.40	
건축면적			1,099.50			927.90+171.60
연면적			2,152.40			
건폐율			(1,099.50 / 1,850.70) X 100 = 59.41%			일반상업지역 70% 특화경관지구 50%
용적율			(2,152.40 / 1,850.70) X 100 = 116.30%			1,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철골조			
조경면적						
주차대수			7대 (기존 우체국 주차대수)			인천광역시 주차장조례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100㎡당 1대
비고			- 지적상헌 대지분할 경계선이 건축물과 겹쳐있음 - 특화경관지구 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 건축기획및 인허가 진행시허가권자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협의필요(건폐율, 대지경계선)			

1.3.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1) 개요

- (구)인천우체국의 활용 방안은 총 4개의 안을 제안, 검토한다.
- 1안은 우정통신박물관, 2안은 미술관, 3안은 주민 편의 복합 문화 시설, 4안은 인천 문화유산 실감체험 시설이다.

2) 검토사항

- 준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 연면적 1,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구조안전확인, 건축사 상주감리, 소방차 접근통로 확보, 정기안전점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연면적 3,000㎡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해당없음
- 주차대수 검토 : 관련 규정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인근(경계선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 확보 검토
 - 공공주차장, 공용부지 활용 또는 주차장 부지매입,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 등 검토

표 4-2.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별 검토사항

구분	용도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	구조안전진단	외부보존	내부 리모델링	설비	주차 대수
인천우체국(현황)	공공업무시설	대수선	-C등급:2018년 구조정밀안전진단 -D등급:정기안전점검	현상유지 및 일부 원형복원	부분 개보수	부분 개보수	7대
우정 통신 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용도변경, 대수선	-C등급:보수보강필요 -D등급-긴급보수보강 필요	현상유지 및 일부 원형복원	전면 개보수	전면 개보수	22대
미술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용도변경, 대수선	-C등급:보수보강필요 -D등급-긴급보수보강 필요	현상유지 및 일부 원형복원	전면 개보수	전면 개보수	22대
주민 편의 복합 문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용도변경, 대수선	-C등급:보수보강필요 -D등급-긴급보수보강 필요	현상유지 및 일부 원형복원	전면 개보수	전면 개보수	22대
인천 문화유산 실감 체험 시설 (하이커그라운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용도변경, 대수선	-C등급:보수보강필요 -D등급-긴급보수보강 필요	현상유지 및 일부 원형복원	전면 개보수	전면 개보수	22대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3) 예상 사업비 (활용 부문 리모델링 사업비)

- 1안 : 우정통신박물관, 약 64억 5천4백만원
- 2안 : 미술관, 약 71억 3천2백만원
- 3안 : 주민 편의 복합 문화 시설, 약 50억 천9백만원
- 4안 : 인천 문화유산 실감체험 시설, 약 66억 8천4백만원

표 4-3.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별 예상 사업비

사업	사업내용		추정사업비
1안 우정 통신 박물관	총괄		6,454,000,000
	본관	근대화의 창구, 통신의 발전 /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 우편과 우표, 의복체험, 미디어실, 챌린지, 운영사무실	6,454,000,000
	별관	수장고	별도
	용도별		
	기반시설	복도, 화장실, 기계, 전기, 소방 설비	178,000,000
	박물관	전시, 체험, 사무시설	6,276,000,000
	보수,복원공사 / 소장품 수집, 수장고 별도 사업		
2안 미술관	총괄		7,132,000,000
	본관	상설전시관, 근현대미술전 / 현대미술전(영상,시각), 지역예술가전, 인천공연예술전	7,132,000,000
	별관	수장고	별도
	용도별		
	기반시설	복도, 화장실, 기계, 전기, 소방 설비	178,000,000
	미술관	전시, 체험, 사무시설	6,954,000,000
	보수,복원공사 / 소장품 수집, 수장고 별도 사업		
3안 주민편의 복합문화시설	총괄		5,019,000,000
	본관	육아지원, 카페, 놀이체험, 실내체육공간, 쉼터 / 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 도서관, 도시재생지원, 운영업무	3,989,000,000
	별관	운영지원 / 준비실	1,030,000,000
	용도별		
	기반시설	복도, 화장실, 기계, 전기, 소방 설비	221,000,000
	문화시설	전시, 체험, 사무시설	4,798,000,000
	보수,복원공사 / 도서 및 소품 수집, 콘텐츠 기획 별도 사업		
4안 인천문화유산 실감체험시설	총괄		6,684,000,000
	본관	전시, 굿즈샵, 근대그라운드, 편집, 창고 / 챌린지, 축제체험관, 아트리움, 운영사무실	5,654,000,000
	별관	아트리움	1,030,000,000
	용도별		
	기반시설	복도, 화장실, 기계, 전기, 소방 설비	221,000,000
	체험시설	전시, 체험, 사무시설	6,463,000,000
	보수,복원공사 / 콘텐츠 기획 및 운용 별도 사업		

2.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2.1. 1안 : 우정통신박물관

2.1.1. (구)인천우체국의 역사성

1) 개요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83
- 설립연도 : 1923년
- 설 계 : 조선총독부 체신국 영선계
- 규 모 : 4,483.6m²
- 구 조 : 붉은 벽돌조 + 목조, 지상 2층
-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8호
- 지정일 : 1982년 3월 2일

2) 연혁

- 일본은 인천에서 개항 이전인 1882년 11월부터 우편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편국 업무는 공문 수발신이 전부였다.
-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일본인이 늘어나자 서신 왕래가 증가했고, 이에 인천 일본영사관은 1883년 12월 우편 사무개시를 공포했다.
- 1884년 4월, 영사관 관사로 세워진 건물을 개조해 우편 업무를 취급하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운행하는 협동조합기선과 삼릉(三菱, 미쓰비시)기선이 우편물과 물자를 싣고 오가게 되었는데, 이는 인천과 일본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 인천우편국에서는 경성 지역의 우편 업무도 취급, 1888년 7월 11일, 경성 일본공사관 내 인천우편국 출장소가 개설되어 경성 지역 우편물 집배 업무를 하였고, 1891년 12월에는 인천 4곳 서울 2곳에 우편함이 설치됐다.
- 인천에서 거주하던 서양인들 역시 일본인이 만든 우편국을 이용하면서 우편 업무는 더욱 급증하게 되었고, 1896년 12월 3일, 영사관 안에 우편국 건물이 새로 만들어진다.
-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05년 5월 20일 일본 인천우편국은 조선 정부로부터 인천우체사, 인천전보사, 인천읍 임시 우체사, 부평·강화·교동 우체사의 업무를 인계했다.
- 우편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1922년 12월 1일, 신청사 건축에 착수했다.
- 1923년 12월 8일 항동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했다.
- 해방 후인 1949년 8월, '인천우편국'에서 '인천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표 4-4. (구)인천우체국의 우정 통신 연혁

연도	내용	비고
1884.04.23	우정총국 개설	종로구 (현 체신기념관)
1884.10.01	서울~인천 간에 신식우편제도 실시	
1884.11.18	우정분국(인천분국)설치	일본영사관
1884.10.21	우정총국 혁파	갑신정변 발발
1885	인천~서울, 서울~의주 서로전선 가설	
1893	내체우신(국내)와 외체우신(국외) 업무를 담당하는 전우총국 개설	조선전보총국확대개편
1895.06.01	서울과 인천에 우체사설치	우편사업 재개
1896.07	서울~인천~의주선 개통	
1904.02.22	우편 전신에 관한 특권을 일본 정부로 함	한일의정서 체결
1905.03	전국 각지에 전보사 설치	
1905.04.01	통신기관 합동 협정서 체결 → 우편시설 모두 일제로 편입 / 우편 + 금융 업무 시행	한일통신합동운영협정
1910	조선총독부 관할로 변경	경술국치
1923.12.10	인천우편국 신축	구 인천우체국
1931	전시체제의 연락 수단으로 운영 (국내, 국외)	만주사변
1948.0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체신부가 우편업무 담당	자주적 우편사업 시행
1949	인천우편국 → 인천우체국	구 인천우체국
1950	우체국의 피해 → 군사우체국의 군사우편 개시 / 인천우체국 파손	6.25전쟁
1957	인천우체국 복구	
1966	1면 1우체국 실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1883년 : 인천항 개항 → 국외와의 다양한 교류 시작
- 1884년 : 서울 성내 우편배달은 1일 2회 / 서울~인천 간은 당일 배달
- 1884년 : 외국 우편교환 가능 (일본 중개) - 자국민 거의 사용 불가 (일본의 허가 필요)
- 1897년 5월 : 재한 일본우체국을 통해 이뤄지던 외국우편을 자립적으로 개정조약 후 시행 (선진국과 동일한 제도, 체계 확보) → 한일의정서로 불발
- 1944년 이후 :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해지면서 긴급우편제도만 실시 (공문서, 전쟁 관련 업무 우편물 등)
- 1948년 : 체신의 자주성 확립, 통신사업의 정비확충, 우체국의 1면 1국 설치 등의 정책을 내걸어 우편사업 재건에 착수 → 1966년 달성

3) 인디텔

- 인디텔 (INDITEL : Incheon Database &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 서울의 하이텔과 별개로 인천 내 정보통신망 개설
 - 인하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배해영 교수
- 우리나라 최초 지역 정보통신망
-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통신망(일명 'PC통신')이 쇠락하기 전까지 대표 정보통신망
- 체신부가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 알림 마당, 편리한 생활, 교육, 전문 정보, 인디텔광장, 교육망, 기업망 등에 정보 제공
- 홍보관 : 인디텔 서비스, 초중고생을 위한 컴퓨터 교육장, 국내 유수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첨단 기자재, 각종 소프트웨어를 전시/전산 교육,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 기술 자문
- 참고문헌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2023.04.26, 우리나라 최초 지역 정보통신망 '인디텔' 아시나요?
 - 정보화 사회와 지역 정보화 - 인천정보통신센터 : 인디텔, 1994, 대한전자공학회



그림 4-2. 인디텔 단말기



그림 4-3. 인디텔 홍보지



그림 4-4. 인디텔 개통식 광고



그림 4-5. 인디텔 홍보관

표 4-5. 인디텔의 연혁

연도	내용	비고
1993.07.19	인디텔 개통식	인천직할시청 대회의실
1993.11.18	인디텔홍보관 개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995.12	인디텔의 적자화	이후 사라짐

4) 인천우체국 역사의 중요성

- 1883년 인천항의 강제 개항으로 국외로의 교류가 수월해지면서 개항지마다 일본 우편국을 설치했다.
- 서울과 인천을 잇는 서로전선(1885)은 서울~부산의 남로전선(1888년08월18일)보다 일찍 개설되었으며, 서울~인천 우편 업무가 수월해졌다.
- 우정총국을 중심으로 인천의 분국을 뒤 우체국 업무를 시행하였으며, 우편 업무는 우체국이 위치하는 서울, 인천, 의주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 또한, 국내 우편의 경우 인천~서울~의주선이 연결되어 우편 업무가 더 수월해졌다.
- 1893년 다시 우체국 업무를 되살리기 위한 전우총국의 개설 시에도 서울과 인천에만 우체사가 설치되었던 것과 전우총국에서 국내, 국외 우편 업무를 보았던 기록으로 보아 서울, 인천 우체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우체국 업무를 하기 시작한 1948년이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우체국이 설치되기 시작한다.
- 따라서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외 우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3곳이며, 인천이 그중 한 곳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서울과의 우편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첫 지역으로 의주와 함께 인천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
- 따라서 서울(한성)과 의주에서 온 우편은 인천을 통해서 국외로 전달되었으며, 국외에서 온 우편물도 인천을 통해 서울로 전달됐다.

2.1.2. 우정통신박물관 사례 조사

1) 우정박물관

- 1884년 홍영식 선생의 우정총국 설치로 시작된 근대 우정의 시작에서부터 2000년 우정사업본부 출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우정의 발자취와 사료를 전시하고 교육·문화공간 제공
- 우편뿐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우체국 업무 전반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집배원복과 우체통의 변천, 세계 각국의 우체통 등을 전시
- 현재 천안시티투어와 연계하여 관람객들을 위한 천안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 탁본·편지쓰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하여 이야기가 있는 즐기며 배우는 박물관으로 변화

표 4-6. 우정박물관의 연혁

연도	내용	비고
2004.02	우정박물관 이전 개관	충남 천안 우정인재개발원 내
1985.05	우정박물관 개관	서울중앙우체국
1972.12	체신기념관 개관	종로구 견지동 39-7
1950.06	6.25전쟁으로 박물관 소실	
1945.08	체신국 청사로 박물관	현 세종문화회관 부근
1938.03	체신박물관	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그림 4-6. 우정박물관 입구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그림 4-7. 우체통의 역사



그림 4-8. 1전시실 전경 1



그림 4-9. 1전시실 전경 2

2) 우표박물관

- 우편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우표는 1840년 영국에서 우편요금 선납의 목적으로 탄생.
- 본래의 목적 외에 한 국가의 역사·문화·정치·경제·자연을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진화.
-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첨단 인쇄 방법으로 제작, 보급.
- 1884년 근대식 우편제도의 도입과 함께 발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우표 역시 지금까지 다양하게 발행.
- 우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제와 종류가 다양하여 많은 사람에게 수집품으로서 사랑을 받아옴.
- 현재 우표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VR 전시와 우표를 주제로 한 플래시게임을 통해 우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있음.

표 4-7. 우표박물관의 연혁

연도	내용
2008.11	우표문화누리 개관
2009.01	우표박물관 홈페이지 오픈(www.kstamp.go.kr)
2009.06	명동 거리 우표문화장터 개최
2010.05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일 제도 시행
2011.12	우표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재개관
2021.11	우표박물관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선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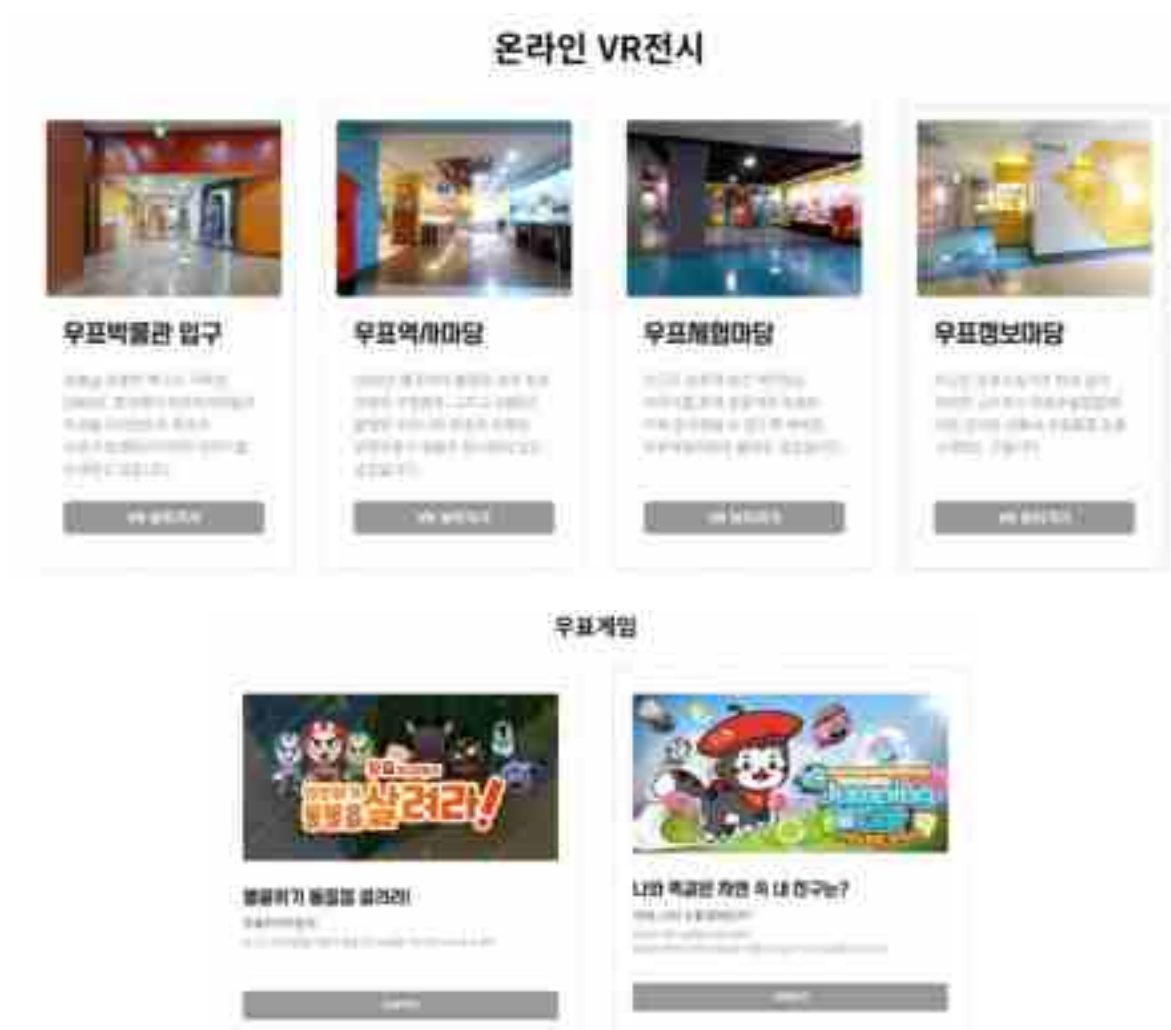


그림 4-10. 우표박물관 전시 내용

3) 런던 우편 박물관 (The Postal Museum)

- 영국 우체국의 역사와 통신 기술의 발전을 전시하며, 방문객들에게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
- 약 500년의 우편제도 역사를 가진 만큼 우편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 배달 교통 수단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음.
- 우편 유산 신탁(Postal Heritage Trust)이 운영.
- 2004년 영국 우편박물관 및 기록 보관소(The British Postal Museum & Archive)로 시작.
- 2017년 7월 28일 런던 중심부에 우편 박물관(The Postal Museum)으로 개관.
- 우편과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화, 보존하고 다양한 전문 박물관 및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우편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 된 아카이브 자료를 제공.
- 박물관 내 독특한 장소(Courtyard, Mail Rail)를 대여하여 리셉션이나 회의, 피로연,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함.



그림 4-11. 아카이브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그림 4-12. 장소 대여 서비스



그림 4-13. 상설전시실

• 체험프로그램

Mail Rail Explore	Mini Designers	Tunnel Wal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il Rail은 런던 지하의 역사적인 우편 열차 시스템으로, 방문객은 Mail Rail Explorer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 우편 열차를 타고 역사적인 지하 터널을 탐험 • 벽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193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인터랙티브한 전시 체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i Designers(나만의 우편 유니폼 만들기): 다양한 직물,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나만의 우편 유니폼 디자인 • 미니 메이커스(나만의 선행 패치 디자인) 친구, 애완동물 또는 지구를 돕기 위해 행한 선행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자신만의 패치 디자인 • 시간을 통한 우편 여행(스토리 텔링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가이드가 1900년대 초 건설부터 20세기 중반 전성기, 2003년 폐쇄까지 100년 동안 지하철을 건설, 운영, 유지한 직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메일 레일 터널 도보 탐험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 - 체험 전시

우편물 배달 체험	역할 체험	소포 분류체험
		
Post and Play (5세 미만 아동과 부모님만 이용 가능)	나만의 우표만들기	진공관 우편배달 체험
		

4) 국립 우편 박물관 (National Postal Museum, 미국)

-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우편박물관으로 미국 우편 서비스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우표가 전시된 박물관.
- 1993년 7월 30일에 개관하였으며, 1914년에서 1986년까지 워싱턴 D.C.의 우체국 중 하나로 사용.
- 1993년 US포스탈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와 세계 최대의 박물관 및 연구 단지 중 하나인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가 공동 주관하여 정식으로 개관.
- 국립 우편박물관은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일부이다. 스미소니언 소속 박물관으로서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고 대중과 공유한다는 기관의 사명을 따름.
- 미국과 전 세계 우편 서비스의 역사에 관한 많은 전시물과 우표를 보유.
- 구글 Art&Culture와 연계하여 가상박물관 투어 제공.
- 우편과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화, 보존하고 다양한 전문 박물관 및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며 600만 점이 넘는 소장품에 관한 컬렉션 검색, 주제별 탐색 등을 지원.



그림 4-14. 국립 우편 박물관 전경 (미국 워싱턴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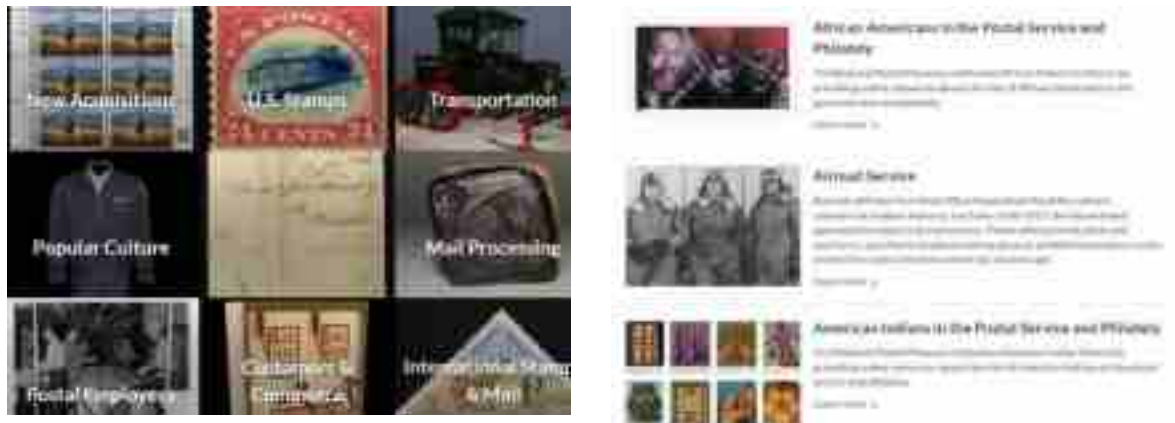


그림 4-15. 아카이브 서비스 (컬렉션 검색 및 주제별 탐색 기능)



그림 4-16. 박물관 내부



그림 4-17. 장소 대여 서비스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 체험 전시

우표를 주제로 한 미디어형 전시	우표 가져가기	우표 퍼즐
		
터치테이블을 통한 나만의 우표만들기	엽서 쓰기	소포 주소에 맞게 넣기
		

• 지원 프로그램

아이를 위한 교육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위한 교육 활동 지원 • 우편과 우표에 관한 이야기 컬렉션 • 교육 활동 자료 지원 • 틀린그림찾기, 퀴즈 등 	

2.1.3. 활용 방안

- ‘인천’은 신문물을 처음 만나는 공간이며, ‘근대’, ‘최초’와 연결되어 새로운 문물을 만나는 공간이미지.
- 우편과 통신을 아우르는 전시로 근대 우편과 통신의 발전과정을 담음.
-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와 전화의 시발지이며 통신에 선구적인 인천 강조.

표 4-8. 전시구성 및 연출

구분	소주제	주요전시물	의도	연출방법
프롤로그	소개	-	• 전시소개 • 관심유도	• 패널 및 자료사진
역사	근대화의 창구	• 사진자료 • 영상자료	• 인천우체국의 변천 • 과거 근대화의 창구였던 인천에 대한 소개	• 패널 및 자료사진 • 영상
통신의 발전	통신의 발전	• 전신기 • 전화기 • 통신기 • 전보	• 과거에 사용했던 통신기기 알기	• 패널 및 자료사진 • 관련 실제 소장품 전시
우체부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	• 집배원 복장 • 집배원 소품 • 사진자료	• 집배원 변천 알기 • 집배원 소품의 종류 • 체험활동	• 패널 및 자료사진 • 관련 실제 소장품전시 • 인터랙티브 전시
우편과 우표	우편과 우표	• 우표 • 엽서 • 우체통 • 우편배달 수단(운송)	• 과거에 사용했던 우편과 우표들을 확인 • 체험활동	• 관련 실제 소장품전시

1) 1층 및 부속동 활용 방안

1. 메인 통로	2. 카페 + 굿즈샵	3. 근대화의 창구
인천 관광 안내 시설 제공 박물관 안내소	카페 및 쉼터 재생사업과 연계 하이커그라운드와 연계	• 인천우체국의 변천, 과거 근대화의 창구 역할을 한 인천 소개 •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 • 등대의 효시인 팔미도 등대 • 최초의 철도 경인선
4. 통신의 발전	5. 체험관	6. 챌린지
• 전신기, 전화기, 통신기, 전보 등 통신 발달과정에 관한 전시 • 한국 최초의 관용, 민간용 전화를 설치한 전화의 시발지 •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시작	• 예전 통신기기들을 직접 만져보고, 통신해보는 체험 • 영상물을 통한 간접체험	• 우정, 통신에 관련된 테마를 주제로 미션을 해결하고 게임을 통해 더욱 쉽게 인천의 우정 통신에 대해 학습이 가능함
7. 수장고		
관련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향온, 항습기능을 갖춘 수장고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그림 4-18. 1안 우정통신박물관 활용계획(안) 1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2) 2층 활용 방안

1.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	2. 우편과 우표	3. 운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배원의 변천 과정 • 복식 체험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우편을 배달하는 업무 체험 (가족, 어린이, 저학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과 우표의 역사 • 우체국, 우체통, 심벌마크의 변천 • 실제 편지에 우표를 붙여보고 우체통에 넣고, 우편을 배달까지 해보는 체험 가능 •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 전시실과 연계해서 체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 운영공간 • 전시공간의 관리, 조직,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곳
4. 미디어 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 통신에 관련된 미디어를 통해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한 구역 • 의복을 체험하면서 촬영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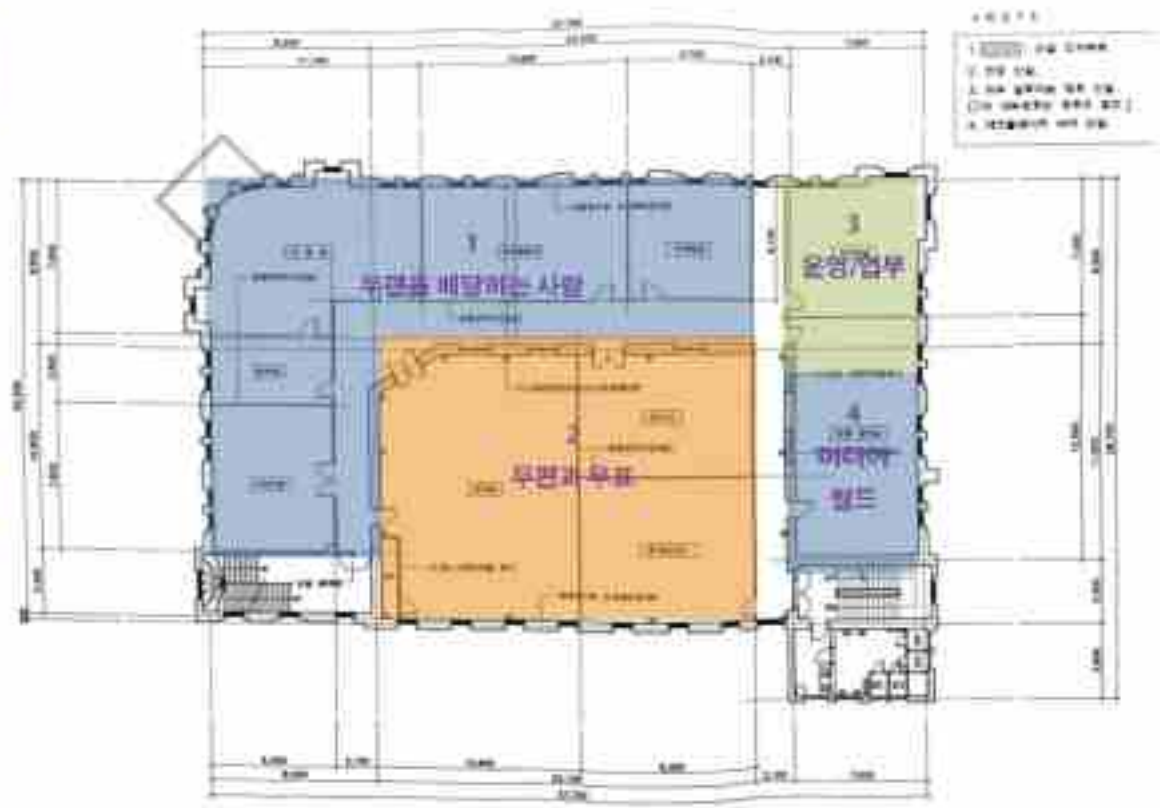


그림 4-19. 1안 우정통신박물관 활용계획(안) 2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3) 전시 구성 및 연출 상세

(1) 근대화의 창구

표 4-9. 근대화의 창구 전시

전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우체국의 변천과 과거 근대화의 창구였던 인천 소개• 전시패널과 사진 자료를 통해 설명		
		
전시 사례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 최초의 공중전화
 - 한국에 최초로 전화가 들어온 것은 1882년 청나라에 전기 기술을 배우러 갔던 유학생 '상운'(尙濬)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귀국하면서 2대를 가지고 옴.
 - 1894년 1월 궁내부 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 동경에 주문하였고 같은 달 26일 일본 상선 비후환(肥後丸)이 전화기와 운용 시설을 싣고 입항.
 - 이후 1884년 정식으로 도입된 전화는 임오군란, 갑오개혁, 명성황후시해사건 등 당시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해 전화 사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함.
 - 1896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덕수궁 내부에 전화기가 설치됐다.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궁에서 직접 인천으로 통화.
 - 한국 최초로 이뤄진 이 전화 통화로 인천 감옥에 수감 중이던 김창수라는 인물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음, 고종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김창수는 이후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사는 삶을 살게 됨, 고종이 건 한국 최초의 전화로 사형을 면했던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 백범은 고종의 특사령으로 감형받았던 사실을 백범일지에 기록하였음.
 - 1902년 3월 20일, 서울과 인천 사이를 잇는 전화가 개통됐다. 기존의 관용 전화와 달리 일반 국민도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
 - 인천 주재 일본영사관이 불법으로 전화를 가설하려 하자, 같은 해 6월에 우리 '통신원'이 서둘러 인천우편국에서 교환 업무 시작, 그로써 인천은 관용·민간용 전화를 최초로 놓은 우리나라 전화의 시발지.
 - '핸드폰' 시대를 맞아 1996년 1월 1일 인천에서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2년 1월 28일에는 제3세대 초고속 이동전화서비스(IMT-2000)를 역시 세계 최초로 개통, 인천은 명실상부한 통신의 선구지.



그림 4-20. 초기의 전화 교환대



그림 4-21. 1896년 궁 내부 전화기



그림 4-22. 제물포 전화소의 위치도

- 등대의 효시, 팔미도 등대.
 - 팔미도는 연결된 두 개의 섬이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아 팔미도(八尾島)라 불렸다. 낙조에 팔미도를 돌아드는 범선(帆船)의 자취가 아름다워 인천 팔경(仁川八景)의 하나로 꼽혔던 해상 경승지.
 - 1901년 일본은 우리 정부와 체결한 ‘통상장정(通商章程)’에 " 한국 정부는 통상 이후 각 항(港)을 수리하고 등대와 초표를 설치한다." 라고 한 조항을 들어 등대 건설을 강권.
 - 결국, 정부는 강권에 못 이겨 1902년 인천에 해관등대국(海關燈臺局)을 설치하고 그해 5월부터 팔미도, 소월미도, 북장자등대와 백암등표(燈標)건설에 착수해 1903년 6월에 이를 각각 완공.
 - 우리나라 등대의 효시이며 시대적 산물.
 - 인천상륙작전에서 10만 병력과 대함대가 무사히 인천에 상륙할 수 있도록 바닷길을 이끌기도 하였음.
 - 등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업무를 맡았던 기구는 통신원(通信院)이었다. 통신원은 우편과 전신·전화 등 일반 통신업무는 물론 선박과 해운, 육운(陸運) 등 교통 업무까지 관장.
 - 통신원은 오늘날의 교통체신부에 해당하는 기구였다. 그러다 일제 말기인 1943년 해운과 항공 업무교통국(交通局)으로 넘기면서 등대 관련 업무도 넘어감.



그림 4-23. 청구도에 나오는 팔미도



그림 4-24. 팔미도 등대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 최초의 철도 경인선
 - 1897년 3월 22일 오전 9시, 착공 기념식 거행.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인천 주재 각국 외교관, 미국인 모오스(James R. Morse), 한국개발공사의 타운센드, 공사 총감독 콜브란, 인부 3백 50여 명 등 참가.
 - 1889년 미국 주재 한국 대리공사로 근무한 바 있는 이하영(李夏榮)²²⁾은 철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후생이 발달하리라 생각하여 고종 황제에게 철도 모형을 올리고, 철마의 이모저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올리자 황제를 위시한 문무백관들은 철도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는 민족 자본에 의한 자주적인 철도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기술력과 자금난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1896년 3월 모오스에게 경인선의 부설권을 넘겨줌.
 - 모오스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일본에 1898년 12월 철도 부설권을 되넘겨 줌.
 - 일본은 경인철도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사를 속행하여 1899년 4월 23일 인천역(지금의 위치와 같음)에서 제2차 기공식을 거행하고 같은 해 9월 18일 인천역에서 경인선 개통식을 갖고 인천과 노량진 사이 32.2Km 노선에 영업을 시작.
 - 초창기 경인선에는 증기 기관차 4대, 객차 6량, 화차 28량이 투입되었으며, 1일 2회 왕복 노선 운영(1시간 30분 소요).
 - 철도 회사는 경영난이 가중되자 초창기에 문을 열었던 우각동역(현 도원역부근)을 1906년 4월에 폐쇄.
 - 애초 현재 참외전거리 부근에 있던 축현역을 선로 변경에 따라 1908년 12월 현재의 동인천역 자리로 신축 이전하였다가 1926년 4월 25일 상인천역으로 이름을 바꿈.



그림 4-25. 대한민국 최초의 기차 미국제 '모갈'형 기관차, 1899년 3월 인천역에서 시범 운행 중인 모습

22) 대한제국기 외부대신, 법부대신,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그림 4-26. 1897년 3월 22일 인천 쇄꼇고개(현 경인전철 도원역 인근)에서 열렸던 기공식 장면

- 통신의 발전
 - 우편에서 전신기, 전화기, 통신기, 전보 등 통신 발달과정에 관한 전시.
 - 전시패널과 사진 자료를 통해 설명.
 - 실제 소장품전시를 통해 근대 통신의 발달과정을 이해.
 - 인천에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를 설치하였고, 관용·민간용 전화를 최초로 설치한 우리나라 전화의 시발지.
 - '핸드폰' 시대를 맞아 1996년 1월 1일 인천에서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
 - 2002년 1월 28일에는 세계 최초로 인천에서 제3세대 초고속 이동전화서비스(IMT-2000)를 서비스 시작.



그림 4-27. 제3세대 이동전화서비스(IMT-2000) 첫 상용서비스 기사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그림 4-28. 전시패널과 유물 함께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4-29. 소장품을 통해 통신의 발전과정 전시
(여주 폰 박물관)



그림 4-30.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전시공간 (서울역사박물관)



(2)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

표 4-10.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 전시

전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배원의 변천 과정 및 하는 일에 대하여 전시 · 전시패널과 사진 자료를 통해 설명 · 실제 소장품전시를 통해 변화과정을 이해 · 다양한 체험을 통한 업무 이해 및 관심 유도 		
전시 사례		
 <p>집배원 복장 전시 (우정박물관)</p>	 <p>집배원 복장 체험 (우정박물관)</p>	 <p>터치스크린을 통한 우편물 배달 게임</p>



• 전국우편(통신)경기대회

- 1954년 당시 체신부에서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편 업무 기술향상을 위해 전국의 체신청 단위로 우편 경기대회를 열기로 결정, 당시 경기 종목은 우편 시군 구 구분 빨리하기, 우편 철도 구분 빨리하기, 우편업인 빨리 짚기 등이었다.
- 지방 단위로 개최되었던 행사는 그해 가을, 전국 단위 행사인 전국통신경기대회로 확대되어 개최하였다.
-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첫 전국통신경기대회는 전국에서 1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41가지 종목을 겨뤘다. 종사원들끼리 서로 겨루는 이 대회는 축제처럼 모두 함께 즐기는 행사로 발전되어 이후 매년 성황리에 치러지게 되었다.
- 이후 행사는 점차 더 확대되어 진행, 1957년에는 전국 통신대회 대항 전신대회가 열리기도 하였고, 1960년대 들어서는 신문을 통해 지역 예선 경기까지 보도되는 등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1974년 경기에는 예선을 거친 참여자 수가 630여 명에 달하는 등 체신부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 1976년부터는 체신의 날(現 정보통신의 날)에 함께 개최되어 기념일의 의미를 더했다.
- 이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행사는 점차 축소되었으며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체신부에서 분리되고 동 이름의 행사를 통신공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우정사업과 관련한 통신경기대회는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1. 좌 : 통신경기대회 개최식 / 우 : 우편물 구분경기



그림 4-32. 좌 : 땅이 질척거리는 운동장에서 행해진 우편물 배달속도 경기
/ 우 : 우편물 압인 내빈경기에서 우승한 김선주씨(체성 회장)가 김차관으로부터 트로피를 전달 받고 있는 모습

- 집배복 변천사
 - 조선시대 개화기(1884~1897년)
 - : 당시 체전부라 불린 오늘날의 집배원은 완고한 양반의 천시와 멸시 속에서 개화기 기수 역할을 해왔다. 커다란 고깔을 연상케 하는 갓과 비가 올 때 갓 위에 착용하는 갈모, 커다란 두루마기를 몸에 걸친 복장은 여느 조선시대 백성과도 같았으나, 한쪽 어깨에 멘 행낭으로 사진 속 인물이 체전부임을 알 수 있다.
 - 대한제국기(1897~1910년)와 일제강점기(1910~1945년)
 - :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체전부는 조선시대 개화기와 달리 집배복을 입고 활동했다. 당시 체전부는 조선시대와 달리 제복을 입고 활동하였으며, 일반 집배원인 우전부와 급한 전보를 전달하는 전전부로 분류되었다. 무늬 없는 검은색 제복은 같으나 우전부는 병거지와 짚신, 전전부는 서양식 캐피모자와 가죽 단화를 착용했다.
 - 광복 이후부터 현재(1945~2023년)
 - : 광복 이후에도 체전부의 집배복은 무늬 없는 검은색 제복이었다. 그러다 1967년 11월,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제정함과 동시에 체전부라는 이름 대신 집배원이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복장 또한 정모에 감색 상·하의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 들어서 여성집배원 정복이 등장함과 동시에 점차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을 갖추나갔다.



그림 4-33. 집배복 변천사 (출처 : 우체국과 사람들 홈페이지)



그림 4-34. 개화기
집배원



그림 4-35. 1941년 평안북도 개성우편
국의 우체물 적재모습



그림 4-36. 대한제
국기 우전부와 전전부














그림 4-37. 일제시대 집배원
국기 우전부와 전전부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3) 우편과 우표

표 4-11. 우편과 우표 전시

전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과 우표 • 우체국 운송수단의 변천 • 우체통 변천 • 우체국 심벌마크의 변천 등 		
 <p>우체국 운송수단 변천사</p>	 <p>일제강점기 철도우편국</p>	 <p>문위우표와 우체엽서</p>
 <p>연하우편</p>	 <p>우체통 변천</p>	 <p>우체국 심볼 변천</p>
전시 사례		
 <p>미디어 배경과 운송수단을 함께 전시 (서울 역사 박물관)</p>	 <p>우표를 주제로한 미디어형 전시 (국립 우편 박물관)</p>	
 <p>나만의 우표/엽서 만들기 (국립 우편 박물관)</p>	 <p>다양한 운송수단 전시 (국립 우편 박물관)</p>	

2.2. 2안 : 미술관

2.2.1. 미술관 사례 및 현황 조사

1) 인천 소재 미술관

송암미술관 : 인천시립송암미술관	해든뮤지엄	문화예술회관
		
전시 구성		
고 송암 이회림 선생이 모은 그림, 도자기, 공예품을 전시	현대미술의 세계적 유명 작가, 한국 작가들의 작품 전시	지역예술가 또는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전시
위치		
인천 미추홀구	인천 강화군	인천 남동구
특이사항		
2023년 6~8월 : 냉난방기 교체공사	문화예술교육, 대규모 공연, 강연 시행, 워크숍	공연 위주로 활용

2) 인천 지원 활동

인천 아트플랫폼 : 예술활동 지원사업	이너프	상상플랫폼
		
내용		
· 현대미술 전 분야 포함 3팀 선정	· 청년들의 마을공동체 + 지역예술가의 무대	· 페스티벌 개최 : 작품 전시 및 공연 지역예술인 + 대학생예술인= 27팀 선정
지원 내용		
· 선정된 지역예술인에게 입주작가의 권한과 스튜디오 대여(6개월) 제공	· 인천문화재단,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청, 남동구청과 협조	2023년 10월 4~15일 전시 개최

3) 지역예술가를 위한 미술관 사례

성남큐브미술관	아미미술관	충주박물관
		
내용		
상설전시관 : 성남시와 광주광역시의 지역예술가 교류전	당진의 지역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지획전시실 : 지역작가전, '민화, 나들이 가다'
위치		
경기 성남시	충남 당진시	충북 충주시
특이사항		
6명 참여	미술관 전체를 활용	5개의 지역작가전 진행

4) 활용사례 검토

	인천 내 미술관	지역예술가를 위한 지원 활동
현황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 시립 미술관 2027년 설립 예정 2. 현재 인천 시립 미술관의 역할을 하는 송암미술관이 있음 3. 시립, 사립 미술관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상상플랫폼과 아트플랫폼을 통해 지역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생생할 수 있는 방안 도출과 시행 노력 2. 지역예술가들을 조사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 작품 선정 및 지원 활동을 시행 중
검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인천 시립 미술관이 없음 2. 송암미술관의 경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짐 3. 해든뮤지엄은 다양한 현대 미술을 보기엔 좋지만 인천시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는 없음 4.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전시의 어려움이 있음 5. 현재 인천시 지역예술가를 위한 전시실이나 미술관이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 적음 2.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발된 지역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적음 3. 인천시 우수 작품은 장기적으로 전시하고 지역예술가를 키워나가야하는데 장기적인 지원 사업이 부족함 4. 일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시를 하고 지역예술가들을 인천, 타지역시민들에게 제공할 기회가 필요함

2.2.2. 활용 방안

- 인천 내 지역예술가들과 현대 미술의 합작
- 특별 전시 개최 : 인천 및 타지역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별 전시 개최
(세계적인 작품 전시 or 한국의 유명 작가와의 콜라보)
- 현대 미술을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상예술 부분으로 나눠 전시 진행

표 4-12. 전시구성 및 연출

구분	소주제	주요전시물	의도	연출방법
프롤로그	소개	-	• 전시소개 • 관심유도	• 패널 및 자료사진
근대 미술전	19~20세기 작품	• 시각예술	• 근대 회화 • 근대 조각 등	• 작품 전시 / 소장품 전시
현대 미술전	20세기 이후 작품	• 시각예술	• 현대 회화 • 현대 조각 등	• 작품 전시 / 소장품 전시
인천 공연예술전	인천 공연 지역예술가	• 연극, 뮤지컬 • 음악회 • 춤	• 인천의 역사와 연계한 공연 • 인천을 배경으로 진행	• 문화예술회관, 상상 플랫폼과 연계해 진행 • 우수작품 공연
인천 시각예술전	인천 시각 지역예술가	• 회화 • 조각 • 설치	• 인천과 연관된 작품 공모전 • 작가별작품 전시 • 우수 작품의 장기 전시	• 작가의 작품 전시 • 하이커그라운드와의 연계
인천 영상예술전	인천 영상 지역예술가	• 단편영화 • 애니메이션 • 광고	• 인천시와 관련된 영화, 광고 • 작가별작품 전시 • 우수 작품의 장기 전시	• 작가의 작품 전시 • 하이커그라운드와의 연계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1) 1층 및 부속동 활용 방안

1. 메인 통로	2. 상설전시관	3. 근대 미술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관광 안내 시설 제공 • 전시 내용 안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국내 유명 작가들의 전시회 공간 • 상설 전시관으로 정기적으로 내용이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미술에 관련된 전시관 • 인천 작가들을 중심으로
4. 현대 미술전 - 인천 시각 예술전	5. 휴식공간	6. 굿즈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 중에서도 시각 예술에 관련된 전시관이며, 주로 설치미술과 조각미술을 전시한다 	카페 운영	-
7. 수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항온, 항습기능을 갖춘 수장고 		



그림 4-38. 2안 미술관 활용계획(안) 1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2) 2층 활용 방안

1. 현대 미술전 - 인천 시각 예술전	2. 현대 미술전 - 인천 영상 예술전	3. 현대 미술전 - 인천 공연 예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에 설치와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2층엔 회화를 중점으로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미술 중 영상예술에 관련된 작품을 전시 및 활용한 전시관 정기적으로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하이커그라운드와콜라보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미술 중 공연 예술에 관련된 우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연이 가능한 공간 공연을 선보일 수 있으며, 외부에 따로 있어 본 건물에 영향이 적다
4. 인천 중요 지역예술가 전시관	5. 운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문화유산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접 미션을 해결하고 체험하며 몸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공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공간 전시 공간의 관리, 조직,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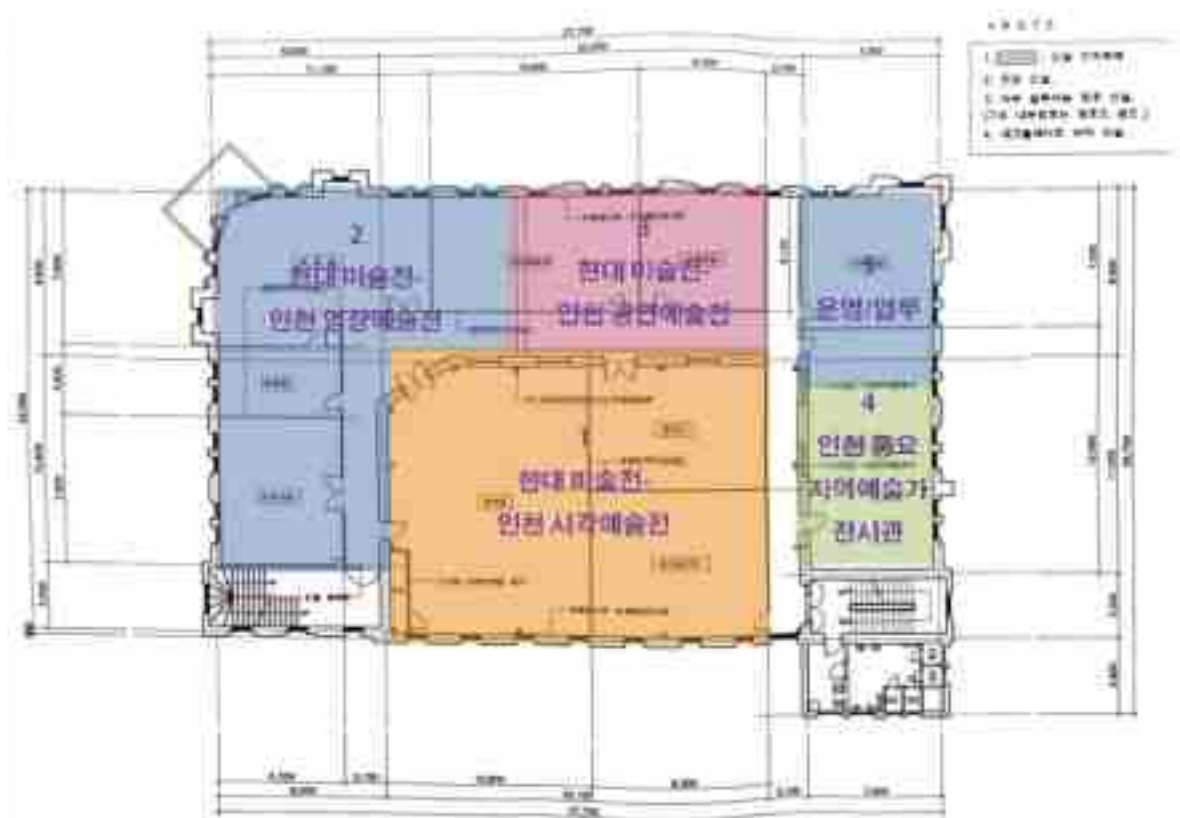




그림 4-39. 2안 미술관 활용계획(안) 2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2.3. 3안 : 주민 편의 복합 문화 시설

2.3.1. 주민 편의 시설 현황 조사

1) 인천 주민 편의 시설

송림골 꿈드림센터 (2023년)	서창 어울마당 (2023년)
	
내용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카페, 도서관, 장난감월드 등	국민체육시설,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위치	
인천 동구	인천 남동구
특이사항	
2023년 연말까지 순차적 개관 예정	2023년 8월

송도랜드마크시티 B1 블록 (예정)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2023년)
	
내용	
주민 편의 시설 예정	아이를 위한 지원센터, 별난 헬스, 공방, 도시재생센터, 일 자리 플랫폼, 도서관, 열람실, 카페, 하늘정원 등
위치	
인천 송도	인천 계양구
특이사항	
내년 이후부터 계획 예정	2024년까지 순차적 개관 예정

- 현황 검토

구 분	인천 주민 편의 시설
현황 검토	1. 국내 전체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생기는 추세 2. 인천 동구, 남동구에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건물이 설립되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진행 3. 인천 중구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없음 4. 주민 편의시설을 포용할 수 있는 건물인 인천우체국의 활용이 가능함
검토 사항	1. 인천동구, 남동구의 주민 편의시설의 규모에 비해 인천 우체국의 규모가 작아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확보 가능 2. 인천 동구에서 시행한 송림골꿈드림센터를 통해 인천 우체국에 접목이 가능하고 시행이 가능한 범위를 선정하여 시행 3. 아이들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4. 도시재생지원센터 5. 시립 도서관

2.3.2. 활용 방안

- 인천 중구의 주민 편의 시설로서 활용
- 주민 편의시설의 핵심이 되는 주요 시설 거점
-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 아이들 관련 편의시설의 확보

표 4-13. 전시구성 및 연출

구분	소주제	의도	연출방법
1층	카페		•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예술가와 연계
	육아종합지원센터	• 놀이 체험 및 실내체육공간 • 육아지원종합센터	• 어린이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2층	시립 도서관 : 어린이 도서관	• 도서관 • 열람실	• 어린이 및 저학년을 위한 도서관, 열람실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운영
별관	운영지원/ 준비실	• 시설운영지원/준비시설	• 운영지원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1) 1층 및 부속동 활용 방안

1. 메인 통로	2. 카페	3. 육아지원종합센터
인천 관광 안내 시설 제공 건물 안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 정기적, 테마별로 진행 • 4번 하이커그라운드카페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지원 • 가정양육지원 • 센터지원 등
4. 놀이 체험 및 실내체육공간	5. 휴식공간	6. 운영지원, 준비실
테마별프로그램 운영 볼풀, 놀이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 시설의 관리, 조직,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곳



그림 4-40. 3안 주민 편의 복합 문화 시설 활용계획(안) 1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2) 2층 활용 방안

1. 시립 도서관	2. 도시재생지원센터	3. 다함께 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어린이와 저학년을 위한 도서관으로 열람실도 구비 · 자유롭게 건물 내에서 책을 보고 반납하는 구조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 센터 · 인천 중구에서 벌어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센터로 운영 · 1층의 카페와 연계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함 · 상시돌봄교실과 일시돌봄교실로 나눠 운영
4. 건강생활지원센터	5. 운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관리사업, 신체활동 및 영양사업, 금연 및 절주사업, 치매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주민건강증진사업 관련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 시설의 관리, 조직,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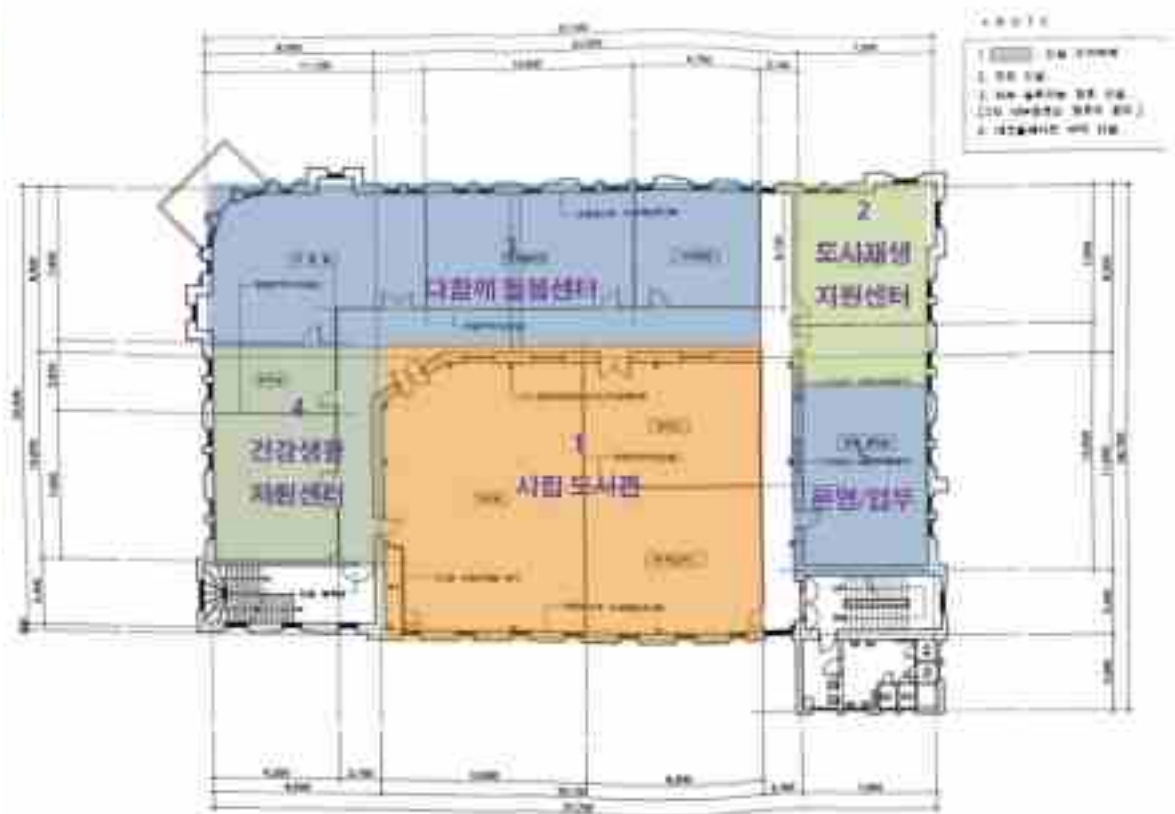


그림 4-41. 3안 주민 편의 복합 문화 시설 활용계획(안) 2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2.4. 4안 : 인천 문화유산 실감 체험 시설

2.4.1. 실감 체험 시설 사례 조사

1) 하이커그라운드

- 한국관광공사의 하이커그라운드는 다이내믹하고 위트있는 여행을 추구하는 전세계의 여행자, 하이커들을 위한 공간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5층 - 연중무휴 10:00~21:00 • 2, 3, 4층 - 화~일요일 10:00~19:00 • 5층 관광안내센터 - 연중무휴 10:00~19:00
관람료	무료
위 치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5층
운 영	하이터 운영사무국
주 관	한국관광공사
주 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한국관광 탐험을 위한 공간



표 4-14. 각 층별 상세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월: 한국관광관련 대형 미디어월 • Pickr(피커): 관광기업 크라운드펀딩상품전시 홍보관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팝그라운드: 한류테마 실감형 전시 체험존, XR기술 활용한 라이브 스튜디오와 다양한 컨셉의 케이팝 뮤직비디오 무대장치 체험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아트리움: 기획전시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국관광대표작품 • 하이커타워: 한국관광콘텐츠를하나로 연결하는 수직형 미디어
4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케이브: 국내관광 멀티체험존, 웰니스관광지, 관광거점도시 등 국내로컬 관광지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멀티 체험관 • 축제체험관: 지역 축제 디지로그체험관: 컬러 드로잉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 다양한 지역 축제를 만나보는 디지로그체험공간 • 의료관광안내센터: 의료관광 안내 및 티 테라피체험은행
5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라운지: 청계천조망 여행자 쉼터, • 하이커챌린지: 롤렛돌리기 및 미션수행 • 관광안내센터

1F

하이커 빌 미디어아트홀

한국관광산업미디어아트홀(아트홀)은 미디어아트홀 공간 브랜드 및 미디어아트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홀



PICKER(픽커)

관광가이드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 전시 플랫폼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기획하는 관광가이드(하이커)의 상품을 제공하고 선택하는 플랫폼(픽커)을 제공하는 공간

3F

하이커아트리즘

가이드 전시관

Northwall(2022) 서도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서도호의 개인 전시관



전망 중인 전시

1. 하이커아트리즘 뮤지엄
한국관광과 디지털 콘텐츠
고대 유물 아티스트가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한 특별 전시



2. 드라마틱 힐링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로 만드는 새로운 한국관광

하이커타워

수직형 대형 미디어(5-4층)

하이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들을 하이커 연결하는 수직형 미디어



하이커 펄기도넛트

한국어 | 월~일 10:30 / 15:30

영어 | 한국어 | 일본어 |
자음 시 펄기도넛트

소요시간 약 40분

"전통 스텝이 현대적으로 변신하는
자음 시 펄기도넛트"

*문의 | 02-729-9497

4F

하이커 케이브

국내 관광 멀티 체험관

월드스튜디오, 여행기전 도시 등
국내 모든 관광지들 체험이 가능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멀티 체험관



축제체험관

차별화된 디지털 체험관

월드스튜디오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지역축제
를 소개하는 디지털 체험관



2F

케이팝 그라운드

현류터마 실용형 전시 체험관

K-팝을 포함한 라이브 스튜디오와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위한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전시를 소개하는 공간



5F

하이커 라운지

여행기전 여행자 센터

한국관광사관에는 전세계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여행기전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이커 라운지에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여행기전 소개를 할 수 있는 공간



하이커 갤러리

한국관광 특화 전시관

하이커 라운지를 소개하고 여행기전
여행기전 소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이커 라운지에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여행기전 소개를 할 수 있는 공간



관광안내센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계획은
관광안내센터에서
문의시간 | 월~일 10:00~19:00
문의 | 02-729-9497-4

- 개관 1년 누적 방문객 수 70만명
- K-팝 체험공간 등 즐길거리 다양
- 청계천, 경복궁 등 관광명소와 인접

네이버 블로그 리뷰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56개의 리뷰 확인 가능(23.08.23 기준) •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 경복궁과 같은 관광명소와 인접해 있어 좋음 • 교통편이 용이하고 주차가 가능하여 좋음 • 무료전시에 사전예약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여 좋음 • 포토존 및 다양한 전시 및 체험이 가능하여 좋음 •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4개의 리뷰 확인 가능(23.08.23 기준) •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 k-pop 관심 있어 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인기 많음 • 다채로운 전시관,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서 좋음 • 실내데이트 하기 적합 • 주차 편함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케이팝	전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팝을 주제로 서브웨이(Subway), 마이스테이지(My Stage), 코인런드리 (Coin Laundry), 컬러룸(Color Room), 스페이스십(Space Ship), 케이팝댄스에볼루션(K-pop Dance Evolution) 등 6개 체험 존이 존재 • 음악 방송 무대 같은 마이스테이지는 100종이 넘는 배경과 특수 효과를 활용해 너만의 무대를 꾸며볼 수 있다.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은 USB에 담아 가져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국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재해석해보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 드라마를 통해 한국 관광을 안내하는 공간과 드라마 촬영 현장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하는 코너가 마련되어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케이브'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와 관광 거점 도시를 오감으로 느끼도록 구성했다. 해당 장소와 어울리는 향기, 소리, 영상 등을 접목해 여행지를 색다른 방식으로 소개한다. • 축제체험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제는 시기별로 다르다. • 의료 관광안내센터에서는 티 테라피, 피부 측정 같은 간단한 체험이 가능하다.

• 하이커그라운드 체험 프로그램 : 정기체험 콘텐츠로 네이버 예약으로 운영

캐리&한별의 오늘의 댄스 완성	금쏘니 스튜디오	금대표의 세계관 투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 대표 연습생 캐리&한별의 인기 릴스 댄스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쏘니를 따라 하이커 곳곳 포토 명당에서 인생사진 남기고 촬영 및 편집 꿀팁을 배워 보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 엔터 금대표의 특별 도슨트 세계관 캐릭터 소개, 캐릭터들의 퍼포먼스 등 감상하는 투어
운영시간		
매주 수, 금 (12:30, 15:00, 17:00)	매주 목 (12:30, 13:00, 15:00)	매주 화, 금 (12:00, 15:00, 17:00)
소요시간		
30~40분		
참가인원		
타임별 6명 한정	타임별 6명 한정	타임별 10명 한정

2) 미디어 월드








(1) 제주 원더아일랜드

- 제주 신화 월드 안에 있는 체험형 미디어 전시관
- 신화월드 내 서머셋 클럽 하우스 1층부터 3층까지 총 12개의 독특한 공간과 제주의 자연, 동식물, 신화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엮인 10가지 테마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체험
-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가 더해진 체험형 미디어 아트

운영시간	연중무휴 10:00 - 20:00
관람료	소인 12,000원, 대인 17,000원
위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89 제주신화월드 서머셋클럽하우스
운영	제주 신화월드
목적	• 제주의 자연, 동식물, 신화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엮인 10가지 테마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비밀의 숲	다이나믹 동굴	탐 플레이 그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숲을 모티브로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에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을 도입하여 관람 중에 만나는 증강현실 동물을 잡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동물도감'에보관해 나만의 동물 사전을 만들 수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동굴 탐험을 하는 듯한 '다이나믹 동굴' • 다면 영상과 인터랙션 장치를 통한 몰입형 영상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동굴 속의 모험을 떠나는 체험을 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도깨비의 이야기를 담은 탐 플레이 그라운드 체험 가능 • 볼품장, 볼파티컨셉 체험방 체험 가능
용궁 페스티벌	다이나믹 동굴	우주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미와 용궁을 결합한 '용궁 페스티벌' • 직접 연주하는 드럼 소리에 맞춰 미디어 아트가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즐길 수 있다. • 미디어 기반의 두더지 게임과 쿠키 클래스, 심이저신 가면 놀이가 가능한 가상현실 실감형 놀이터도 체험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동백꽃과 유채꽃잎을직접 불어 날리는 '윈드댄스' • 제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인바람을소재로 구성한 공간 • 바람의 향기에 취해 꽃잎들이 움직이며 계절별로 변하는 다양한 꽃잎들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비롭고 몽환적인 우주 세계를 표현한 '우주여행' • 바다에서 우주까지 무한하게 확장되는 공간의 매력을 느낄수있는 전시공간
		그린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도구 모형들을 이용해 신비한 자연현상을 직접 체험해보는 공간 • 여러 형태의 인터랙션 체험 가능

(2) 경주 엑스포대공원

- 찬란한 빛의 산란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
 - 경주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하여 미디어 아트를 구현한 전시연출
 - 미디어 아트 영상을 통해 작품과 직접 교감하는 첨단 전시연출을 통한 흥미 유발
 -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경주의 위상을 알리고 보존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는 공간

운영시간	10:00 ~ 19:00
관람료	일반 대인 12,000원, 일반 소인 10,000원, 단체할인/경로할인 가능
위치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에서 나정교 방면, 보문교를 지나 보문관광단지 내에 위치
운영	경주 엑스포 대공원/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목적	경주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모티브로 구현한 미디어 아트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경계에 서다 : 첨성대	찬란함을 잇다 : 천마총 금관	별과 이야기 하다 : 석굴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의 천문학을 대표하는 첨성대의 형태를 상징하는 입체 조형물에 쏟아지는 LED 조명이 별빛의 산란과 확산 • 화려한 하늘빛의 변화를 표현해 첨성대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제공 • 상영시간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의 움직임을 인식해 화면이 다채롭게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전시관 • 쏟아지고 흩날리는 '황금의 방'에 서찬란한 황금의 도시 신라를 체험 • 상영시간 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된 과학기술과 아름다운 예술혼, 신라의 뛰어난 과학적 건축기법과 섬세한 조각이 집약된 석굴암을 모티브로 꾸며진 영상 전시관 • 석굴암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되살린 복합미디어 아트 • 상영시간 5분
오아시스를 만나다 : 동궁과 월지	밤하늘에서 꿈꾸다 : 성덕대왕신종	신념을 마주하다 : 매소성 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금의 도시 서라벌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실크로드의 여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막과 오아시스를 형상화한 전시관 • 별빛과 달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신라의 밤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 상영시간 1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덕대왕신종의일승원음(一乘圓音)을 모티브로 해석한 신라의 울림을 빛과 소리를 통해 느껴보는 무빙라이트쇼 • 세속의 번뇌와 망상을 잊게 해주는 찬란한 빛과 웅장한 소리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매소성을 탈환하는 협동형 게임 콘텐츠 • 체험자가 스크린 속 당나라 군사와 매소성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게임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를 이루는 능동형 체험
시간을 기록하다 : 삼국사기, 삼국유사	경주를 기억하다 : 에필로그	함께 공유하다 : 영상, 포토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란한 빛의 신라(타임리스 미디어아트)' 전시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며 인터랙티브 전시상영관 • 신라의 영광을 기록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활자를 배경으로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 나무끼는 찬란한 '천년 왕국'의연꽃을 만날 수 있다. • 상영시간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타워 전망 2층에서 만나시게 될 영상 "천년대계_신라천년에서 대한민국 천년으로" 미리보기 영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 작품을 배경으로 한 기념촬영 공간>전시의 핵심메시지를 SNS 해시태그로 표현한 기념 포토존

(3) 경주 엑스포대공원

- 살롱 헤리티지
 - 국내 최초의 세계유산 미디어 홍보관
 - 장 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
 - 살롱 헤리티지는 근대 유럽 대화와 교류의 장이었던 '살롱'을 소재로 기획
 - 미디어터널, 미디어스크린, 세계유산 서재 등 첨단 디지털장비와 고전적인 공간을 함께 구성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문객이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도시를 접할 수 있음

미디어 월	미디어 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제도의 기원을 보여주는 '헤리티지 유니버스' • 경주의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유산도시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제작된 미디어스크린 및 올레드미디어터널은 각각 길이 9.6m, 높이 2.7m크기 • 빛으로 표현된 세계유산을 만날 수 있는 '빛의 유산' •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하나인 남산지구의 일출 및 일몰 영상을 포함한 실사 영상 '천년의 숲 남산'
세계유산 여행	세계유산 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올레드터치스크린을 사용, 세계유산관련 재미있는 퀴즈를 풀면서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유럽, 대화와 교류의 장이었던 '살롱'을 모티브로 한 서재 • 여러나라의 세계유산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2.4.2. 활용 방안

- 인천 주요 문화유산인 인천우체국을 활용한 인천 관광의 핵심지로 활용
- 하이커그라운드(HiKRGround)는 즐겁고 체험이 가능한 여행, 유익한 정보 획득의 여행, 인천 문화유산의 간접 체험 여행 등 다양한 여행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하이커들의 공간

운영시간	연중무휴 09:00~19:00
관람료	무료
위치	인천 우체국
운영	인천광역시 중구청 or 인천 우체국 관리소
주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실감체험이 가능한 멀티버스 인천관광 랜드마크

1) 1층 및 부속동 활용 방안

1. 메인 통로	2. 통신 체험존	3. 영상 촬영 및 편집
인천 관광 안내 시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 + 통신사의 콜라보 • 새로운 통신 기기의 소개 • 통신기기를 활용한 체험존 운영 • 콘텐츠 촬영을 위한 의상 및 준비물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체험존과 연결 • 새로운 통신 기기 활용 • 영상 촬영 후 편집실까지 제공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소 및 장비를 한 장소에서 모두 제공
4. 탈의실 및 준비실	5. 근대 그라운드	6. 휴식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라운드 제공 •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간 것 같은 느낌을 제공 / VR 체험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페 운영 의료시설 제공
7. 굿즈샵	8. 참고	9. 하이커 아트리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전시관으로 운영 • 부속동 활용 운영 • 인천 근대 문화유산 관련 전시 • 인천 문화 관련 전시



그림 4-42. 4안 인천 문화유산 실감 체험 시설 활용계획(안) 2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2) 2층 활용 방안

1. 인천 아트리움	2. 미디어 월드	3. 하이커 챌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근대 역사 박물관• 인천 우체국의 역사 박물관•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 VR 등 기술을 활용한 체험 공간이며, 인천 문화유산을 주제로 운영• 특별 전시관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문화유산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접 미션을 해결하고 체험하며 몸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
4. 축제 체험전	5. 운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내에서 이뤄지는 축제를 소개하고 이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공간•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공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사무실• 전시 공간의 관리,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곳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그림 4-43. 4안 인천 문화유산 실감 체험 시설 활용계획(안) 2층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3) 전시 구성 및 연출 상세

(1) 1층

1. 메인 통로	2. 통신 체험존	3. 영상 촬영 및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소 설치 • 메인 통로 좌측 벽쪽에설치 • 관광 안내소 외 나머지 공간은 인천 문화유산을 미리 접할 수 있는 하이커월 공간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우체국과 통신사들의 콜라보 • 핸드폰, 패드, 카메라, VR기기 등 다양한 최신 기기를 소개 • 소개된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체험 가능 • 콘텐츠 제작의 배경은 인천 근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구축 • 문화유산 외에도 K-POP, 축제 등 관심 분야 배경도 활용 가능 • 기기의 관리를 위한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촬영이 가능한 공간 준비 • 각자가 원하는 배경 및 음악, 소품 선택 가능 • 영상 촬영 후 바로 편집이 가능하며, 당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함 • 편집 시 AI, 꾸미기, 합성 등의 기술도 활용 가능 •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전 예약 필요 • 콘텐츠 공모전 시행 • 인천시 유튜브, SNS와 연계하여 콘텐츠 업로드

4. 탈의실 및 준비실	5. 근대 그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의상 탈의실 및 소품 준비실 • 한복, 근현대의상, K-POP 관련 의상, 교복 등을 대여하며, 인천 우체국 내 프로그램 및 전시 관람 시 착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근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재현 • 재현물주변으로 영상 재생 : 제물포, 개항장 시대, 근대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재현 • 각 시기별 주요 문화유산 및 시설물의 재현과 더불어 그 시대를 느낄 수 있는 배경을 설치 •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간 듯한 느낌 전달 • 통신 체험존과연계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근대를 간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VR 프로그램 체험 진행 • 개항장 시대 풍경, 제물포의 생활, 각 문화유산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예약 우선 접수 / 인터넷상으로 예약 현황 파악 가능(뷰빔과 여유)
6. 휴식공간		7. 굿즈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 운영 + 굿즈샵과콜라보 • 건물 내 쉼터로 활용 • 의료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마다 테마가 되는 굿즈제작 및 판매 • 카페와 콜라보진행 • 포토존설치 및 굿즈판매
8. 하이커 아트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동활용 • 인천 우체국 메인 건물동과는 떨어져 있음 • 특별 전시관이며, 시기별로 전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전시는 문화유산존/문화존/작품존으로 운영 • 전시관 내 기프트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근대 문화유산 관련 전시 • 인천 문화 관련 전시 : K-POP, 근현대를 재현, 차이나타운 등 • 인천 내 예술가들 작품 전시 • 예술가들과 콜라보한굿즈출시 및 판매 : 공모전 • 문화유산 관련 굿즈판매 : 지역의 특별함(한정품)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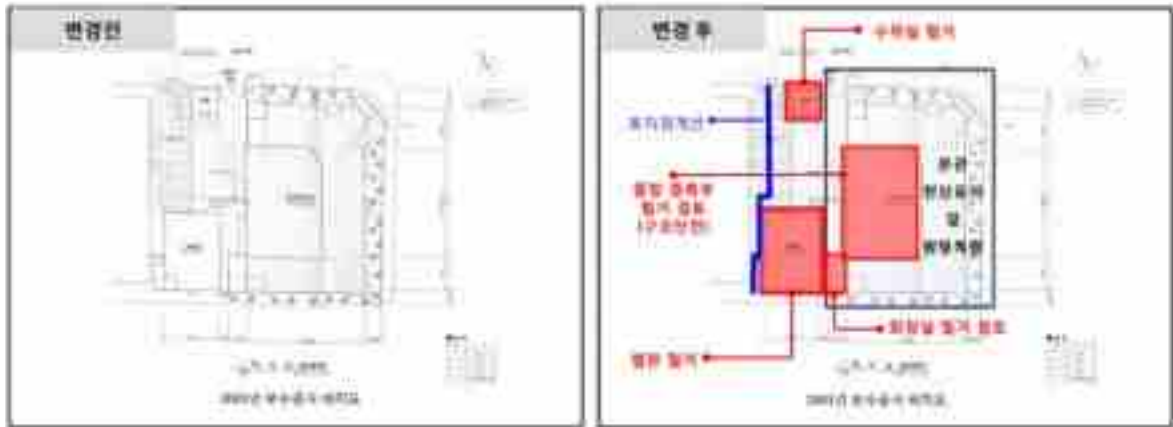
(2) 2층

1. 인천 아트리움	2. 미디어 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근대 역사 전시 • 인천 우체국 역사 전시 • 인천 우체국 내 유일한 교육만을 위한 전시 • 인천 근대 박물관과 연계 •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 • 인천 우체국에서 체험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요 문화유산, 요점지, 인천 우체국의 가치를 파악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의 메인 프로그램 공간·미디어 월드로 최소 3개의 부스로 운영 • 특별 전시관으로 운영 • 시기별로 주제가 달라지며, 그에 따른 미디어의 변화 있음 • 각 문화유산, 시대별로 주제를 선정 • 통신 체험관과 연계하여 콘텐츠용 영상 촬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장 시대 프로그램 • 강제 개항(일제강점기)/ 각국의 조계지/ 제물포 등 역사와 관련된 주제, 장소 등을 활용한 미디어를 제작하여 전시,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 전시를 체험하면서 역사를 익힐 수 있는 미디어 제작은 물론 음악, 구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 • 관람자들이 직접 미디어에 닿으면서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
3. 하이커 챌린지		4. 축제 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월드와 같이 2층의 메인 프로그램 •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미션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 방탈출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진행 • 프로그램의 주제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하이커챌린지는유료로 진행 : 1팀당 4만원 • 사전 예약 필요 : 인터넷과 현장 예약 가능 • 가족 단위, 20~30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대상에 따른 미션 난이도의 차이 • 미션을 모두 달성한 경우 소정의 상품 제공 • 미션은 노트 패드, 핸드폰을 활용하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테마에 맞는 미션과 시설물을 설치 • 각 시기, 문화유산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미션 및 프로그램으로 진행 • 차이나타운 테마 • 짜장면 박물관 및 개항장의 역사 등을 넣은 프로그램으로 진행 • 각 테마 배경은 미디어로 제공, 소품과 미디어를 활용한 챌린지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 • 인천 내 축제를 소개 • 주요 축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 체험관 내 특별관에서 축제를 살짝 맛볼 수 있는 간이 체험관 설치 : 결과물, 진행과정 아트 등 • 지역 축제에서 호평을 받거나 공모전에 당선된 굿즈를제작 및 판매 (지역 한정품)

3. 보존 활용 방안 검토

3.1. 복원 정비 계획

- 문화유산의 진정성 회복을 위한 원형복원(안) 계획
- 향후 정밀실측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복원 고증 연구 및 구조안정성 검토를 통해 복원 계획 진행



1) 본관

- 입면
 -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는 점을 고려 1923년을 기준으로 원형보존
- 중앙 중정부
 - 원형 훼손 및 시설 활용 등을 고려 철거 검토 (구조진단을 통해 철거 가능여부 확인 필요)
 - 당초 목조 단층 건물로 6.25 당시 훼손
 - 1955년 전후 복구 시 증축부는 조적벽체에 목구조로 구성
 - 2003년 대수선 공사 시 철거하고 경량철골구조로 대체
- 내부 : 1923년 기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훼손을 최소화하되 리모델링 등 시설 활용을 고려

2) 별관

- 철거
 - 1987년 신축된 건물로 건축사적, 역사적 의미가 미약하고, 본관 경관, 부지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철거

3) 수위실

- 철거
 - 2003년 대수선 공사 시 수위실 및 식당 철거 후 신축한 건물로 이관

3.2.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3.2.1. (구)인천우체국과 제물포 르네상스의 연계

- 개항기 근대문화유산
 - 개항기를 대표하는 제물포의 근대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 원도심과 제물포 르네상스를 연결하는 교두보
 - 개항장박물관, 짜장면박물관, 근대문화관, 인천세관 역사공원 등 개항기 유산 벨트 형성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의 주요 문화유산으로서 역할 수행



- 입지 특징
 - 중동 향동 6가는 1911년~1918년 완공된 매립지
 - 제물량로, 인항로, 신포로 등 주요 도로와 접하고 있음
: 제물량로와 인항로는 30m 대로로 계획, 동편 신포로는 내항과 내동성당으로 연결됨.
 - 개항장 문화지구이며, 제물량로, 인항로, 신포로 등 주요 도로와 접하고 있음 이어지며, 북측은 경인가도의 끝에 맞닿아 있음.
- 배치 특징
 - 1924년 신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관은 변화가 없고, 부속동은 신축과 철거로 변화하였음.
 - 매립지로서 신시가지가 위치하는 북쪽과 동쪽을 향해 주 출입구가 있고, 주 출입구의 남쪽에 부출입구가 있어 이용객은 동측면의 주·부출입구로 출입하였음.



그림 4-44. 1918년 당시 인천우체국 주변도로 및 부지 현황



그림 4-45. 1962년 이후 인천우체국 앞 도로의 변화

3.2.2. 인천광역시 관광지수 분석

- 인천광역시는 근대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관람객 비율 4위

표 4-15. 인천광역시 및 광역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집계관광지수	방문객수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인천 (56)	1,271,081	2,775,212
서울 (17)	9,777,723	1,438,102
대전(27)	1,595,294	5,597,524
대구(61)	2,484,119	7,640,338
부산(15)	1,628,223	2,134,895
울산(39)	1,186,051	2,542,993
광주(28)	2,090,199	4,210,955

2021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대구시는 2020년도 통계연보 기준)

- 인천광역시 집계관광지(56개소) 중 근대 관광지는 총 5개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박물관, 한국 이민사박물관, 영종역사관, 중구생 활전시관 총 5개 (모두 인천 중구 소재)

표 4-16.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조사

분 류	개수 현황
기록유산	38
등록문화유산	14
무형문화유산	34
유 물	45
유적건조물	135
자연유산	18

-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유형분류 비율 중 유적건조물이 1위
- 2019~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별 관광 현황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
 - 인천광역시의 방문자 수는 조회기간 평균 증감률은 5.5% 감소
 -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성/연령은 60~69세 남성으로 4.1% 증가했고
 - 경기도(1순위), 서울특별시(2순위), 충청남도(3순위)에서 주로 인천광역시(을)를 방문
 - 인천광역시 내 외지인 방문율이 높은 곳은 체험관광(1위), 자연관광(2위), 역사관광(3위)

- 관광객의 수가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음.

표 4-17. 인천광역시 연도별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연도	방문객수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2002	2,912,454	-
2003	3,062,542	-
2004	5,268,907	-
2005	4,935,628	2,107,146
2006(4)	9,098,727	7,591,754
2007(4)	4,076,960	10,478,557
2008(4)	5,123,592	27,259,385
2009(4)	2,933,241	7,292,679
2010(5)	4,542,824	7,636,849
2011(25)	7,275,364	29,368,169
2012(22)	7,664,645	28,368,169
2013(20)	3,630,575	7,468,926
2014(20)	7,591,211	7,982,977
2015(21)	8,318,894	13,814,753
2016(21)	8,188,795	15,681,352
2017(48)	11,282,361	15,681,352
2018(53)	3,791,266	3,817,393
2019(55)	4,225,363	3,364,491
2020(56)	960,825	2,657,029
2021(55)	1,271,081	2,775,212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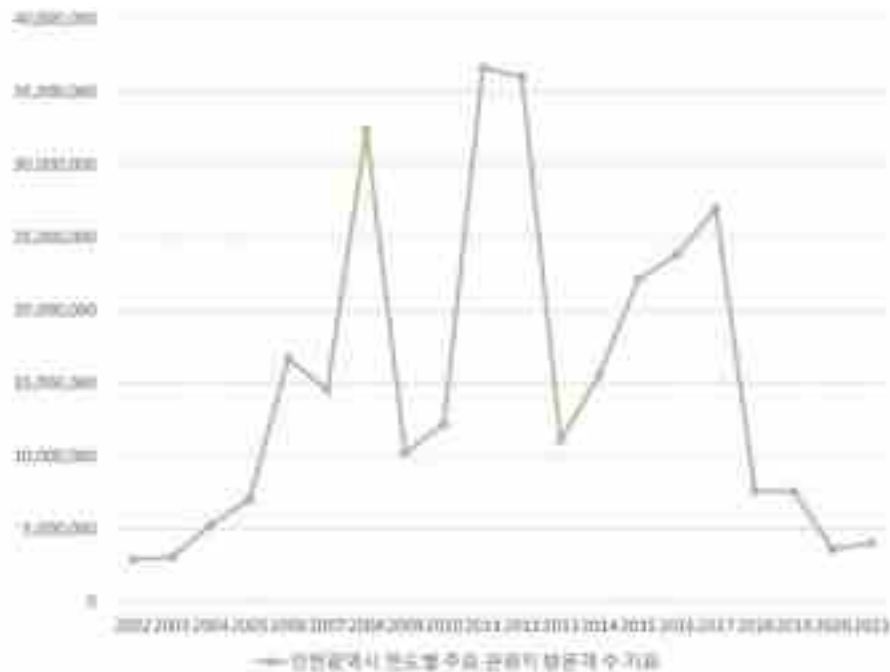


그림 4-46. 연도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지표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 외지방문자수가 늘고 있으며,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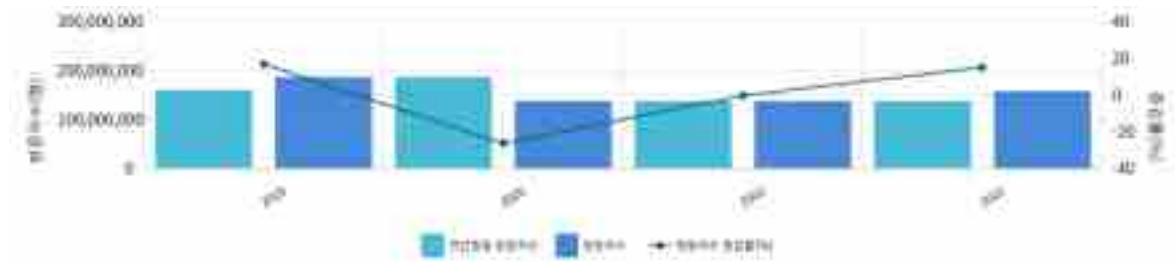


그림 4-47.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방문자 수(연인원) 추이 (방문자 수는 외부방문자 기준)



그림 4-48. 방문자 거주지 분포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방문자의 거주지 분포, 거주지가 명확히 파악되는 방문자 수만 집계)

그림 4-49. 내비게이션 검색유형 분포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해당지역 유형별 목적지 검색량 분포, 차량이동 기준 (실제 방문자 수와 차이 있음))



그림 4-50.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현지인/외지인 관심 지점 비교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현지인과 외지인별 인기 검색 목적지 유형의 분포를 보여줌)

- 인천광역시는 관광객 중 관람객과 외지인의 비율이 높으며, 근대 문화유산이 많다.
-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현저히 줄었던 방문객도 느는 추세이다.

3.2.3.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 평가 종합

구분		우정통신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복합 문화시설	인천문화유산 실감체험시설
수익성	입장료	유료	유료	무료	무료
	굿즈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유료체험	있음(챌린지)	없음	없음	있음(챌린지)
	카페	있음	있음	없음	있음
경제성	경제적 파급 효과	3	2	1	4
	유동인구	2	1	4	3
	소비인구 유입	3	2	1	4
	전문가 지원 필요	1	2	4	3
발전성	지역균형발전	2	1	4	3
	지역 고용인구 창출	4	3	1	2
	주민 삶의 질적 향상	2	1	4	3
합리성	구체성 (활용 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	4	1	2	3
	관련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4	2	1	3
	희소성	4	1	2	3
사회성	지역 부흥성 (인천 이미지 개선)	4	1	2	3
	지역 커뮤니티 창출	2	3	4	1
정체성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적절성	4	2	1	3
	문화유산 정체성	4	2	1	3
비용성		3	1	4	2
점수 총합		46	25	36	43
추천순위		1	4	3	2

점수는 1~4점까지 있으며, 타당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큼.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 평가 내용 - 우정통신박물관, 미술관

구분		우정통신박물관		미술관	
수 익 성	입장료	유료	체험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유료로 진행	유료	지역예술가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료로 진행
	굿즈	있음	우정통신박물관만의 굿즈제작 및 K-문화 굿즈판매	있음	지역예술가와의 콜라보로 굿즈 제작 판매
	유료체험	있음	챌린지- 사전 예약, 별도 요금 필요	없음	입장료에 포함 (체험형 예술)
	카페	있음	각 분기별 테마별로 다르게 연출 (우정통신, K-문화)	있음	각 분기별 테마별로 다르게 연출 (예술가와 콜라보)
경 제 성	경제적 파급 효과	2위	전시 및 체험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효과 높음	3위	전시와 굿즈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낮음 (인천 내 사립 미술관의 존재감이 큼)
	유동인구	3위	우정통신박물관의 희소성에 따른 유동인구 확보, 하지만 오락성이 낮아 3위로 설정	4위	체험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오락성과 흥미성이 떨어져 4위로 설정
	소비인구 유입	2위	우정통신박물관이라는 희소성, 교육성에 따른 소비인구 유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	3위	인천 내 사립 미술관으로 인해 소비인구의 유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문가 지원 필요	4위	개관 초기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추후엔 체험 프로그램의 검수 정도만 필요 (전시는 고정, 체험과 챌린지는변경)	3위	개관 초기부터 운영중전시 내용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전시관 구성, 계획이 필요함
발 전 성	지역균형발전	3위	인천 우정통신의 교육성, 희소성이 높지만 오락성이 4안에 비해 떨어져 3위로 설정	4위	지역예술가들의 발전 외에 외부 관람객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도가 낮음
	지역 고용인구 창출	1위	인천 지역의 우정통신에 대한 역사,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고용인구 창출이 가능	2위	지역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과 전시 진행을 위한 지역 고용인구 창출이 가능
	주민 삶의 질적 향상	3위	소비인구의 유입, 지역 고용인구 창출 등을 통한 인천의 이미지 향상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적 향상 가능, 박물관의 전시 변화가 적어 유입인구에 한계가 있음	4위	소비인구 유입과 유동인구가 적어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의 효과 미비
합 리 성	구체성 (활용 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	1위	인천의 주체성, 지역의 특별함, 외부인들의 관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4위	미술에 대한 다양한 전시로 구성, 하지만 인천만의 특별함이 적고, 관람객들의 관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
	관련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1위	구)인천우체국 문화유산의 가치성, 고유성, 특별함에 모두 부합하는 결과물 제작이 가능한 계획 안	3위	구)인천우체국과의 관련성이 낮고, 지역성 및 고유성 모두 부합되지 않아 3위로 설정
	희소성	1위	인천의 우정통신에 대한 전문성 확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우정통신박물관으로 인천의 랜드마크로 활용	4위	지역 예술에 대한 희소성 확보, 하지만 같은 지역에 큰 미술관이 여러 개 있음
사 회 성	지역 부흥성 (이미지 개선)	1위	인천의 우정통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확보및부흥	4위	지역예술가들로 인한 지역 이미지 개선의 효과는 미비
	지역 커뮤니티 창출	3위	박물관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적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창출이 가능함	2위	지역예술가들을 주축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형태의 커뮤니티 확장이 가능함
정 체 성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적절성	1위	구)인천우체국의 본래의 기능을 살린 우정통신박물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이 우수	3위	구)인천우체국과의 연관성은 없지만 문화유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문화유산 정체성	1위	우체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의 박물관 개관	3위	우체국과의 연관은 없지만 인천 지역예술과의 연관성 있음
비용성		2위	초기 개관을 위해서는 전시를 위한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따른 전시 내용 구성, 전시 계획, 전시품 확보, 체험형 소품 확보, 체험형 배경 및 기기 확보 등의 비용이 필요	4위	개관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예술가 선정을 위한 공모전, 공모전 결과에 따른 전시 구성, 전시 계획, 굿즈개발등의 비용이 필요
추천순위		1위	46점의 최고점	4위	25점의 최저점

• 평가 내용 - 주민편의복합문화시설, 인천문화유산실감체험시설

구분		주민편의복합문화시설		인천문화유산실감체험시설	
수 익 성	입장료	무료		무료	체험 및 콘텐츠를 위한 공간
	굿즈	없음		있음	인천 문화유산, K-문화 굿즈제작 및 판매
	유료체험	없음		있음	하이커챌린지- 사전 예약, 별도 요금 필요
	카페	있음	쉼터의 역할	있음	각 분기별 테마별로 다르게 연출 (문화유산, K-문화)
경 제 성	경제적 파급 효과	4위	주민편의시설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비	1위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으로 인한 방문인구 유입이 많고, K-문화 관련 굿즈판매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큼
	유동인구	1위	인천시 주민들의 유동성이 크고, 편의시설에 따른 주기적인 유동인구도 존재	2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문화, 미디어 및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유동인구 확보, 놀이터로 활용
	소비인구 유입	4위	주민들 외 소비인구의 유입이 거의 없음 (카페 시설 외에는 소비 항목이 없음)	1위	K-문화,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 및 굿즈 등을 위한 인천시 내외 소비인구의 확보, 주변 상권 활성화
	전문가 지원 필요	1위	각 시기별로 달라지는 지원 시스템에 따른 전문가 필요, 각 시기나 정책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2위	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지원 필요
발 전 성	지역균형발전	1위	주민편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2위	시설의 희소성, 특별함으로 인천시 내외 방문객의 많은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 가능
	지역 고용인구 창출	4위	주민들의 지원 시설로서의 역할이 강함	3위	전문성을 띄는 프로그램이 많아 각 분야별 전문가만 창출이 가능하여 지역 고용인구 창출이 많지 않음
	주민 삶의 질적 향상	1위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보호 시설, 가족 지원 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많음	2위	방문객의 확장으로 인한 인천시의 관광문화 활성화,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인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합 리 성	구체성 (활용 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	3위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한계가 있으나,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구체성을 갖고 있음	2위	미디어와 콘텐츠를 제작하고 결과물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음
	관련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4위	구)인천우체국과는 연관이 없음,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시설	2위	구)인천우체국과의 연관성이 낮지만, 인천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와 콘텐츠화를 통한 부합성이 있음
	희소성	3위	인천 내에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주민편의복합문화시설이 곳곳에 생기고 있고, 생길 예정임	2위	인천 문화유산과 미디어, K-문화를 결합한 실감체험 프로그램의 희소성이 높고, 인천 내에서 오락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장소로 활용이 가능
사 회 성	지역 부흥성 (이미지 개선)	3위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미지 개선	2위	인천을 가면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 및 부흥을 유도
	지역 커뮤니티 창출	1위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주민편의시설의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4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시설의 발전보다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의 활성화
정 체 성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적절성	4위	구)인천우체국 본래의 기능과 다르게 활용되며, 내부 실 구성의 형태도 편의시설에 따라 달라짐	2위	구)인천우체국을 원래 형태대로 활용이 가능하며, 원래의 형태에 미디어나 콘텐츠를 결합해 활용 가능
	문화유산 정체성	4위	문화유산의 정체성과 연관된 시설은 없음	2위	구)인천우체국의 정체성과 결합한 미디어, 콘텐츠 시행
비용성		1위	개관을 위해서는 실 구성 계획, 편의시설 종류 계획, 설비, 시설 등 정도이지만, 주민편의시설로서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비, 운영비, 시설비, 지원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	3위	개관을 위해서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기 확보, 그에 따른 콘텐츠 개발, 전시 계획,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배경 및 기기 등의 비용이 필요
추천순위		3위	36점	2위	43점

3.3.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결과

3.3.1. 우정통신박물관 활용 계획 및 원형복원

- 향후 정밀실측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복원 고증 연구 및 구조안정성 검토 등을 통해 복원 추진

1) 1층 활용 방안

1. 메인 통로 (활용 예시) • 박물관 관람 안내 시설(장소) • 시설 메인 통로	2. 휴게공간 (활용 예시) • 쉼터, 굿즈샵 • 인천시 정책 홍보 등	
3-1. 전시공간 1 (활용 예시) • 인천우체국의 변천 • 과거 근대화의 창구 역할을 한 인천 소개 •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 • 등대의 효사인 팔미도 등대 • 최초의 철도 경인선	3-2. 전시공간 2 (활용 예시) • 전신기, 전화기, 통신기, 전보 등 통신 발달 과정 전시 • 한국 최초의 관용, 민간용 전화 설치한 전화의 시발지 •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시작	3-3. 전시공간 3 (활용 예시) • 예전 통신기기들을 직접 만져보고, 통신해보는 체험 • 영상물을 통한 간접 체험
원형 복원 시 철거 부분 외부공간 활용		향후 복원 설계 시 주의사항
중정 야외 공간 (활용 예시) • 철거된 공간을 활용한 챌린지 • 야외에서 진행하거나 챌린지를 위한 간이시설 설치 • 야외 정원, 미니 공연장	철거 : 별관, 중정 증축부 (활용 예시) • 철거된 공간을 주차장 및 부대시설 (전기실 등) 설치 • 유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장소 활용	7. 수장고 소장품 보관



그림 4-51. 인천 우정통신박물관 1층 활용 및 복원 계획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2) 2층 활용 방안

1. 전시공간 4 (활용 예시) · 집배원의 변천 과정 · 복식 체험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우편을 배달하는 업무 체험 (가족, 어린이, 저학년 대상)	2. 전시공간 5 (활용 예시) · 우편과 우표의 역사 · 우체국, 우체통, 심벌마크 변천 · 실제 편지에 우표를 붙여보고 우체통에 넣고, 우편을 배달까지 해보는 체험 가능 · 우편 배달하는 사람 전시실과 연계해서 체험 진행
3. 다목적실 (활용 예시) · 역사 및 박물관 관련 교육 공간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 회의실, 문화 강좌 공간	4. 운영/업무 (활용 예시) · 박물관 사무실



그림 4-52. 인천 우정통신박물관 2층 활용 및 복원 계획

(본 계획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규모 및 세부사항은 향후 기본설계를 따름)

IV.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3.3.2. (구)인천우체국 현황 및 복원안 조감도



그림 4-53. (구)인천우체국 동측 전경 조감도 - 현황



그림 4-54. (구)인천우체국 동측 전경 조감도 - 복원안



그림 4-55. (구)인천우체국 북동측 전경 조감도 - 현황



그림 4-56. (구)인천우체국 북동측 전경 조감도 - 복원안



그림 4-57. (구)인천우체국 북측 전경 조감도 - 현황



그림 4-58. (구)인천우체국 북측 전경 조감도 - 복원안

3.3.3. 민간협력 방안

1) 민간협력 사례

- 국립대구과학관 - KT
 - ‘유선통신역사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망 구축사업전’ : 2022년
 - 국립대구과학관이 KT의 통신 사료를 임대하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 KT : 대구 경북 ESG팀과 본사 홍보실
 - 운영 방식 : 통신사료를 전시하고 도슨트(해설자)가 설명하는 방식
 - KT 소장 통신사료 : 약 6,000점



그림 4-59. 국립대구과학관-KT협력 전시



그림 4-60. 국립대구과학관-KY협력 전시 포스터

2) 민간협력 방안

- 인천우정통신박물관과 KT의 협조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청과 KT의 협력
 - 인천우정통신박물관이 KT와 협력하여 전시계획 수립하고, 사료 검토
 - 사료 실물 확인 후 전시관에 맞도록 전시 품목 결정
 - IT 기술을 접목한 방식을 고려하여 전시방식 계획

V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2. 건축공사(리모델링) 추진 방향
3. 사업투자계획
4.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1. 사업추진방향

1.1. 기본방향

1.1.1.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최우선하는 정비계획

- (구)인천우체국은 근대 초기 우체국의 사례로서 비슷한 시기의 근대문화유산이 주변에 공존하고 있어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과도하고 무리한 복원보다는 현재의 보존 여건을 확립하여 향후 혹시라도 야기될 수 있는 훼손을 막는 보존이 우선 되도록 해야 한다.
- 효과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통하여 (구)인천우체국을 안정적인 상태로 보존한다.

1.1.2. 현실적인 사업추진계획 제시

-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정비계획에서는 사업별, 활용계획 등 단계별 목표연도에 따라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모색한다.

1.1.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확보

- (구)인천우체국에 대한 탐방여건 확립과 주변 환경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1.2. 사업추진전략

1.2.1. 사업구분

1) 학술연구

- (구)인천우체국에 대한 심층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 토의를 진행하여 뛰어난 역사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 원형에 관한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1) 자료 아카이빙

- 인천우체국 관련 자료에 대한 정리 및 아카이브 구축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공동 추진

(2) 아카이빙 자료 기반 근대 건축문화유산 가치 재평가

- 문화유산 가치 고증 연구
- 복합구조(조적 및 철골) 거동 특성 연구
- 재료, 시공방법 특성 연구

(3) 활용방안에 따른 운용, 관리 실행계획 수립 연구

- 건축물에 대한 활용을 진행하면서 관련 운영 및 실행계획 수립

2) 실측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 학술연구와 활용계획의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1) 정밀실측조사(6개월)

- 3D Scan, 실측도면, 훼손 현황도, 실측조사보고서

(2) 공공건축기획(6개월)

- 정밀실측조사의 실측도면협조

(3) 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기획 (8개월, 인허가기간제외)

- 정밀실측조사의 실측도면협조
- 활용계획을 반영한 건축 기본계획 및 전시기획
- 사용계획 반영한 구조계획 또는 구조안전진단(구조도면+구조계산서포함)
-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유산 현상변경

3) 보존정비 및 건축공사

- 현황 정비 및 보수
- 활용방안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 문화유산 가치 평가에 따른 복원

1.2.2. 연도별 사업 계획표

1)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표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세부 기간)
문화재 가치 고증								▶ 6개월(기록화보고서) (’23.07.~’24.12.)
활용 용역								▶ 13개월 (’23.07.~’24.07.)
활용 방침 확정								▶ 2개월 (’24.07.~’24.08.)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 8개월 (’24.11.~’25.06.)
문체부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								▶ 5개월 (’25.07.~’25.11.)
투자심사								▶ 1개월 (’25.12.~’26.03.)
건축기획용역								▶ 6개월 (’26.07.~’26.12.)
기본 및 실시설계								▶ 8개월 (’27.01.~’27.08.)
전시기획용역								▶ 8개월 (’27.01.~’27.08.)
자료조사 및 수집								▶ 22개월 (’27.01.~’28.10.)
시설공사								▶ 14개월 (’27.09.~’28.10.)
전시기획 준비								▶ 2개월 (’28.11.~’28.12.)
개관 및 운영								※ ’29.1월 개관

1.3. 사업추진 시 필요 요소

1.3.1. 행정체계

-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은 문화유산청, 중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 지역 주변 소유주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
 - (구)인천우체국의 정비는 물론 관련 시설들을 조성하는 일련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향후 (구)인천우체국의 관리운영 등, 대부분 사업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 자원화,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3.2. 소요예산

- 소요예산 확보
 - (구)인천우체국의 관련 사업 시행 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예산의 일정 비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한다.
- 소요 사업비 산출 상 전제 사항
 - 사업투자계획의 소요 사업비는 2024년의 단가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실제 사업의 추진에서는 물가 변동률 및 기타 요소들을 반영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2. 건축공사(리모델링) 추진 방향

2.1. 건축공사(리모델링) 방법 검토

2.1.1. 안전진단·점검 진행 경과

1) 안전진단·점검 개요

- 인천우체국은 1997년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이후 2018년(D등급)과 2020년(C등급)에 정밀안전진단을 두 차례 진행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연 3회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됨.

2) 안전진단·점검 등 구분²³⁾

- 정기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 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 점검자는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 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 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참조(2021.12)

V. 사업추진계획

표 5-1. 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 기준(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표 5-2. 정기안전점검 실시 지침(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 C등급	
D, E등급	1년에 3회 이상

표 5-3.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침(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	4년에 1회 이상

3) 안전진단 관련 참고사항

- 정밀안전진단 / 구조안전진단 비교

구분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
특징	• 법률로 정하는 의무에 의함	• 건축주의 수요에 의함
대상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또는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축행위 대상 건축물
목적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조안전확인서 발급을 목적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 결함 육안조사, 기울기 조사, 부재실험, 콘크리트 강도 조사, 철근탐사, 탄산화시험, 염화물시험 등 • 구조해석(도면+구조계산서) • 보수·보강방법제시 •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 구조해석을 위한 부재실험, 콘크리트 강도 조사, 철근탐사 등 • 구조해석(도면+구조계산서) : 구조보강설계 • 구조안전확인서발급(구조보강필요시 조건부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해당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구조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의해 주기적으로 의무적 수행 • 구조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행위 의사에 따라 필요한 행위 • 구조기술사(구조확인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
님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은 제3종 시설물임)

※ 관리 주체가 필요시 시행했을 경우 관리 주체의 자료 확인 필요

: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리 주체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인허가 행위를 위해 구조안전확인서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단독 시
행하거나, 법률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밀안전진단 행위에 구조안전확
인서 발급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포함시켜 발주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제8조2항, 제10조 제1항 및 제28
조 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우수)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양호)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C(보통)						
D(미흡)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불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4) (구)인천우체국 안전점검 연도별 진행현황

연도	진단 및 점검업체	진단, 점검구분	평가 등급	내용
1997.10	(주)한국종합 건축사사무소	건물구조 안전진단	-	
2018.10	(주)대한이앤씨	정밀안전진단	D	
2019.4~5	(주)제이와이건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기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평가됨.
2019.10~11	(주)제이와이건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건물전반에 걸쳐 균열, 외벽 몰탈마감재 박리 및 박락, 지반 침하로 의심되는 균열.
2019.11~12	엘림주식회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계단실 벽체 누수 흔적, 보 균열 및 누수 흔적, 바닥균열, 천장 마감재 누수 흔적, 파라펫균열 · 외부 벽체 균열, 내부 벽체균열 및 누수 흔적.
2020.3~4	효심주식회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내부 계단실 벽체균열, 천장 텍스 누수 흔적, 바닥균열, 일부보 및 슬래브균열, 누수 흔적 · 지붕층계단실벽체 누수 흔적, 보 균열, 외부 마감재 균열, 파손, 외부 옹벽 균열
2020.6	효심주식회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내부 계단실 벽체균열, 천장 텍스 누수흔적, 바닥균열, 일부보 및 슬래브균열, 누수흔적 · 지붕층계단실벽체 누수흔적, 보 균열, 외부 마감재 균열, 파손, 외부 옹벽 균열
2020.10~11	효심주식회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지상층벽체 균열 및 이격, 각 실, 복도 천장 텍스 누수흔적 · 옥상 파라펫균열 및 마감재 탈락, 바닥 방수층 파손, 외부 벽체 마감재 균열 및 파손
2020.11	(주)합건설 방재기술단	구조정밀 안전진단	C	· 구조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안전진단 평가등급 조정.
2021.4~5	(주)테라이엔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지붕층의 몰탈들뜸 · 지상층천장 누수흔적 및 곰팡이, 박락
2021.5~6	(주)테라이엔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지붕층의 몰탈들뜸 · 지상층천장 누수흔적 및 곰팡이, 박락
2021.7~11	(주)테라이엔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지붕층의 몰탈들뜸 · 지상층천장 누수흔적 및 곰팡이, 박락
2022.1~2	(주)유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각층 사무실, 복도 천장 텍스 누수흔적 및 박락 · 지상1층~지상2층 외부 벽체 균열
2022.6	(주)유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각층 사무실, 복도 천장 텍스 누수흔적 및 박락 · 지상1층~지상2층 외부 벽체 균열
2022.11	(주)유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각층 사무실, 복도 천장 텍스 누수흔적 및 박락 · 지상1층~지상2층 외부 벽체 균열
2023.1~3	(주)테라이엔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D	· 외부벽체:장기간 외기노출로 인한 노후화 및 휨응력에 의한 균열 발생 · 각층 천장 마감재 : 배관연결부 누수 및 우수에 의한 텍스 누수 흔적

5) (구)인천우체국 2020년 정밀안전진단

- 진단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본 정밀안전진단은 건물의 용도를 전시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구조안전성 및 사용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시설물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및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조사·추적하여 내구성 및 내하력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구조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018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를 누락한 상태로 외관조사 및 내구성 평가를 반영한 상태평가만으로 D등급으로 평가함.
- 외관조사 및 내구성 평가를 반영한 상태평가와 구조안전성 평가를 반영한 종합평가 실시 후 C등급으로 조정.

표 5-4. 정밀안전진단 진행 세부사항

과업항목	과업 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열, 누수, 파손, 탈락, 이격등 • 현장 재료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파괴콘크리트강도 시험, 철근배근조사, 탄산화 시험, 부재치수조사, 변위·변형조사등 • 실내 재료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필요시) • 지질조사(필요 시)
상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 내진성능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시)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 도면 작성 등

V. 사업추진계획



그림 5-1. 2020년 정밀안전진단 현황

• 2020년 정밀안전진단 진단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			
구분	항목	결과	비고
구조안전	1. 구조물 안전성	양호	
	2. 구조물 내구성	양호	
	3. 구조물 사용성	양호	
	4. 구조물 화재 안전성	양호	
화재안전	1. 화재 위험도	중	
	2. 화재 발생 가능성	중	
	3. 화재 확산 가능성	중	
	4. 화재 진압 가능성	중	
소방안전	1. 소방 시설	양호	
	2. 소방 인력	양호	
	3. 소방 훈련	양호	
	4. 소방 장비	양호	
기타	1. 기타 안전	양호	
	2. 기타 내구성	양호	
	3. 기타 사용성	양호	
	4. 기타 화재 안전성	양호	

6) (구)인천우체국 2023년 정기안전점검

- 진단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시설물별 적정 점검 방법과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 2020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평가함.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서는 D등급 유지.

표 5-5. 정기안전점검 진행 세부사항

과업항목	점검 방법
자료조사	1) 관련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련 기준, 건축법 2)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사전조사	1) 진단건물 규모 및 이력파악 2) 관계자 의견 청취 3) 설계도면 및 건축물대장 검토
현황조사	1) 균열 및 기타 현황조사 : Vernier Calipers, Doctor Hammer, 줄자 2) 사용상태 및 하중 조사 3) 건물 내·외부 변위 및 변형상태 조사 4) 보수·보강 부위 조사 5) 재료의 조사

표 5-6. 손상 현황별 발생 예상 원인 분석

손상 종류	손상현황 발생원인
구조체 균열 (슬래브, 보, 벽체, 바닥)	재료의 온도변화에 의한 건조수축
비구조체 균열	재료 온도변화에 의한 건조수축, 응력집중
누수, 누수흔적, 백화	누수, 누수흔적 : 균열부에 우수 등 침투 백태 : 누수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석회화합물의 용해되어 퇴적
접합부 이격	이질재의 서로 다른 온도변화에 따른 건조수축 차이
콘크리트 박리 및 박락	외부충격, 철근 부식으로 인한 부피 팽창 등으로 발생
철근노출	철근 피복두께 미확보, 철근 부식으로 인한 콘크리트 박락으로 발생
마감 박리, 박락, 들뜸, 탈락 등	습윤상태 및 부착력 저하로 발생
지붕층바닥 마감재 박리, 박락, 균열 등	장기간 외기노출로 인한 부착력 저하, 열화
슬래브 마감재 누수 흔적	슬래브 균열부 누수 및 배관 연결부 누수
바닥 방수층 체수흔적	구배불량



그림 5-2. 2023년 정기안전점검 현황

V. 사업추진계획

- 2023년 정기안전점검 점검결과

[illegible]

2.1.2. 안전진단 결과

1) 개요

- 2003년 대수선공사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3회와 2020년 구조정밀안전진단이 있었다.
- 현재 정기안전점검의 안전등급은 'D', 구조정밀안전진단의 안전등급은 상태 'C', 안전성 'B', 종합 'C'로 평가된다.
- 양호한 안전등급 'B'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주요구조체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 정기안전점검은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관찰한 결과로 2023년 정기안전점검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동절기에 조사되었던 지붕층 파라펫 조적 파손 및 박락, 망상균열/지하1~지상2층 사무실, 복도, 휴게실의 천장 마감재 누수 흔적 및 박락/지상1~지상2층 외부 벽체균열은 진전 및 확대가 없는 상태
 - 주요 보소·보강 사항 : 조적벽체 균열, 접합부 이격
 - 따라서, 관찰결과는 이전의 정기안전점검에 비해 훼손의 진전은 없음
-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 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 각종 측정,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한 2020년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인천우체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한다.

2) 20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1) 외관조사 결과 : C등급

- 결함발생 부재 : 슬래브, 보, 기둥, 조적벽체, 철골부재
- 평가결과
 - 철골부재 : A등급
 - 슬래브, 보, 기둥 : B등급
 - 조적벽체 : C등급

(2) 안전성평가 결과 : B등급

- 안전성 평가수행 부재 : 슬래브, 보, 기둥, 벽체
- 평가결과
 - 슬래브, 보, 기둥, 벽체 : B등급

(3) 현장시험(비파괴 및 추가시험) 결과 : 양호

- 시험 종류(시험명)
 - 콘크리트 비파괴 : 양호
 - 철근배근조사 : 구조안전성 검토시 반영
 - 부재치수 : 구조안전성 검토시 반영
 - 탄산화시험 : 내구성 저하 미미
 - 염화물 함유량측정시험 : 양호
 - 건물의 기울기(외벽모서리) : 구조물의 안전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
 - 건물의 변위·변형(바닥슬래브) : 구조물의 안전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
 - 강재상태(내화피복, 지붕트러스) : 양호
 - 강재접합부(볼트접합) : 양호
 - 강재접합재부식(볼트접합) : 양호

(4) 주요 보수·보강 방안

- 주요 구조체의 평가결과
 - 조적벽체 외 다른 주요부재 및 구조체는 평가등급 'B' 이상
- 주요 보수·보강 방안
 - 슬래브 : 상부 미장 보수
 - 외부 조적벽체 : 부분철거 후 재시공, 재도장
 - 지붕층 파라펫 : 부분철거 후 재시공, 마감 재시공
 - 천장 마감재 : 마감재 교체

2.1.3. 조적벽체 보수·보강 방법

1) 개요

- (구)인천우체국의 보수·보강은 안전진단결과 조적벽체의 안전성을 확보가 중요
- 조적벽체의 다른 건축공사
 - 원형의 확인 후 정비계획의 방향과 원형에 맞게 마감 보수
- 조적벽체
 - 외벽을 구성
 - 보수·보강 공사로 부분철거 후 재시공
 - 원형으로 마감공사

2) 설계

- 설계도서
 - 설계시 건물의 훼손 부위 및 현황과 원형 파악
 - 재료특성 분석 : 벽돌의 연혁조사, 수급처 파악
- 구조설계도서
 - 구조안전진단
 - 구조체 및 부재 조사
 - 내구성조사
 - 재료특성 분석 : 점토 벽돌의 물리적 성능, 모르타르의 화학적 분석 등

3) 시공

(1) 현황

- 외부 조적벽체 마감에 균열 및 도장 훼손이 발생

(2) 수리범위

- 외벽 및 내벽의 훼손된 조적벽체 보수
 - 벽체 보수
 - 창호 및 기단부 보수
 - 지붕 파라펫 보수

(3) 수리절차

- 외벽 모르타르 마감 해체
- 건물의 각 모서리에 철골을 덧대어 임시구조보강
- 외벽 벽돌 훼손부위 해체

- 해체된 벽돌을 상부까지 교체 벽돌로 쌓기
- 내벽 시멘트모르타르 마감 해체
- 내벽 벽돌 훼손 부위 해체
- 해체된 벽돌을 상부까지 교체 벽돌로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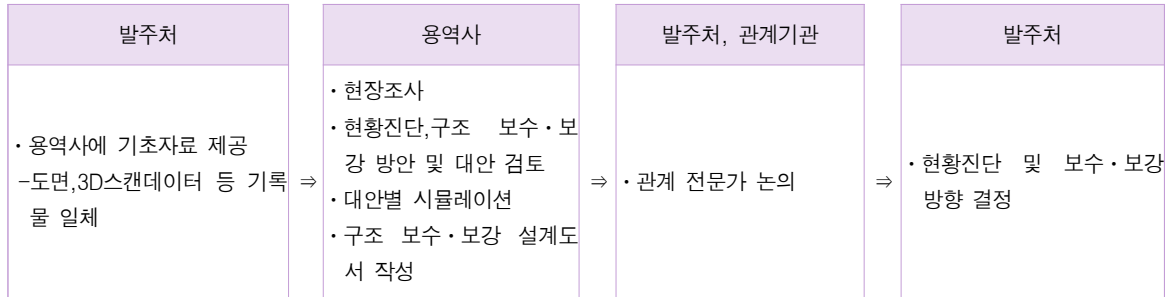
표 5-7. 조적벽체 보수공사 방법

구분		주요내용
재료	적벽돌	• 설계 시 현장조사와 해체 시 나오는 파벽돌을 재활용하고 부족분은 주문제작
	모르타르	• 재료특성 조사된 모르타르
	기타	• 시멘트용 고급 분말 혼화제 - 모르타르의 모세관 운동을 억제 투수 및 흡수차단으로 방수 효과 증대 - 백화현상을 억제하며 높은 점성으로 모르타르의 접착성을 높여줌.
조사		• 설계도서 - 훼손 부위 및 현황과 원형 파악 • 구조안전진단 - 현황조사 - 구조체 내구성 조사 - 재료특성 분석
시공	미장해체	• 미장 두께를 파악하여 일정한 깊이로 잘라내어 벽돌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함.
	임시구조보강	• 미장 해체 후 벽돌의 훼손이 심각할 경우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철골로 건물의 각 모서리를 연결하여 보강함. • 가설비계를 이용하여 보강한 경우에는 비계에 가해지는 진동 등이 건물에 직접 전달되어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
	벽돌 해체	• 벽돌 부위에 따라 완충해머와 줄눈제거기로 벽돌을 한 장 단위 해체를 하거나 파쇄함. • 넓은 범위의 해체를 할 경우에는 벽돌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범위 밖의 벽돌의 훼손을 방지해야 함.
	벽돌쌓기	• 외벽의 벽돌을 교체한 후 내벽을 교체함. • 창틀쌓기는 형틀을 제작하여 창틀을 보강한 후 쌓음.

2.2. 건축공사(리모델링) 세부 추진 방법 및 절차

2.2.1. 구조 안전점검

1) 점검 진행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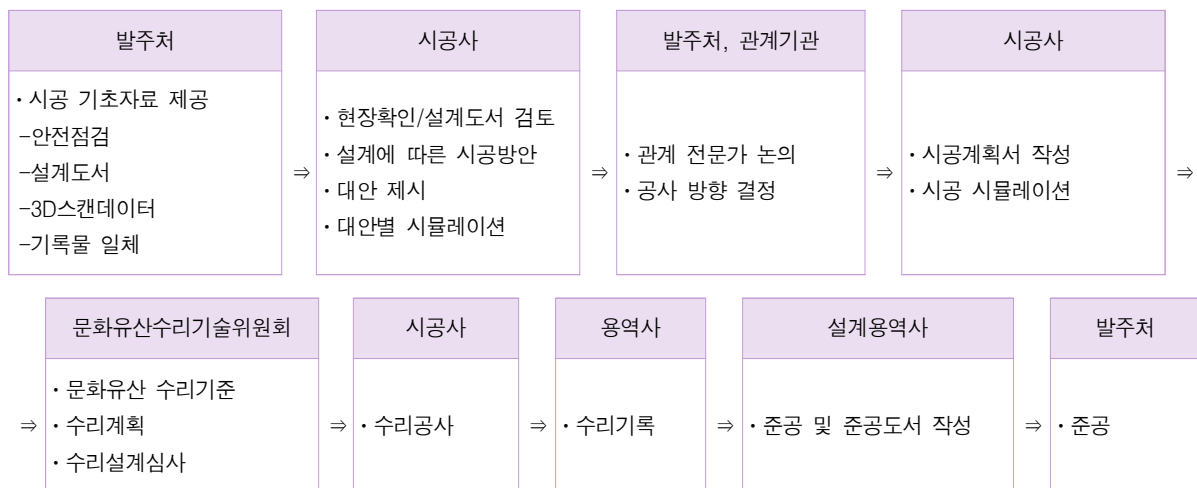


2.2.2. 건축(리모델링) 공사

1) 설계 진행 순서



2) 시공 진행 순서



3. 사업투자계획

3.1. 사업별 투자

1) 정비방향 설정

- 문화유산 연구, 실측
 - 복원 시점 연구
 - 정밀실측조사, 도면 작성
- 설계 및 구조·재료 분석
 -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 공공건축기획용역
 - 건축구조 특성 연구
 - 건축재료 특성 조사
 - 기본, 실시설계
 - 활용리모델링
- 보수, 복원
 - 외관 고증 복원
 - 내부 시설물 복원
 - 배수 및 누수 점검 보수

2) 유지관리

- 유지관리
- 주변 환경 정비

3.2. 연차별 사업계획

- 1년차 (2024년)
 - 정밀실측조사, 활용 방침 확정,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 2년차 (2025년)
 -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문체부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 투자심사
- 3년차 (2026년)
 - 투자심사, 공공건축기획·심의
- 4년차~5년차 (2027년~2028년)
 - 기본 및 실시설계(현상변경 허가, 구조설계, 건축재료 특성조사)
 - 전시기획용역, 자료조사 및 수집
 - 건축구조 및 건축재료 특성 조사, 외관 복원 고증, 내부 시설물 복원, 배수 및 누수

V. 사업추진계획

점검 및 보수

- 건축공사 (건축 리모델링, 활용 리모델링, 전시)
- 전시기획 준비

표 5-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업	사업내용		규모	금액	현황	계획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문화유산조사	실측, 설계	복원 시점 연구	1식	별도	별도						인천문화재단 성과활용
	실측	정밀실측조사, 도면 작성	1식	150,000		150,000					
	소계			150,000		150,000					
설계	설계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1식	150,000		75,000	75,000				
	설계	공공건축기획 용역	1식	50,000				50,000			구조설계 등
	구조	건축구조 특성 연구	1식	100,000					100,000		
	구조, 설계	건축재료 특성 조사	1식	80,000					80,000		구조설계, 설계 등
	설계	기본, 실시설계	1식	500,000					500,000		건축
	활용	활용리모델링	1식	450,000					450,000		운용, 개발 계획, 설계등
	소계			1,330,000		75,000	75,000	50,000	1,130,000		
시공	보수, 복원	건축구조 특성 연구	1식	80,000					40,000	40,000	구조보강, 설계 등
	보수, 복원	외관 고증 복원 (고증에 따라 사업비 변동)	1식	580,000					290,000	290,000	복원
	보수, 복원	내부 시설물 복원	1식	970,000					485,000	485,000	복원
	보수	배수 및 누수 점검 보수	1식	80,000					40,000	40,000	긴급보수
	활용	리모델링 (우정통신박물관)※	1식	5,222,659					2,611,329	2,611,330	활용리모델링
	활용	활용 (우정통신박물관)	1식	별도					별도	별도	전시, 콘텐츠
	소계			6,932,659					3,466,329	3,466,330	
총사업비				8,412,659		225,000	75,000	50,000	4,596,329	3,466,330	2029년 개관

- 리모델링(우정통신박물관) 복원계획기준
 - 본관 증축부(중정, 화장실) 및 수위동, 별관동 철거
 - 본관 원형 복원
 - 건축 리모델링 공사 및 기계·전기·소방·설비·철거 공사 예상사업비
 - 활용(전시설계 및 공사) : 별도

4.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4.1. 경제적 타당성

4.1.1. 분석기법

- 경제성 분석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및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 IRR)이 있음
-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남 체육관 건립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1)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 편익/비용 비율이 높은 사업 또는 대안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 또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함
- 편익/비용 비율의 결과에 따라 대안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으나, 예산의 제약 때문에 순편익이 큰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

$$\text{편익/비용비율}(B/C)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 B_t : t 차년도 편익, C_t : t 차년도 비용,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2)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법은 투자 대안 별 각 투자 기간에 발생하는 순 편익의 합계를 순현재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순현재가치의 결과값이 '+', 즉 'NPV > 0'의 결과값이 나타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또는 대안으로 평가됨
- 순현재가치의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미래에 발생할 순편익의 가치를 현재시점에 어떠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됨

$$\text{순현재가치}(NPV) = \sum_{t=0}^n \frac{B_0 - C_0}{(1+r)^0} + \frac{B_1 - C_1}{(1+r)^1} + \dots + \frac{B_n - C_n}{(1+r)^n} = \sum_{t=0}^n \frac{NB_t}{(1+r)^t}$$

※ B_t : t 차년도 편익, C_t : t 차년도 비용,

NB_t : t 차년도 순편익 = $B_t - C_t$,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대안별 사업 기간 동안 원활한 영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로서 사업 기간 동안의 편익과 비용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 시점의 가치화를 비교하였을 경우 'NPV=0'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경우의 수익률임

$$\text{내부수익률}(IRR) : \sum_{t=0}^n \frac{NB_t}{(1+r)^t}$$

※ NB_t : 1차년도 순편익 = $B_t - C_t$, n : 분석기간, r : 할인율

- 최초년도에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최초년도의 비용과 그 다음해부터의 순 편익이 일치하는 수익률(R)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써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결과값이 나오는 대안의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4.2. 경제적 분석

4.2.1. 비용 추정

1) 총사업비

- 우정통신박물관 복원정비 및 활용에 따른 사업비는 공사비, 용역비(문화유산조사, 설계) 등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고,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 사업비는 조달청의 공사비정보광장 및 국립기상박물관 등을 참고하여 1㎡당 공사비 평균치를 적용함
- 우정통신박물관의 총사업비는 8,412,659천원으로 산출됨
- 공사비가 6,932,659천원, 용역비가 1,480천원임
- 우정통신박물관 복원정비 및 활용에 따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확보를 검토
 - 공공주차장(맞은편 신포동 공영주차장), 공용부지 활용(KT항동지사, 인천문화재단) 또는 주차장 부지 매입,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 등 검토함.

표 5-9. 우정통신박물관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	사업내용	금 액	비 고
문화유산 조사 용역	복원 시점 연구	별도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성과 활용
	정밀실측조사, 도면 작성	150,000	
	문화유산조사 용역 소계	150,000	
설계용역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150,000	
	공공건축기획용역	50,000	구조설계 등
	건축구조 특성 연구	100,000	
	구조, 설계 (건축재료 특성 조사)	80,000	구조설계, 설계 등
	기본, 실시설계	500,000	건축
	전시 기획·설계	450,000	운용, 개발계획, 설계 등
	설계용역 소계	1,330,000	
시 공	건축구조 특성 연구	80,000	구조보강, 설계 등
	외관 고증 복원 (고증에 따라 사업비 변동)	580,000	복원
	내부 시설물 복원	970,000	복원
	배수 및 누수 점검 보수	80,000	긴급보수
	건축공사(리모델링)	5,222,659	활용 리모델링
	전시 및 개관준비	별도	전시, 콘텐츠
	공사비 소계	6,932,659	
총사업비		8,412,659	

2) 운영비

- 운영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타 사례의 운영비용을 참고함
- 우정통신박물관의 총운영비는 710,485,200원으로 산출됨
- 일반운영비가 311,292,000원, 인건비가 399,193,200원
- 기획전시비, 교육운영비, 유물구입비 등은 별도

표 5-10. 연간 일반운영비 추정 (단위 : 천원) ²⁴⁾

구분	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비정규직 보수	관서운영비
평균단가	-	1,866 / 인	500 / 인	15,470 / 인	20,400 / 인	80 / m ²
연간비용	311,292	9,873	2,645	81,849	80,950	135,975

24)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상세 기본 계획.(2018. p18.)' 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V. 사업추진계획

표 5-11. 연간 인건비 추정 (단위 : 원) 25)

직책	직급	인원	연봉	직급별 합계	비고
관장	일반 6급	1	54,663,840	54,663,840	
행정실	일반 7급	1	49,376,880	49,376,880	
	일반 8급	1	44,330,160	44,330,160	
	일반 9급	1	40,069,680	40,069,680	
학예실	연구사	4	52,688,160	210,752,640	
인건비 계		8	-	399,193,200	

※ 2024년 공무원 임금표 각 직급별 10호봉 기준

4.2.2. 편익 추정

- 우정통신박물관의 총편익은 58,500,000원으로 추정
- 입장 수입은 없고, 기타수익이 58,500,000원

1) 입장객 수

- 예상 입장객 수는 인근 관광지 권역인 한국이민사박물관 기준
 - 2023년 기준 60,488명
 - 입장객 증가율은 2010~2023년 연평균 6.86%
 -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

표 5-12. 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관람객 수 현황

연월(누적)	한국이민사박물관 관람객 수	증가율(%)	비고
2010-12-31	141,660		
2011-12-31	113,246	-20.06	
2012-12-31	115,588	2.07	
2013-12-31	161,737	39.93	
2014-12-31	109,077	-32.56	
2015-12-31	124,681	14.31	
2016-12-31	114,371	-8.27	
2017-12-31	103,159	-9.8	
2018-12-31	100,736	-2.35	
2019-12-31	98,510	-2.21	
2020-12-31	15,426	-84.34	
2021-12-31	24,360	57.92	
2022-12-31	54,438	223.47	
2023-12-31	60,488	11.11	

25)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상세 기본 계획.(2018. p18.)' 의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판매수익

- 우정통신박물관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품목은 굿즈샵의 기념품, 쉼터의 다과 및 차 등이 있음
- 일반적인 박물관의 구매 의사(15% 내외) 정도로 가정하고, 지불의사 금액은 10,000원으로 가정함.
- 원료비(5,000원)를 제외한 5,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표 5-13. 우정통신박물관 운영에 따른 예상수입

구분		금액	세부산출근거)	비고
총계		58,500,000원		
입장료		무료		
기타수익	기념품	45,000,000원	60,000명×15%=9,000명 9000명×5000원=45,000,000원	
	쉼터	13,500,000원	9000명×1500원=13,500,000원	

4.2.3. 경제성 평가

1) 분석의 기준

- 물가상승률 : 2.42% (최근 5년간 평균물가상승률)
- 사회적할인율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²⁶⁾의 5.5%적용
- 연차별 수지분석 기간 : 2024~2095년

2) 운영 형태

- 운영 방향 : 시(市) 직영
 - 박물관은 시장 경쟁 등의 수익정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탁관리보다는 시 직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26)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12.

V. 사업추진계획

표 5-14. 직영 / 위탁 운영 비교

구분	직 영	위 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확보 용이(수익 목적이 아님) · 지속성, 안정성이 강하며, 비교적 박물관의 수준이 높음 · 발굴 유물의 위임관리 용이 · 조직 활용(추가 인력 최소) ·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 · 종합적인 행정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집행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확보 용이 · 경영 시장원리 도입에 따른 생산성 제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운영의 독립성 결여 · 관료주의적 조직운영 우려 · 공무원 정원으로 추가 정원 확보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 훼손 우려 · 비용 절감 사유로 근로자 고용 불안 및 박물관의 질 저하 · 발굴 유물의 위임관리 어려움 · 감시비용 등 서비스 비용 증가 · 위·수탁자 간 책임 소재 불명확 · 설립 취지 및 목적 훼손 우려

3) 분석 결과

- 우정통신박물관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인천광역시 직영하는 경우로 앞서 추정한 운영비 710,485천원 및 편익비용 58,500천원을 그대로 적용함.
- 연차별 수지분석 결과,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운영 첫해인 2029년부터 순이익은 없는 것으로 산출됨.

표 5-15. 우정통신박물관 연차별 비용-편익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수 지 분 석			현 재 가 치		
	편 익	총 비 용	순 이 익	편 익	총 비 용	순 이 익
2024년	-	225,000	-225,000	-	225,000	-225,000
2025년	-	75,000	-75,000	-	71,090	-71,090
2026년	-	50,000	-50,000	-	44,923	-44,923
2027년	-	4,596,329	-4,596,329	-	3,914,297	-3,914,297
2028년	-	3,466,330	-3,466,330	-	2,798,080	-2,798,080
2029년	58,500	710,485	-651,985	44,760	543,617	-498,856
2030년	59,916	727,679	-667,763	43,454	527,746	-484,293
2031년	61,366	745,289	-683,923	42,185	512,339	-470,154
2032년	62,851	763,325	-700,474	40,953	497,382	-456,428
2033년	64,372	781,797	-717,426	39,758	482,861	-443,103
2034년	65,929	800,717	-734,787	38,597	468,764	-430,167
2035년	67,525	820,094	-752,569	37,470	455,079	-417,608
2036년	69,159	839,940	-770,781	36,376	441,793	-405,417
2037년	70,833	860,267	-789,434	35,314	428,895	-393,581
2038년	72,547	881,085	-808,538	34,283	416,374	-382,091
2039년	74,303	902,408	-828,105	33,283	404,218	-370,936
2040년	76,101	924,246	-848,145	32,311	392,417	-360,106
2041년	77,942	946,613	-868,670	31,368	380,961	-349,593
2042년	79,828	969,521	-889,692	30,452	369,839	-339,387
2043년	81,760	992,983	-911,223	29,563	359,042	-329,479
2044년	83,739	1,017,013	-933,274	28,700	348,560	-319,860
2045년	85,765	1,041,625	-955,860	27,862	338,384	-310,522
2046년	87,841	1,066,832	-978,991	27,048	328,505	-301,457
2047년	89,967	1,092,650	-1,002,683	26,259	318,915	-292,656
2048년	92,144	1,119,092	-1,026,948	25,492	309,604	-284,112

구분	수 지 분 석			현 재 가 치		
	편 익	총 비 용	순 이 익	편 익	총 비 용	순 이 익
2049년	94,374	1,146,174	-1,051,800	24,748	300,565	-275,817
2050년	96,658	1,173,911	-1,077,254	24,025	291,791	-267,765
2051년	98,997	1,202,320	-1,103,323	23,324	283,272	-259,948
2052년	101,392	1,231,416	-1,130,024	22,643	275,002	-252,359
2053년	103,846	1,261,216	-1,157,370	21,982	266,974	-244,991
2054년	106,359	1,291,738	-1,185,378	21,340	259,179	-237,839
2055년	108,933	1,322,998	-1,214,065	20,717	251,613	-230,896
2056년	111,569	1,355,014	-1,243,445	20,112	244,267	-224,155
2057년	114,269	1,387,806	-1,273,536	19,525	237,136	-217,611
2058년	117,035	1,421,391	-1,304,356	18,955	230,213	-211,258
2059년	119,867	1,455,788	-1,335,921	18,402	223,492	-205,090
2060년	122,768	1,491,018	-1,368,251	17,865	216,967	-199,103
2061년	125,739	1,527,101	-1,401,362	17,343	210,633	-193,290
2062년	128,781	1,564,057	-1,435,275	16,837	204,484	-187,647
2063년	131,898	1,601,907	-1,470,009	16,345	198,514	-182,169
2064년	135,090	1,640,673	-1,505,583	15,868	192,719	-176,851
2065년	138,359	1,680,377	-1,542,018	15,405	187,092	-171,687
2066년	141,707	1,721,042	-1,579,335	14,955	181,630	-166,675
2067년	145,137	1,762,692	-1,617,555	14,518	176,328	-161,809
2068년	148,649	1,805,349	-1,656,700	14,095	171,180	-157,085
2069년	152,246	1,849,038	-1,696,792	13,683	166,182	-152,499
2070년	155,931	1,893,785	-1,737,854	13,284	161,331	-148,047
2071년	159,704	1,939,615	-1,779,910	12,896	156,621	-143,725
2072년	163,569	1,986,553	-1,822,984	12,519	152,049	-139,529
2073년	167,527	2,034,628	-1,867,100	12,154	147,610	-135,456
2074년	171,582	2,083,866	-1,912,284	11,799	143,300	-131,501
2075년	175,734	2,134,295	-1,958,562	11,455	139,117	-127,662
2076년	179,987	2,185,945	-2,005,959	11,120	135,055	-123,935
2077년	184,342	2,238,845	-2,054,503	10,796	131,112	-120,317
2078년	188,803	2,293,025	-2,104,222	10,480	127,285	-116,804
2079년	193,372	2,348,516	-2,155,144	10,174	123,569	-113,394
2080년	198,052	2,405,351	-2,207,299	9,877	119,961	-110,084
2081년	202,845	2,463,560	-2,260,715	9,589	116,459	-106,870
2082년	207,754	2,523,178	-2,315,425	9,309	113,059	-103,750
2083년	212,781	2,584,239	-2,371,458	9,037	109,758	-100,721
2084년	217,931	2,646,778	-2,428,847	8,773	106,554	-97,781
2085년	223,205	2,710,830	-2,487,625	8,517	103,443	-94,926
2086년	228,606	2,776,432	-2,547,826	8,269	100,423	-92,155
2087년	234,138	2,843,621	-2,609,483	8,027	97,492	-89,464
2088년	239,805	2,912,437	-2,672,633	7,793	94,645	-86,852
2089년	245,608	2,982,918	-2,737,310	7,565	91,882	-84,317
2090년	251,552	3,055,105	-2,803,553	7,345	89,200	-81,855
2091년	257,639	3,129,038	-2,871,399	7,130	86,596	-79,466
2092년	263,822	3,204,135	-2,940,313	6,921	84,051	-77,131
2093년	270,154	3,281,034	-3,010,880	6,717	81,581	-74,864
2094년	276,638	3,359,779	-3,083,141	6,520	79,184	-72,664
2095년	283,277	3,440,414	-3,157,137	6,328	76,857	-70,529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NPV(-21,793,537천원), B/C(0.0572), IRR(0%) 로 세 가지 기법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6. 우정통신박물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내 용	판 단 기 준	비 고
NPV	-21,793,537천원	$NPV \geq 0$	타당성 없음
B/C	0.0572	$B/C \geq 1$	타당성 없음
IRR	0 %	$IRR > r$ ($r = 5.5\%$)	타당성 없음

4.2.4. 분석 결과

- 우정통신박물관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직영의 경우 연간 58,500천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운영비로 연간 710,485천원이 지출되어 651,985천원의 적자가 발생함.
- 경제성 분석은 NPV가 ‘-21,793,537천원’으로 분석되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RR도 ‘0%’로 나타나 사회적 할인율(5.5%)보다 낮으므로 이 역시 타당성이 없음.
- B/C 분석 결과도 기준치인 1 이하(분석값 < 1)로 분석되어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시민들의 교육·문화·자극심·경제효과의 일환으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간접편익인 사회적 편익과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재정보조를 통해서라도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른 박물관의 사례도 대부분 재정보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재정보조를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인천우체국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개항장으로서 지역 특성화, 문화유산의 특성에 걸맞는 우정통신 박물관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3. 기대효과 분석

4.3.1.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1) 연차별 투자계획

- 1차년도 225,000천원, 2차년도 75,000천원, 3차년도 50,000천원, 4차년도 4,596,329천원, 5차년도 3,466,330천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표 5-17. 우정통신박물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투자비	225,000	75,000	50,000	4,596,329	3,466,330	8,412,659

2) 파급효과 추정

-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 8,412,659천원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함.
- 총사업비를 최종수요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계수를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
- 우정통신박물관 개관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8,701,340천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855,210천원, 그리고 수입유발효과는 2,397,608천원이고, 취업유발효과는 123명으로 추정됨.

표 5-18. 우정통신박물관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유발효과 (단위 : 천원, 명)

구분	계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투자비	-	225,000	75,000	50,000	4,596,329	3,466,330	8,412,659
생산유발	2.223	500,175	166,725	111,150	10,217,639	7,705,650	18,701,340
부가가치유발	0.696	156,600	52,200	34,800	3,199,045	2,412,565	5,855,210
수입유발	0.285	64,125	21,375	14,250	1,309,954	987,904	2,397,608
계	-	720,900	240,300	160,200	14,726,638	11,106,120	26,954,158
취업유발	14.6	3	1	1	67	51	123

- 생산 유발 계수 : 특정 국산품 1단위에 의해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의 크기를 의미
- 부가가치유발계수 : 특정 국산품 1단위에 의해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 수입 유발 계수 : 특정 국산품 1단위에 의해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입(중간재)의 크기를 의미

4.3.2. 사회 및 문화적 파급효과 추정

1) 지역 문화성과 지역 역사성, 관광자원의 확대로 문화유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 시민 여가, 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과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제도, 시민문화 생활의 확대를 위해 문화체험 증진 프로그램 개발 유도
-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체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2) 지역주민 생활 수준 향상

- 지역 문화 시설의 확대, 지역의 고용기회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지역 간 균형적 개발 가능
-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로 지역주민의 복지 생활의 주요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
-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여가 공간의 장'으로 활용되어 지역민 생활만족도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

3) 지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

- 제물포르네상스의 한 축으로 본 계획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문화 생활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
- 기존 시설과의 연계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기능

부 록

1. 자문의견서
2. 국가유산 지정 관련
3. 기존 안전진단 요약

1. 자문의견서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 문 의 견 서

- 과거의 우체국, 근대건축물 우수 활용 사례 제비 필요.
해당사례도 우체국, 이 우수 활용 사례 조사 제시하고 혹시나
인천-광역시에 적용해 볼수 있는 사례 있는지 확인.
- 1, 2번 박물관 마도란의 경우 처음 작품에 부러 생각하지 않더라도
수장고나 전시비라 수장고 사이 구분 등 설치 방향 고려
이후 고려 전시나, 특별전을 자주 개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체적인
방문율이 X.
- 중구구립만들기한 집으로 사할때까만 전시소유 전문인데, 토라잇이
맞을지. 그리고 출판 범위에 중구구립 광복50주년 기념이 있는데,
시점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맞을까?
다들 상의 많이 하는데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수장고 아래 전시공간, 국민은 위한
시범방, 매뉴얼을 갖추기로 함. ✓실질적인 활용을 있는
복합문화공간 "소통"을 만들어 각 분야를 다 담을 것은 어떻게, 실제로
• 스터비스, 대형 카페도 가능한지 검토.
- 국립이 있는 건물 박물관)의 상태, 전시 비품 조사도 가능한듯함. 전시공간지
우체국 박물관 인천 50주년 특별전을 위해 갖추었는지 화백사진 전시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홍인희




국민전우회국 보존활동 방안 수립 및 다양성 검토 용역

자 문 의 건 서

1. 인천 지역의 사회사적, 문화사적 배경과 의의 등
고려함에 '관공우려동신사' 박물관 설립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2. 기획 활동안은 개항장 일대이 산재하고 있는
사적(민권기념관, 경주유치원, 대동호텔, 하도박물관 등)
과 기념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임.
3. 위술관 활동 방안은 기존 '유리상하크'에 수용이
가능하며, 민권기념관에 전시실, 아토폴렛룸 기능
중첩되는 방안으로 보임.
4. 인천만이 할 수 있는 활동안은 우체, 편지,
전보, 무선통신, CPM A 분할 등일 유이 최후인 우정사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봄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서명

구(舊)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문 의견서

1. 4개 제안사례 중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제안사례는 보이지 않음.
2. 인천우체국 하나 리모델링(제보사항4개) 환타고 주변을 살릴수 있는것 같지는 않음.
3. 인천우체국 활용 우선순위는 옛건물이라 주차장 이 문제될것 같다. 법정주차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것 같다.
인천우체국 왼쪽 유니클로 매장을 개입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좋을것 같다.
4. 내부 리모델링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
5. 생각은 전환! 외부문 대지모스라비츠로 활용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킨 사례 있음.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조

오

상



구미안전우체국 보조필을 통한 수발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 문의 견 서

1. 제시된 4 활용방안 중 어느 하나의 방안을
주요하고 다른 방안을 부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특히 지역적 특성이 인천과 유사한
지역의 사례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
발령할 필요가 있음.

3. 활용방안의 검토에 각별히 주의하여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정 일 수

구 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 문 의 건 서

인천우체국 더 큰 데성에 호응을 드려.

인천의 관광 ^{경관} ~~경관~~ 지역 주민의 유익을 고려한다. 지중철인 관광휴반

유리등인 박물관을 주르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한다.

1. 근대 미술 교류의 위키 더 리서치하는 이슬람.
문화 (근대) 역사. 전시

2. 근대 의 다양한 유산 가능한 사례, 프로그래밍 등) 주제

3. 5인이며 소연극가등유대, 유광곡만 등

4. 1층: 주민 편의시설, 응급시설, 소극대, 야외극대

2층: 유점 박물관 ^(大) 이슬람 (小)

5. 유점 박물관의 자료를 고차 리서한다.

지중철인 관광휴반과 시민들이 지중철인 관광휴반 필요.

시원해 높은 박물관 공간은 상향을 가장한다.

공간이 여유치 못한 부분은 순차로 리서한다.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김동민

서명

구인천우재국 보훈활동 방안 수립 및 다양성 검토 용역

자 문 의 건 서

1. 문화해의 가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보훈, 복원, 활동은 위해 정육, 수조로 활동은, 보훈 방법, 이동 등이 고려되면 활동은 위한 동등 기획 방법 등이 검토가 될 것임.
2. 활동은 동등 4가지의 선정 여부와 위치 동등이 선정은 위한 다양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해의 가치에 따라 동등이 정육은 수도 있지만,
현현시의 정육 동등, 시민의 오아 등이 반영된 수도 있음
정육은 동등이 활동 방법에 대한 근거 자료가 검토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여체국 관련 사업 (복원, 원시, 교육)은
활동한다면, 여체국과 협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체국에서 자료가 원시 사업도 가능할 수 있음.
(정육동신부)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이귀천

구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 문 의 건 처

- 인천형 개량우체국의 다른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에 주의를 두어는 활용방안이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 이러한 시설들의 형태는 물론이거니와 기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 ~~이러한~~ 야간에도 시민들이 활동할수있는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 되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는, 불,해당 건물의 건축적 상황, 소형 (사무실, 전시실, 기능, 개량형 요소들)을 어떻게 전시하는 공간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수공사 완료후의 본건에 소형사건별아마도 업무형의 동영상이혹지나 수록되도록 지침서를 따로 필요로 있습니다.
- '생활·체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가족의 이용을 고려한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인근복합체 세는 생활문화공간, 문화공간으로 근거리간접적 연계한 계획수립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의 문화시설을 수립하고서 분석하여 본 시설에 적합·발생할수 있는 사항들을 창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윤인하, 김소민

귀인원무제국 보프탈용 '방만 수탈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자 문 의 건 서	
태평양 전쟁범죄 고발단 한국위원회에서	
1. 서문	<p>- 장제시정부 '훈민'라는 칭호를 시 함부로 훈민령을 후 권위에서 제정된 조선의 칭호 '훈민정대왕'으로 고쳐함.</p> <p>이 조약수속판 의 1946년 조선전쟁이후 50년 후 훈민정대왕을 제정하면서 정복자를 후 의정자로 부르는 것이 명백한 수탈을, 국가를 아군의 유화한 '정복왕'에 대해 자기 수탈자로 인정하는 나쁜 짓, 허위 가능성, 조약 '훈민정대왕'을 후 훈민정대왕, 45년간 이 조약수속판 2대가정에 해명하는 훈민정대왕 아예함 (후라가 정복자 후 수속판) 훈민정대왕 : 후 수속판</p>
2. 주해	<p>태평양 전쟁범죄 고발단 (1946)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p>
3. 부속	<p>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 이 조약수속판 후라가 제정된 훈민정대왕 제정시정함.</p>

2024년 02월 06일

자문위원 손승환 권영준

2. 국가유산 지정 관련

2.1. 문화유산보호구역



2.3. 건축물대장

[illegible]

11/19/2011 12:00 PM 402-444-1111 11/19/2011 12:00 PM 402-444-1111

2000年12月15日

44

13001000-1-2011-11-01 18:2

10

10

10

[illegible]

1000

[illegible][illegible]

3. 기존 안전진단 요약

3.1. 인천우체국 구조물정밀안전진단보고서 (2002) 요약

요약문

인천우체국 정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현 상태의 노후화 정도와 그 원인 및 제반 문제점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근본적인 대책(안)을 수립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 내구성 평가

- 실시 의기에 노출되어 있는 외부 벽체의 마감재로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로 마감면 균열과 마감재의 들뜸 및 박리·박락, 오염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재료분리와 콘크리트 피복의 박락, 철근 노출 및 부식 구조체 전체에 걸쳐 발생되어 있는 현상으로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대책안에 따라 단면 복구 및 철근 피복 확보 보수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 추정입축강도는 본동에서 207kgf/cm^2 , 별동에서 232kgf/cm^2 로 본동에서 일부 부재를 제외하고는 추정설계기준강도(본동 : 180kgf/cm^2 , 별동 : 210kgf/cm^2)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동의 경우 내구성 저하요인이 전구조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료품질면에서 전체적인 경향은 양호한 상태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 염화물 함유량은 $0.24 \sim 1.68\text{kg/m}^3$ 범위에서 평균 0.88kg/m^3 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염화물량이 철근부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 본관동의 중성화심도는 시험결과 평균 5.35cm 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평균 5.12cm)를 확보하고 있는 전전부에서 조차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를 근접하거나 초과한 상태로 철근이 부식되는 등 내구성측면에서 중성화로 인한 구조물의 수명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성화와 염화물로부터 내구성을 확보하고 구조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 안전성 평가

- 외부 수평·수직면위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부동침하 등의 구조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구조체에서는 오히려 초과하는 부재의 경우도 하중 강간 등의 조치로 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내측 벽체 깊이방향에 연결된 샤프트 주변 구조부재의 경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 평가

- 인천우제국 본동은 노후화와 안전성평가로부터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불량한 상태로 분석되어 “D등급”으로 평가된다.

● 구조보강 방안

- 원모멘트를 초과하는 N명 샤프트부의 하부에 강관기둥 보강을 하고, B명 샤프트 또는 월판보강 등의 구조보강으로 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개략적 보수금액

- 구조부재중 0.3mm이상 발생된 균열보수, 재료분리 및 콘크리트피해 박락에 따른 단면복구, 중설피해 박른 철근부식보수, 중설화 및 열화물억제, 균열보수, 구조보강을 포함한 개략적 보수금액은 816,28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천우제국은 1923년에 준공되어 약 80년 정도 경과한 조적벽체와 콘크리트 슬래브 조이 2층 구조물로 한국전쟁 중에 폭격으로 인한 일부 지붕의 파손, 화재의 발생과 이후 대수선과 중속의 파손을 거치면서 오히려 일부 구조체의 변형 및 손상으로 내력벽에 구조적 부상을 가중시켰고, 1982년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로서의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보존방안의 수립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재조립 등의 저하와 열화의 진행이 가속화되어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상시 퇴기에 노출되어 있는 외부 벽체의 마감재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구年限이 초과된 상태로 마질면 균열과 마감재의 들뜸 및 박리·박락, 오염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 구조체는 시공결함으로 인한 재료분리와 일부 구간의 콘크리트 벽체두께 부족, 오랜 경과년수에 따른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의 기온 초과와 중설화가 철근 피복에 균열 또는 초과함에 따라 철근의 부식으로 콘크리트 피복이 박락되거나 철근이 노출된 상태로 철근의 부식은 진행형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떨어되어 있는 원형철근의 특성상 콘크리트면의 박락 또한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함은 각 층별 구조체 전체에 걸쳐 발생되어 있는 현상으로 내구성 측면에서 구조물의 수명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샤프트 주변 구조체에서는

구조내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보존 원칙에 따라 구조체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대책안에 따라 구조체 권제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실의 파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용도제한과 같은 부차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문 용역의 발주처인 인천우체국에서는 본동 중층구조물의 내부 또는 권제를 제거하고 문화재인 본동을 보존하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우체국 본동에 대해 문화재로서 갖는 역사적 보존 가치를 유지하면서 향후 효율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변업무관 취급하는 용도보다는 인문지역에 역사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변역사관 등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를 제안해 본다.

3.2. 인천우체국 구조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020) 요약문

인천우체국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표

1. 기본현황

가. 일반현황						
용역명	인천우체국 구조정밀안전진단		진단기간	2020. 07. 28 ~ 2020. 11. 24		
관리주체명	인천광역시 공무청		대 표 자	-		
공통수급	-		계약방법	-		
시설물 구분	공공용시설	종 류	철근콘크리트 연약지반	준 영	-	
건축년도	1923년	진단승격 (현행)	18.598	안전등급	C등급	
시설물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제일대로 183	시설물 규모	지상2층			
나. 진단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 현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진단 주요결과	- 비파괴 시험결과, 콘크리트 추정압축강도는 23.2MPa으로 확인되었으며, 탄성변형률 및 전철의 기울기 측정결과 구조물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2층 지붕층 철근콘크리트 바닥에 침관현상이 되어있음 → 이는 건물 내수전조항에서 보강한 것으로 확인됨.					
	- 1층 천장에 누수흔적이 발생함.					
	- 1층 대수전공사 기초부분과 기존 구조물의 이격이 발생함.					
	- 2층 계단실 천장에 누수흔적 및 마감재손상이 발생함.					
	- 2층 비파괴시험에 비파괴결함이 발생함.					
	- 지붕층 계단실 조파벽체에 균열 및 마감재손상이 발생함.					
	- 지붕층 외벽부에 다수의 균열 및 도장파손이 발생함.					
	- 외부 조파벽체 마감에 균열 및 도장파손이 발생함.					
	- 철골기둥에 도장층손상이 발생함.					
주요 분수·보강	결함 부재	결함 종류	보수 방안	우선순위		
	슈래브	기존+층측 부위 이격	외부 마감 재시공	2		
	외부 조파벽체	균열(폭 0.2mm 초과)	부분철거 후 재시공	2		
		도장파손	페도장	2		
	지붕층파라넷	균열(폭 0.2mm 초과)	부분철거 후 재시공	2		
		도장파손 마감재손상	마감 재시공	1		
	외장 마감재	누수흔적	마감재 교체	3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성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 등급	
책임기술자	김 민 수	2020. 07. 28 ~ 2020. 11. 24			특급기술자	
참여기술자	이 영 선	2020. 07. 28 ~ 2020. 11. 24			특급기술자	
참여기술자	김 기 명	2020. 07. 28 ~ 2020. 11. 24			고급기술자	
참여기술자	장 진 석	2020. 07. 28 ~ 2020. 11. 24			초급기술자	
라. 참고사항						

2. 결과 요약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본 진단대상 건물의 구조체에 대한 균열조사와 점검표에 의한 외관조사에 의하면,
 - (1) 1층 강바닥과 기존 구조체의 연결부위에 발생한 균열의 경우, 2004년 증축공사시 기존구조체와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증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증축공사 후 증축부위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기존구조체 부위와 증축부위에 상부 비장의 돌림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1층 바닥에 대한 상대 변위 측정결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2) 기존 구조물의 1층 내부에 발생한 슬래브 이격의 경우, 대수선 공사 당시 흙 제거후기 후 재시공한 1층 바닥슬래브(Slab on Grade)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처짐으로 발생하였으며, 대수선공사시 신설 슬래브와 기존 줄기초를 일체화시키지 않는 구조방식으로 구조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3) 지붕층 계단실 및 외부 조차벽에 균열과 도장파손의 경우 2004년 대수선 공사이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판단된다. 다만, 옥탑계단실 마감돌보의 경우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파쇄후 재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진단대상 구조물의 구조 부재에 대한 검토는 부재의 안전도를 응력/변위의 비로 비교 검토 하였으며, 검토비가 1.0이하라면 적임(O.K), 1.0이상이면(NG) 보강 후 사용으로 구분 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확인된 자료를 참조하여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본 대상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2004년 증축공사시 기존 구조물과 증축 부분이 별도로 증축되어 두 개의 구조물로 나뉘어 구조검토를 수행하였다.
 - (2) 본 진단대상구조물에 대한 구조부재의 내력검토 결과, 주요 구조부재의 설계강도 (Design strength)가 소정의 요구강도(Load effect)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책임기술자 : 김 민 수 (서명)

가.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기본사항

상태평가 결과 및 보수·보강			상태 평가 결과: C
검사항목 부재	상태평가 결과	결함 종류	보수·보강(요)
슬래브	B	기존+음측 부위 이격	상부 미장 제거작업
보	B	-	-
기둥	B	-	-
조각배치	C	균열(폭 0.2mm 초과)	부분정거 후 채색공
		도관파손	타감 채색공
		마감탈락	
철골부재	A	-	-

나.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 평가수행 부재	해석방법	안전성 평가 결과 요약	안전율	안전성 평가결과	비 고
슬래브	강도 설계법	설계강도가 요구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1.00 이상	B	현재 상태
보			1.00 이상	B	
기둥			1.00 이상	B	
벽체			1.00 이상	B	
종합평가		설계 강도 > 요구 강도	O.K	B	-

다.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

- 진단대상 건물은 준공 당시(1923년) 내진설계 비대상 건물임.

라. 현장시험 (비파괴 및 추가시험) - 주 내용은 본문 참조

시험명	시험 부위	시험결과	책임기술자 의견
콘크리트 비파괴	주요 구조부	- 추장압강도 : 26.53 MPa - 포름렌다 : 2.48 MPa - 추장압축강도 : 23.20 MPa	강물의 규모 및 준공년도를 고려해볼 때, 콘크리트 추장압축강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철근 배근조사	주요 구조부	비파괴 철근탐사 결과, 일련의 배근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조안전성 검토 시 반영함.	
부재치수	주요 구조부	부재치수 조사결과, 강물의 주요 부재치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조안전성 검토 시 반영함.	
탄산화 시험	주요 구조부	측정값 : 5.43~11.21 mm (A-B등급)	리브우측 이면의 탄산화 진행으로 탄화깊이 외한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열화물질 흡수량측정 시험	주요 구조부	측정값 : 0.387~0.612 kg/m ² (C-D등급)	전반적으로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한 곳의 시험결과가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현장조사시 대상 구조체의 상태 및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결과가 양호하여 열화물질 흡수량에 대한 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전통의 거울기	외벽 모서리	측정값 : 1/1.881~1/160 (A-D등급)	거울기 및 균열 평가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전통의 면허 면형	바다 순대길	측정값 : 1/444~1/5.333 (A-B등급)	
강재 상태 (비파괴시험)	재판데크	- 강재 내파괴적 상태 양호	
강재 결합부	볼트결합	- 볼트 결합상태 양호	
강재 결합재부식	볼트결합	- 강재 결합재 부식 상태 양호	

10.2 건물의 평가등급

구 분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2018년도 정밀안전진단	D	-	D
인원우체국	C	B	C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결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3.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2023) 요약문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업무현황					
출역명	제3종 직업임(3등급) 직사(인원증정) 경기안전경찰(해빙기)	협업기관	2023년 01월 18일 ~ 2023년 03월 30일		
관리주체명	연좌수계단	대표자	윤 승 위		
공동주관	독자운영	계약방법	승의계약		
서점품목분	과학동	시정물 종류	복합물(2cm), 복합물 박판물, 3mm이하의 복합물까지도	종.별	3종
준공일	2023년 12월 10일	협업금액 (천원)	1,278	약정당금	0
시정물-위치	법원행정처-중앙 행정청 183	시정물 구분	중.구-저장고용 면적액-1,900.0㎡		
나. 계약 심사결과 현황					
공대 심의	• 공대심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영위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대입 권유일은 2023년 12월에 종료되어 2024 3개월이 경과된 상태이며 공로업무이므로 자동종결 상태이다. • 2022년 통발기에 조사되었던 계통을 과학성 조차 혹은 일 학과, 장상공업 / 지대1층~지상2층 사무실, 복도, 휴게실의 원형 이음새 누수흔적 및 벽면 : 지상1층~지상2층 외부 벽에 균열은 전전 및 파손이 없는 상태로 조사되었으나 본 권측들은 "J등급"으로 평가되어 조사된 손상의 현상부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할 상태이다. 				
주요 비고-모양	조각벽체 균열, 접합부 하거 : 중견구 보수공법 현상, 텍스 누수흔적 : 텍스 교체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제(주제)	검정결과	교과 필요사항(보충)
과학, 역사	수학기원, 원기초운동, 원형, 구조물 및 원동력에 의한 공간 형성	1. 초형배치, 공간-중심적보완공정
과학, 철학, 미술품	역원원리, 원형 및 구조물, 지형, 구조, 구조물	2. 원형, 구조물-원형, 구조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정표와 비교	보수필요 유무	우 수	양 호	표 준	미 준	불 합	책임 인원
주요 사실	1. 서랍장 주변의 지면 확인 또는 이로 인한 관공의 기울음, 균열 상태	확인결과, 침투, 손상 없음이나, 서랍 교체는 없는 상태임.	×		○				
	2. 구조루채의 균열, 누수 상태	지상층 : 양방향에서 누수가 다수 조사됨.	○				○		
	3. 구조루채의 변형 (구조, 기울음, 단면손상 등) 상태	양호함, 상태임.	×		○				
	4. 구조루채의 결근 부위, 누수 또는 침투되는 벽면, 바닥 상태	지상층을 제외한 벽면에 서 콘크리트 벽면과 천 부 조사됨.	○				○		
	5. 외관부채의 점검부 상태 (균열, 결함, 누수, 침투, 손상상태)	해당사항 없음. [외관, 마감재, 천부, 바닥, 손상상태]	-						○
	6. 외관부채의 변형 (기울음, 파손 등) 상태	해당사항 없음. [외관, 마감재, 천부, 바닥]	-						○
	7. 외관부채의 주위 또는 부속 확인, 누수, 침투 상태	해당사항 없음. [외관, 마감재, 천부, 바닥]	-						○
일반 사실	8. 지반, 건물 연수층의 균열 상태	주변층상층으로 인한 파 손과, 바닥 마감 재료의 균열 등으로 조사됨.	○					○	
	9. 천부 마감재(천장판, 천장벽면, 벽면 등) 및 바닥의 손상 상태	해당 벽면, 천장과 도장 마감의 균열 등으로 조 사됨.	○				○		
	10. 내부 마감재 손상 상태	지상층, 원형 마감재(벽 면) 등 구조루채 벽면에 다수 조사됨.	○				○		
	11. 내부 마감재(벽면, 천장 등)의 손상 상태	조각벽면, 천장, 벽면의 균열 등으로 조사됨.	○			○			
	12. 층간변형 또는 하중상 불균형 등 으로 인한 과하중(간대이나, 동행도, 배달물 집합대, 구조물 등) 상태	불량으로 인해 하중이 증가, 과하중이 있어 하 중 조치는 없는 상태 임.	×		○				

[illegible]

(구) 인 천 우 체 국
보 존 활 용 방 안
수립 및 타당성검토

인쇄 2024년 7월

발행 2024년 7월

발간 인천광역시청

조사 · 편집 (주)아띠플랜

<비매품 · 한정판>